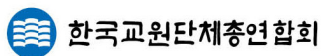


2013 학교문화 개선 연구· 선도학교 2차 워크숍

- 일 시 : 2013. 9. 9(월) 12:00 ~ 9. 10(화) 13:00
- 장 소 : 제주휘닉스아일랜드 Island ballroom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법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목 적

- 학생이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문화 개선 우수 사례 공유와 연구 · 선도 학교 담당자 간 정보교류를 통한 사업운영 개선 방안 마련

주요내용

- 일 시 : 2013. 9. 9(월) 12:00 ~ 9. 10(화) 13:00
- 장 소 : 휘닉스아일랜드 Island ballroo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82)
- 대 상 : 224개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담당자, 17개 시 · 도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담당자 등 약 256명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법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문화 개선 · 선도학교 담당자 안내

담당부처 및 사업수행기관	이 름	직 위	연락처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김영진	과장	02-2100-6539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김태환	교육연구관	02-2100-6847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조선진	교육연구사	02-2100-698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02-2188-883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02-2188-884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연구위원	02-2188-8846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일정

프로그램 일정표

시 간	행사	소 요 시 간	내용
9월 9일	12:00~13:00	도착 및 식사	점심 식사
	13:00~13:30	등록	참가자 등록
	13:30~13:45	난타 공연	15분 동남초등학교
	13:50~13:50	개회선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50~13:55	인사말	5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13:55~14:00	환영사	5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14:00~14:10	인사말	10분 교육부
	14:10~15:00	명사 특강	50분 주철환(JTBC 대PD, 전 이화여대 교수)
	15:00~15:20	휴식	20분 다과
	15:20~16:50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발표1	90분 학교문화 우수학교 사례1(강월초) 학교문화 우수학교 사례2(포항이동중) 학교문화 우수학교 사례3(애월고)
	16:50~17:20	2013 우수사례 발표2 (언어문화)	30분 언어문화 우수학교 사례(목포혜인여중)
	17:20~17:50	2013 우수사례 발표3 (법제교육)	30분 법제교육 우수학교 사례(주월중)
	17:50~18:40	만찬준비	50분 방배정 및 만찬준비
	18:40~20:00	만찬	80분 뷔페
	20:00~21:00	분임토론	60분 학교문화개선 실천방안 논의 (진행 : 각 시·도교육청 장학사)
9월 10일	07:00~07:30	기상	30분 아침 산책
	07:30~09:00	조식	90분
	09:00~09:50	공연	50분 밴드공연(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09:50~10:00	휴식	10분 다과
	10:00~10:40	컨설팅 사례발표	40분 김봉규(미래행복인재연구원 대표)
	10:40~11:20	협의회 결과 발표	40분 17개 시·도교육청별 협의회 논의결과발표
	11:20~11:40	사업 안내	20분 교육부 담당자
	11:40~13:00	점심 및 Check-out	80분

CONTENTS

	개 회 사	1
	이 재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인 사 말	5
	안 양 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환 영 사	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인 사 말	13
	교육부	
	명사 특강 : ‘학교의 변화와 교육리더의 역할’	17
	주철환(JTBC 대PD, 전 이화여대 교수)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 1	41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구현 방안’	43
	강월초등학교	
	‘감사·나눔, 배려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57
	이동중학교	

‘주도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새로운 창송인의 학교문화 만들기’	85
애월고등학교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 2	115
‘품격있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통통통(通洞統)’ 튀는 프로젝트’	117
혜인여자중학교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 3	143
‘학생회, 청소년 법제관 자치법정 운영 사례’	145
주월중학교	

 컨설팅 사례발표 :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컨설팅을 기쁘하며 창의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길’	165
김봉규(미래행복인재연구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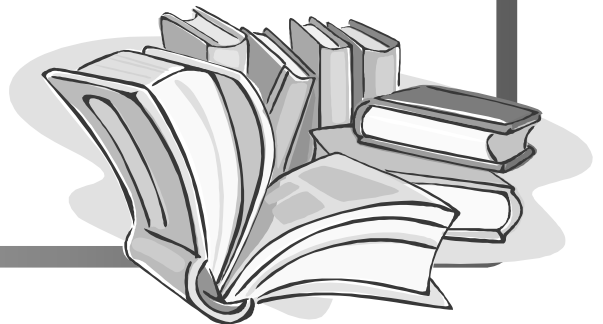
 사업 안내	175
교육부 담당자	

 부 록	179
---	-----



개 회 사

이 재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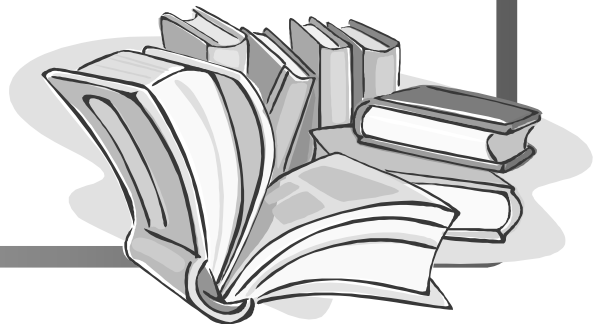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인 사 말

안 양 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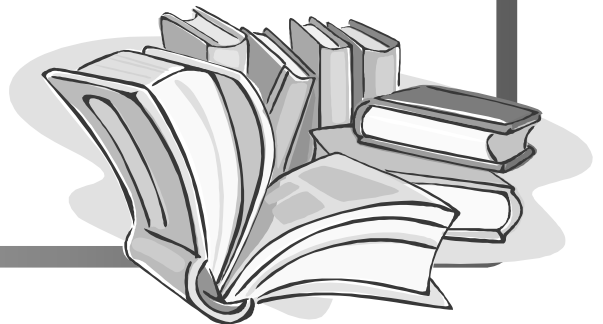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환영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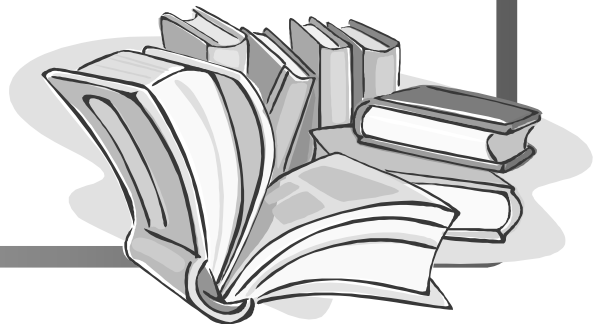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인 사 말

교 육 부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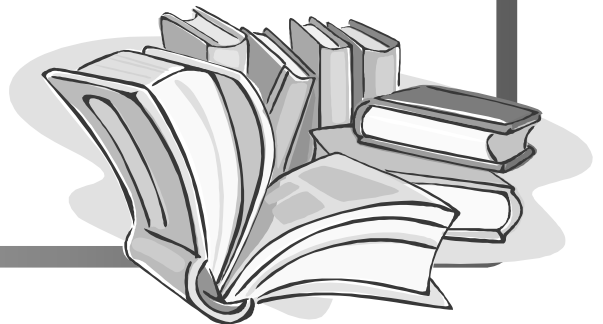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명사 특강

‘학교의 변화와 교육리더의 역할’

주 철 환 (JTBC 대PD, 전 이화여대 교수)



학교의 변화와 교육리더의 역할

주 철 환

30년 직장생활 중 3분의 1은 학교에서, 나머지는 방송사에서 보냈습니다. 덕분에 이제 후배PD가 된 제자도 여럿 생겼죠. 만날 때마다 눈은 반갑고 마음은 흐뭇합니다. 부러워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여기저기 많이도 심어놓으셨네요” 혼잣말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수업이야기는 단골메뉴입니다. “드라마나 예능만 보지 말고 광고도 열심히 보라고 하셨죠” “먼저 눈길을 끌고 그 다음에 마음을 훔치고 최후에 지갑을 열게 만들라는 말씀도 기억나요”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지 말고 점수를 매기라는 숙제도 냈습니다. 평가의 요소는 세 가지. 새로운 점, 재미있는 점, 유익한 점. 종합점수로 장원도 뽑고 우수상도 주라고 했습니다. 교실에선 자주 시상식이 열렸는데 창의성 교육의 일환이라고 나름 자부합니다.

드라마나 광고 한 편을 만들기 위해 들이는 공을 시청자나 소비자가 알 리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학생이라면 처지가 다릅니다. 비록 보잘 것 없고 울림도 적지만 저 한 마디 말, 저 한 조각 영상을 고르기 위해 ‘아이디어, 아이디어’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을 미래의 선배 작품에 짧은 감정이입 정도는 예의가 아닐까요. 데스크나 광고주로부터 당할 무언유언의 압박에 대해 미리 면역도 키워둘 겸 말이죠.

최근에 시선을 머물게 한 공익광고카피가 있습니다. “뽑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큰 글씨만으로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즉각 상상에 돌입합니다. 눈을 감으니 모내기와 김매기 풍경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농부는 심을 때 심고 뽑을 때 뽑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작년에 김을 댔으니 올 한해 건너편 농부의 논이라면 수확이 확 줄겠지요. 모도 안 내고 가을을 기다리는 농부보단 낫겠지만.

인상적인 드라마나 코미디가 그러하듯이 이 광고에도 반전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1년간 낭비되는 에너지는 나무 스무 그루가 흡수하는 CO2의 양과 같습니다.”

쓰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아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습관처럼 나도 카피하나를 마련해 봅니다. 나의 교육목표이자 방송철학을 담아서 만든 오늘의 슬로건. 바르게(공정), 고르게(균형), 다르게(창의), 푸르게(성장)!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스며있는 경우가 우리말사전에 적잖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빠질 사람은 빠지고 나머지는 빠져’하면 어떤 풍경이 연출될까요. 각자의 수영실력이나 그날의 바이올리듬에 따라 물에 들어갈 사람과 견학자로 자연스레 나뉠 것입니다. 그 순간 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에 퐁당 빠질 것이고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에서 멀찍이 빠질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사랑이 빠져있는 사람은 불행하단 얘기로도 외연을 늘일 수 있습니다.

‘뽑다’라는 말의 의미가 새길수록 각별하고 심중합니다. 면접 때마다 간절하게 다가오는 호소력 짙은 그 목소리. “뽑아주세요” 가엾지만 어찌랴. 좋은 걸 뽑고 싶다면 나쁜 걸 뽑아내야 하는 게 농부에게서 배운 지혜인데. 자, 중요한 건 뭐? 매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입사준비생들은 들어라. 우리는 준비한 자를 뽑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를 뽑는다.”

이제 두 명의 별난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외국인이고 한 사람은 한국의 영화감독이 입니다. 이들의 성장과정을 주목하면 교사역할의 단초가 보입니다.

스티브 잡스. 그가 나를 친구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내가 친구하자고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나는 그를 친구로 대우합니다. 동갑내기라서가 아닙니다. 그의 특별한 죽음은 나의 평범한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 오늘을 잡아라(Carpe Diem). 평범하게 살지 마라.(Make your life extraordinary) 학연, 지연 두루 무관한 내 친구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세상은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이 바깥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의 삶을 감옥으로 간주합니다. 틀 안의 삶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모두가 어둠을 손님처럼 공손히 맞을 때 청년 토머스 에디슨은 그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암흑의 시간을 못 견뎌하며 끈질기게 부수고 망가뜨려 마침내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을 즐긴 덕분에 혜택 본 건 누굴까요. 한때 그를 바보가 아닐까 의심했던 이웃들입니다. 에디슨은 빛을 남겼고 우리는 그에게 빚졌습니다.

모두가 공중전화 부스 앞에 줄서서 온순하게 차례를 기다렸다면 이동전화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줄에서 뛰쳐나온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분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걸어 다니며 전보를 치고 곧바로 답장을 받습니다. 음악을 듣고 길을 찾습니다.

위인은 위대한(가끔은 위험한)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이 그의 삶과 일치할 때 문제아가 아닌 위인으로 인증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라’고 외칠 순 있어도 다르게 생각하는 삶을 시종일관 보여주긴 쉽지 않습니다. 늘 갈망하고 늘 무모하게 도전하라고 권할 순 있지만 그걸 글자 그대로 ‘늘’ 행하긴 어렵습니다. 잡스는 그걸 해낸 친구입니다. 그가 바꾼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살아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닥 모를 때의 심연은 바로 네 곁에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페이터의 산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바닥 모를 때의 심연’에 밑줄을 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죽음이 한결 친근해졌습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연못 주변에서 나는 오며가며 노닙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인정하니 미움보다 사랑이 뚜렷해집니다. 불안보다 감사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잡스는 죽음의 이미지를 확장시켰습니다. 물보다 더 확고하게 구상화시켰습니다. “죽음은 생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그렇습니다. 죽음은 관에 들어가 눕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들어가 앓는 것입니다. 펠로 알토에 그의 동상을 세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가 남긴 사과 향기만으로도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 앞에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잡스의 선물꾸러미는 지금도 내 주머니 속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밥 먹자고도 하고 술 마시자고도 합니다. 그에게 받은 게 있으니 나도 뭔가 주어야겠지요. 이제부터 괴짜를 인정해야겠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소년에게 여행 가라고 용돈을 주어야겠습니다. 표정이 우울한 젊은이들에게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죽는 날 그대는 최고가 된다’고 조언해야겠습니다. 널리 세상을 즐겁게 하자고 부추겨야겠습니다.

친구의 묘지 앞에는 오늘도 꽃이 쌓일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도 꽃 한 송이 엮어주고 싶습니다. 천국의 입학사정관 앞에서 잡스는 어떤 인터뷰를 진행했을까요. 좀 다르게 질문해보라고 사정관을 곤란하게 만들진 않았을까요. 에디슨을 만나서는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며칠 사이 인생을 마감한 친구들을 대표해서 프레

젠테이션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천국이 부쩍 소란스러워졌을 성싶습니다.

또 한 사람. ‘열등감을 먹고 자란 괴물’. 범죄심리학자의 분석에 등장한 용어가 아닙니다. 기발하게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감독 입에서 나왔습니다. ‘괴물’은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겸손을 감안하면 ‘소외감을 딛고 자란 괴짜’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열등감은 없습니다. 표정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인터뷰 화면의 배경음악으로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다는 ‘The times they are a-changing’이 어울릴 성싶습니다. 흔히 ‘지금의 패자가 훗날 승자가 되리’로 번역하는 밥 딜런의 노래입니다. 황금사자상을 받는 순간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청계천에서 무거운 구리 박스를 들고 다니던 15살의 내 모습’이란 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분노는 보이지 않았습니 다. 김기덕 감독에게 과거(고난)는 현재(영광)의 재료에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형배급사의 상영독점에 대해선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극장에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출연배우 이정진의 말에 ‘솔직히 편하게 볼 영화는 아니잖습니까’라며 토를 다는 기자는 없었습니다. 축제기간이었 기 때문입니다.

박태환의 메달이나 기성용의 CF를 보고 어린 자식을 수영장, 혹은 축구장에 보내는 상상은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김감독의 성공담을 듣고 자식을 청계천공구상으로 보내려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김감독의 사례는 토론수업하기 딱 좋은 소재입니다. 19급 영화라 교실에서 상영할 순 없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청소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 통찰, 성찰해볼 만한 이력입니다. 그는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공부가 싫어서 교실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오로지 가난해서 학교를 떠났 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멈춘 건 아닙니다. 무거운 노동을 통해 국어와 수학, 음악과 미술, 그리고 사회를 터득했습니다.

무슨 대학 나왔냐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해병대 나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는 거기서도 인생의 학점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홀연히 그림공부 하러 프랑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무나 하긴 힘든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는 ‘움직이는 그림’에서 절절한 재미를 느꼈고 한발 더 나아가 그것을 직접 만드는 데 도전했습니다. 그가 자신 있는 건 ‘음침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겪고 느낀 이야기를 하니 불편하긴 하지만 진심이 묻어납니다. 인간은 천사와 동물의 중간자쯤 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자, 어떨까요. 이쯤해서 세 가지만 요약

하죠. 우선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둘째 절박함 속에서 예술은 꽃핍니다. 셋째 공부에 때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인생을 공부하러 당장 짐을 싸라고 권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기덕에게 가난은 걸림돌이자 디딤돌이었습니다. 아니 주춧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에게 빈곤에 해당할 만한 압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적일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적성’순이라는 걸 김감독은 증언합니다. 교사는 지금부터라도 성적순으로 줄 세우지 말고 각자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씻고 팔을 걷고 도와야 합니다. 제가 교장이라면 수업시간을 확 줄이고 특활시간을 확 늘리겠습니다. 더디게나마 대학입시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 호재 아닌가요. 성적으로 세우면 한 줄이면 되지만 적성으로 세우면 여러 줄이 됩니다. 그 속에 미래의 김기덕도 있습니다.

불행한 교실엔 무시와 질시가 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으로 올라가미를 씌우는 어머니를 소년은 살해했습니다. 그의 옥중편지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한다.” ‘공부해라’가 아니고 ‘1등해라’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걸로도 1등할 수 있는데. 그는 지나치게 사랑받은 걸까요, 아니면 버림받은 걸까요.

낭중지추(囊中之錘). 날선 송곳은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다만 어떤 주머니 속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에 맞게 맞는 주머니를 골라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는 가급적 많은 주머니를 보여주고 찾아주어야 합니다. 작고 어두운 주머니 속에서도 송곳은 얼마든지 존재감을 발합니다.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이 늘었습니다. 국어교사출신 PD인 나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한국노래를 합창하며 춤추는 모습이 흐뭇합니다. 부산물로 가끔 기발한 표현도 접합니다. “고양이 죽어서 땅에 심었어요.” 애교로 넘길 수 있지만 정답게 정답을 가르쳐줍니다. “심었어, 아니죠. 묻었어, 맞아요.” 이방인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보충교육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심어요, 그러면 살아나요. 묻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어김없이 해는 저물니다. ‘처음처럼’보다 ‘마지막처럼’이 어울리는 지점입니다. 추수는 끝났지만 결산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올 한해 뭘 묻고 뭘 심었나. 묻어도 되

살아나는 게 있고 심어도 살아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욕심은 묻어도 되살아납니다. 의심과 근심은 심어도 꽃으로 피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부르는 게 12월의 유행가입니다.

망년회 대신 송년회란 말을 쓴지는 꽤 됐습니다. 일본식이건 한국식이건 내 입장은 비교적 관대합니다. 잊을 게 많으면 망년회를 열고 보낼 게 많으면 송년회로 이름붙이면 됩니다. 어딜 가도 술이 있는 까닭은 잊고 보내는데 그만한 약이 없어서일 겁니다. 약 좋다고 남용만 안 한다면 오죽 좋을까요.

‘언어유희자’에게 망(忘)은 망(網,望)입니다. 분단의 철조망도 있지만 세계를 잇는 망(www)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망을 깔아야 행복할까요. 밑줄부터 긋자면 행복의 동생 이름은 극복이지 보복이 아닙니다. 원망은 일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마다 원망을 품고 삽니다. 수리하거나 철거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망이 또 있습니다. 선망입니다. 평생 부러워하다가 날 썩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물림까지 합니다. 엄친아, 엄친딸은 부자유친의 최대걸림돌입니다. 선망은 실망으로 필히 연장운행합니다. 종착역은 절망입니다.

선망과 색깔은 비슷하지만 열매가 다른 게 희망입니다. 희망은 소망이 더 여문 상태입니다. 차이는 가능성의 유무. 소망은 ‘하고 싶다’지만 희망은 ‘할 수 있다’입니다. 소망이 애벌레라면 희망은 나비입니다. 선망은 적당할 때 희망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친구들 다수가 교단에 있는지라 모임의 주제도 그 언저리입니다. 교육에 대해 토론할 때 빠지지 않는 핵심어가 경쟁인데 앞서 말한 세 가지 망을 여기에 대입하면 원망은 경쟁자, 선망은 경쟁심, 희망은 경쟁력에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있는 곳이 교실입니다.

교실의 프로듀서는 반장이 아니라 교사입니다. 모름지기 교사는 경쟁심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우는 기획자여야 합니다. 시청률, 아니 진학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입으로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말이 씨가 된다고 배워서입니다. 씨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좋은 걸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립니다. 희망을 심는 자, 그걸로 홀룡합니다.

방송가의 송년회는 어떤가요. 여기서 묻거나 심는 사람보다 뽑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몇 년째 ‘뽑기 열풍’입니다. ‘슈스케’, ‘위대한 탄생’, ‘나가수’에서 ‘K팝스타’까지. ‘대학가요제’ 6년 연속연출자인 저 역시 참 많이도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추억을 심었지만 열매는 희귀합니다. 그러니 뽑힌다고 반색할 일도 못 됩니다. 뽑아 키우는 경우보다 뽑아 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매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농부가 뽑는 건 잡초이고 치과의사가 뽑는 건 충치입니다.

표정이 어두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인상이 왜 그래?” “문제가 많아요.” 위안 삼아 말을 건넵니다. “문제가 많다니 문제집이로군. 네가 받은 시간의 선물이 바로 그 문제집 아닐까.” 말하고 보니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늘 하던 그 말. “여기서 풀어봐.” 문제를 푸는 건 결국 선물을 푸는 것입니다.

구겨진 인상은 구겨진 인생을 만듭니다. 원망이나 선망은 다리미가 아닙니다. 이기는 게 좋지만 비기는 게 낫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다 아는 비밀이지만 이기려고만 하면 불행해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축하연설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The best is yet to come.)” 제겐 이렇게 들립니다. “부지런히 희망을 심어라.”

지난해 여름 시드니에 다녀왔습니다. 호주의 한국기업인들 모임에서 저를 초대 해주셨거든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 임도 보고 뽕도 탄다고 하죠. 덕분에 휴가를 즐겁고 뜻 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단체의 이름이 콜링맨입니다. 콜링(calling)은 직업, 또는 소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진 분들일까 궁금했습니다. 만나보니 따뜻하고 친절하기 그지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 못지 않게 돈을 잘 쓰는 데 관심이 많아 보여 호뭇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3사, 즉 감사, 찬사, 봉사를 생활화하고 계신 분들인 듯싶더군요.

그분들이 왜 저를 불렀을까요? 강연장에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PD’라고 써있는 걸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을뿐더러 유명한 것과 유능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겸손해서라기보다 마음에 부담이 되어 수정을 요구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 동안 하신 일보다는 그 동안 하신 말과 글을 보고 모신 겁니다.”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오히려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난 왜 그리 많이 말하고 또 많이 썼을까. 생각하는 시간보다 말하고 글 쓰는 시간이 더 많았던 건 아니었을까. 무심코 했던 말, 기분 닿는 대로 썼던 글이 족쇄가 되어 돌아오는 세상 인데.” 그날의 주제가 ‘리더의 자격’이었는데 객석엔 시드니교민보다 한국에서 날

아온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웬 일이냐고요? 시드니에는 워킹홀리데이라고 해서 여행과 일을 통해 인생 공부를 시켜주는 고마운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머문 호텔에서 방청소를 하던 젊은이가 반갑게 한국어로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도 워킹홀리데이로 시드니에 왔다더군요.

저는 유명무실과 명실상부의 차이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낫지만 실체가 없는 게 유명무실이고 이름과 실체가 한결같은 게 명실상부입니다. 이만하면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언행일치, 솔선수범입니다. 말만 그럴 듯한데 행동은 어긋나거나 정반대이면 그건 리더뿐 아니라 친구나 동료로도 실격입니다.

다음으로는 ‘더 유명하다’고 할 때의 ‘더’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올림픽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스포츠나 사업을 할 때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로는 곤란합니다. 향기로운 삶에는 ‘더’보다는 ‘다’가 어울립니다.

다다이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줄음이 밀려오던 오후 수업시간에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물으면 거의 백 년쯤 전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왜 느닷없이 다다이즘이냐고요? 문예사조와는 아무 관련 없는 ‘더다이즘’을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인터넷엔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지어낸 말이니깐요. 솔직히 옛날엔 ‘더’(more)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엔 ‘다’(all)에 마음이 끌립니다. 더 잘사는 게 최고였는데 다 잘사는 게 최선이란 걸 느지막하게 깨달은 셈이죠.

개똥철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더, 더, 더 이런 말만 듣고 자란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다이즘의 핵심은 더 잘사는 길과 다 잘사는 길의 합일점을 모색하자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는 ‘더’ 잘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 잘살기를 외면하고 각자 ‘더’ 잘사는 길만을 찾는다면 우리 모두는 길 없는 길 위에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두 해 가까이 본부장으로 불리다가 어느 날부터 저는 대PD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후배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잘된 거 맞죠?” 정답을 구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잘돼 보이면 잘 된 것일 테고 안돼 보이면 안 된 거겠지.” 마치 큰스님 같은 답변에 그 역시 ‘기특하게’ 반응합니다. “전 잘돼 보이는데요.” 그러곤 하나를 더

문습니다. “그런데 대PD가 뭐죠?” 이 또한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커서가 아니라 더 크라고 회사가 붙여준 이름 아닐까?”

인사의 원칙은 여섯 글자, 즉 적재적소적시(適材適所適時)입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잘할 수 있는 장소에 두되 그 시기가 적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대PD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해준 회사가 고맙고, 따라서 제 마음은 기쁘고 홀가분합니다.

사실 본부장 직전의 제 호칭은 사장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 있다가 다른 회사의 본부장이 되니 인터넷 댓글 중에는 조롱의 시선도 일부 있었습니다. 사장으로 일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허탈감을 가질 거라는 게 그분의 추측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중역도 좋지만 현역은 더 좋다, 사장이나 본부장도 좋지만 현장은 더 좋다고 저는 마음의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말장난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유희의 언어로 들리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치유의 언어가 되기도 하니까요.

신문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발령이 실립니다.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도 뒤따릅니다. 이른바 ‘물먹은’ 사람도 있고 ‘물 만난’ 사람도 보입니다. ‘물 건너간’ 사람도 떠오르고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나 주변사람이나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살다보면 때론 물을 만나고 때론 물을 먹고 때론 물을 건너는 거죠. 그게 삶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물을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물이 우리를 덮치기도 하니까요.

“힘들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이 말에 대한 저의 답변은 즉각적입니다. “힘이 납니다.” 사실 이 대답이 제게는 ‘원기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원기소를 아신다면 꽤 오래 사신 분일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잣집 아이들은 원기소라는 영양제를 먹었거든요. 원기소를 먹으면 키가 커진다는 말이 그 당시엔 교실 안팎에 두루 퍼져있었죠. 어쩌다가 한두 알 얻어먹는 수가 있는데 그 맛이 신비한 과자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원기소 같은 말이 제 가슴 속엔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힘이 드는 건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 오르기 때문’이라는 어느 목사님 말씀이 지금은 힘이 됩니다. 힘들지 않은 일은 보람도 작죠. 힘이 들수록 언젠간 공기 좋은 곳에서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희망 아닐까요?

역사소설에 보면 자리를 잃은 자들의 세 가지 반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齒)를 가는 사람, 칼을 가는 사람, 먹을 가는 사람. 누가 가장 멋있어 보이나요? 이를 갈면 본인의 건강에 안 좋을 겁니다. 칼을 갈면 누군가를 해쳐야 합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는 말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먹을 갈아 자신을 수양하면 인품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쯤해서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 하나가 떠오릅니다. “성공에 의해서는 대개 그 지위가 커지고 실패에 의해서는 자주 그 사람이 커진다.”

국어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제 시선이 남다릅니다. 대PD의 ‘대’는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습니다. ‘나무가 참 크구나’고 할 때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참 잘 크는구나’라고 할 때는 동사입니다. 앞의 ‘크다’가 성공이라면 뒤의 ‘크다’는 성장이죠. 이미 커버린 나무도 보기 좋지만 쑥쑥 커가는 나무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적재적소적시의 기준은 적성입니다. 성공과 성장의 비결은 자신을 잘 알고 그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게 노력이고 그것을 돕는 게 교육입니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리더의 사명은 바로 적성을 발견, 발굴해서 육성해주는 겁니다.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마다 각자의 구역이 있습니다. 악어는 악어들끼리 모여 삽니다. 악어를 부러워한다고 개구리가 악어처럼 될 수 있을까요? 개구리는 기껏 해봤자 황소개구리밖에 안 되죠. 그렇다고 개구리가 악어보다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엔 식물원에 가볼까요? 큰 나무 옆에서 크는 나무들, 저마다 무리지어 피는 꽃들을 즐겁게 살피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삼라만상의 인사권을 가진 계절도 반갑게 웃으며 인사할 겁니다.

휴대전화 수신기에 낯선 번호가 뜨면 망설이게 됩니다. 무심코 받았는데 길게 녹음된 광고를 들어야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죠. 그날은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는 듯했지만 제법 단호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머뭇뭇했던 시간 보다는 아마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누를까 말까 하는 고민이 있었겠죠.

“저..이번에 떨어진 사람인데요.” 짐작이 갔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하는 방송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거든요. 아나운서 최종면접에서 낙방한 지원자였습니다. 그는 제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밝힌 후 조심스럽게 자신이 불합격한 이유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문답하기엔 적절치 않은 대화라고 판단한 저는 군더더기

다 빼고 일요일 오후에 집 근처 카페로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 명 더 데려가도 되냐며 양해를 구했고 저는 몇 명이건 상관없다고 흔쾌히 답해주었습니다.

약속한 일요일. 한눈에 봐도 미남미녀인 두 젊은이가 시야에 잡혔습니다. 기억 한 구석에 남아있는 얼굴들이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후한 점수를 주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말이지만 최종에 올라온 누구를 뽑아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차례의 필기, 카메라테스트, 다시 두 차례의 심층면접을 통과한 전력의 소유자들이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실전경험이 풍부한 지원자들이 많았던 게 그들에겐 다소 불리한 조건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면접관들에게 아마추어 같은 느낌을 던져주었죠.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오히려 더 뽕뽕하고 신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들은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제가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아무래도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답하는 태도가 제 맘을 열게 했습니다. 저는 단어 하나를 정정해 주었습니다. “운이 부족한 거겠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걸 운에 맡긴다면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운이란 것은 대체로 더 준비한 사람의 편입니다.” 그리고 각자 보완해야 할 점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면 그대들에게도 행운이 따라올 겁니다. 행운과 친구가 된다면 직장에 들어오는 일도 시간문제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방송사에 시험 칠 때는 전혀 준비가 없던 상태였죠. 그냥 휴가 중에 우연히 방송사 옆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시험과목만 보고 ‘장난삼아’ 지원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필기 합격 후 몰아닥친 면접시험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 PD가 되려고 하는지를 묻는데 전 슬기롭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프로를 만들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카투사였던 저는 미군부대에 근무하면서 한국TV프로를 본 적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한 마디로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요행을 바랐습니다.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라디오 정오뉴스를 통해 나오는 최종합격자 명단을 저는 가슴 조이며 기다렸으니까요.

제대 후 모교에 찾아갔을 때 은사님은 제게 공부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고심 끝에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솔직히 학문연구엔 그다지 취미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듬해 3월.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PD시험 최종탈락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면접기회를 주어 추가로 선발하려 한다는 소식은 저를 새삼 들뜨게

했죠. 원래 TV보기를 ‘책보기’보다 두 배로 즐기는 저는 그 사이 몇 개월 동안 방송의 흐름을 파악했고 늦게나마 P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대학동기 중에 이미 PD로 일하던 정주의 도움도 컸고요. 만약 제대 전 단번에 합격했다라면 전 나중에 박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훗날 대학교수가 되는 일도 없었으리라는 게 제 간략한 회고담입니다.

젊은 아나운서 지망생들에게 전 이런 덕담을 남겼습니다. “어제에 감사, 오늘에 찬사, 내일에 봉사하라.” 제가 늘 말하는 3사에 시간을 접속한 거죠. 그들은 기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기 전엔 휴대전화로 기념사진도 찍었고요.

제가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자성어가 전화위복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애기의 공통점이 전화 한 통으로 얻은 소중한 행복이네요. 두 친구는 아마도 미래의 유능한 방송인이 될 겁니다. 그들은 용감했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자 했으며 그것을 깨달은 후에 다시 새롭게 출발했으니까요. 혹시 방송인이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 안 풀리는 현실이 행복한 도전의 밑바탕이 된다면 이미 행운은 그대의 편입니다. 자, 빨리 걸고 빨리 받으세요. 행운의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주변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배려(配慮)가 있습니다. 외모나 재주가 뛰어나서, 혹은 머리가 좋아서 잠깐 동안 사랑받는 경우는 흔하죠. 그러나 오래가려면 배려가 필수입니다. 국어사전엔 ‘도와 주거나 보살피주려고 마음을 쓰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은 받는 게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프로그램들에도 수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원일기’에는 영원한 고향의 향기가 있었죠. ‘수사반장’이 장수했던 건 아무리 조심해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마다 방송되는 ‘전국노래자랑’은 또 어떻습니까? 노래를 사랑하는 한국인이 있고 박수 쳐주는 이웃이 있는 한 쉽게 폐지되지 않을 거란 믿음이 갑니다. 그 프로엔 특히 이웃이란 두 글자가 어울립니다. 이웃은 2행시로 이야기와 웃음이니깐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역시 10년 넘게 매주 토요일 오전에 시청자를 찾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이겠죠. 일단 먹을 게 생기면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배고팠

던 시절이죠. 끼니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은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몸에 맞는 걸 때맞춰 적당한 양으로 먹는 게 잘 먹는 거라고. 그런데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유혹에 못 이겨, 습관에 못 이겨 먹는 일이 잦으니까요. 병을 얻은 후에야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사실 주위를 살펴보면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나’는 선거용 구호만은 아닙니다. 잘 산다는 건 과시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삶일 테니까요. 그게 체질이 되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제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형은 연봉이 얼마나 돼요? 몸값이 꽤 되죠?” 제가 답합니다. “내가 너보단 잘 버니까 언제라도 밥은 내가 살게.” 몸값과 밥값의 차이란 이런 겁니다. 몸값은 받는 것이고 밥값은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잘 산다는 건 결국 잘 쓰는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쓰는 건 돈뿐이 아닙니다. 힘도 쓰고 시간도 쓰고 사람도 씁니다. 손도 쓰고 머리도 쓰고 마음도 씁니다. 종류가 여럿이니까 한 가지씩 정리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쓸만한 것들이 우리가 언제라도 쓸 수 있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진 않다는 냉정한 현실. 예를 들까요? 힘을 쓰고 싶은데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기어이 옵니다. 시간을 행복하게 쓰고 싶은데 이미 시간은 저만치 도망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쓰고 싶은데 필요한 사람은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를 쓰고 싶은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손을 쓰고 싶은데, 몸을 쓰고 싶은데 그들이 뜻대로 따라주질 않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힘이 있을 때 힘을 좋은 데 쓰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알뜰히 쓰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기분 좋게 쓰라는 겁니다.

오래 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게 바로 마음일 겁니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반대겠죠.

잘 살려면 사실 밥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라는 선인들의 조언은 오늘도 유효하니까요.

잘 살기 위해 쓰지 말아야 할 것들도 몇 가지 기억합시다. 웬만해선 때를 쓰지 말아야죠. 억지를 써서, 악을 써서 되는 일은 드뭅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인상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살아온 사람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인상 좋은 얼굴을 지녔거든요. 잘생겼다는 말, 똑똑하다는 말, 돈 많아서 좋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마음의 부자가 되는 연습을 매일 합시다. 그러려면 꼭 써야 할 게 있죠. 바로 글입니다. 글을 써보세요. 돈을 쓴 기록, 즉 가계부도 좋지만 마음을 쓴 기록, 일기는 더 좋습니다. 반성의 글, 용서의 글, 희망의 글을 매일 쓰다보면 차츰 성격이 인격으로 변하는 걸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런 말이 나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얹히는 것 같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이게 선부른 판단이라는 걸 어떤 즈음에 알았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푸는 거다. 둘째,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푸는 거다. 셋째, 풀지도 않으면서 저절로 풀리기를 바란 거다.

이 소중한 지혜를 누가 가르쳐줬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분이 계신 곳으로 수업료, 아니 복채 들고 달려가고 싶으시죠? 그냥 계셔도 됩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분이 찾아올 겁니다.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세월입니다.

어릴 때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래를 들었지만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약국에 가서 세월 달라면 주나” 건방지거나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세월 만났다’ ‘세월이 피해간다’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세월은 흐르는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 뭔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월은 묵묵히, 때로는 거칠게 흘렀습니다.

나이 먹은 게 즐겁다고 말하면 대체로 믿지 않으실 겁니다. ‘나이 먹은 게 아니라 더위 먹은 거 아냐’라며 힐책할 분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을 상당수 발견했고 그래서 이따금 흐뭇합니다.

‘나이 먹는다는 건 늙는 것이고 늙으면 서러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늙어도 서럽지 않고 오히려 새로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매일 밥만 먹을 게 아니라 맘도 먹는 것입니다. 어떤 맘을 먹느냐에 따라 서러움이 새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라 실력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방관이란 곁에서 본다는 뜻이죠. 수수방관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가 아니라 ‘뭐?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지’라고 마음먹으십시오. 어차피 삶이란 문제의 연속 아닙니까. 방관자는 ‘나한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라며 울적해 하지만 실력자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니 고마운 일이지’라며 흥미진진해 합니다.

실력자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만 풀다보면 재미도 없고 실력도 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자가 실력자입니다. 오늘 못 풀면 어떻습니까. 내일 풀면 됩니다. 혼자 못 풀면 어떻습니까. 여럿이 힘을 합쳐서 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푼다는 의지,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실력이 늘면 마음이 넓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나이를 덜 먹었을 때의 일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폭풍의 시기를 헤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껍이나 다행스럽고 지금 그 비슷한 과오를 범하는 눈앞의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거대한 문제집입니다. 문제집엔 반드시 해답이 실려 있죠. 골치 아프다고 미리 답을 봐버리는 게 습관이 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풀리는 것이고 풀려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제가 대학갈 때 본 시험은 예비고사였습니다. 그 뒤 학력고사를 거쳐 지금은 수능시험이라고 부르죠. 그 시험들의 공통점은 객관식, 즉 4지선다형이거나 5지선다형입니다. 인생수능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객관식입니다. 주관식 문제지엔 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객관식문제지엔 답이 널려 있습니다. 다만 섞여있는 거죠. 다 맞으란 법도 없습니다. 방관자는 점수에 연연하지만 실력자는 오답을 체크하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인생수능의 출제자는 몰라도 채점자는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 분이 바로 세월입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도 해매고 문제 앞에서 연필 굴리는 사람들을 세월은 저만치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답을 잘 고르는 그 사람보다는 오답노트를 가진 그 사람의 손을 세월은 들어줄 겁니다. 꾸준히 풀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반성하는

그 사람을 세월은 높게 평가할 겁니다.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성수 주교는 여든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우리 마을 총장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마을이라니까 혹시 제가 사는 동네냐고 물을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그분이 직접 만든 정신지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름이 ‘우리 마을’입니다. 총장에서 총장으로 바뀐 건 순전히 그분 자신의 선택이었던 거죠.

총장의 행복과 총장의 행복은 어느 게 더 클까요? 참 유치한 질문이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대학이건 동네건 가게건 상관없을 겁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다는 건 자신으로 인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자리를 이동한다는 거니까요.

자, 이제부터 제 얘깁니다. 한때는 사장에서 지금은 본부장으로 강등(?)되자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도 물었죠. “빨리 가는 것도 좋지 만 오래 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중역보다는 알짜배기 주역이 낫죠. 그리고 주역보다는 현역이 더 좋고요.” 평생을 전문가로 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비단 제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직장이 집이라면 직위는 옷입니다. 눈에 띄게 화려한 ‘의상’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의복’이 편하고 좋죠. 지금의 직위가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우선 제가 불편하지 않으므로 저는 출근할 때마다 흐뭇합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일이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저의 작은 재능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나이 들어 힘이 부치면 그때는 웃으며 자리를 양보해야죠.

자리는 의리, 도리와 한 울타리입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연연할 때 서서히 비참해지는 광경을 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사장직을 떠나면서 이런 고별사를 메일로 보낸 기억이 납니다. “저를 사장으로만 여겼다면 회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별입니다. 하지만 저를 인생의 좋은 선배라고 여겼다면 어딜 가더라도 우리는 형제입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각각 떨어져 살아도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니까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뽑은 친구들은 유독 정이 많은 편입니다. 다재다능과 함께 다정다감을 선발기준으로 삼았던 제 판단이 맞았던 거죠. 저는 그들을 ‘희나리’라고 부릅니다. 희망을 나누는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 저를 뭐라고 부를까

요? 사장님이 아니라 이장님입니다.

희나리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마을 이름입니다. 제가 그 마을의 초대 이장인 셈이죠. 처음엔 어색해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일제히 저를 이장님, 이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사장에서 이장이 되니 힘이 이분의 일로 줄어든 것 같지만 실은 두 배로 늘었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하면 힘이 빠져나가지만 힘난다, 힘난다 하면 힘이 생기거든요. 저는 살아있는 동안 이들과 함께 즐겁게 희망을 나누고 심을 예정입니다.

번역서인 ‘행복의 조건’은 원제가 ‘잘 늙는다는 것’(Aging well)이라네요. 나이를 잘 먹는 게 결국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나잇값을 하라’는 말은 대개 언짢을 때 나오는 소리인데 그건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주문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제가 나잇값 계산하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알려 드릴까요? 우선 자신이 하는 말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따뜻한 말, 따끔한 말, 따분한 말. 100단위에 따뜻한 말을, 10단위에는 따끔한 말을, 1단위에는 따분한 말을 배치하세요. 열 번 말하는 동안 따뜻한 말은 세 번, 따끔한 말을 네 번, 따분한 말을 세 번했다면 그의 점수는 343점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점수는 몇 점일까요? 910점입니다. 따뜻한 말을 9 번, 따끔한 말은 한 번, 따분한 말은 한 번도 안 해야 그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하고 글 쓰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지덕지입니다. 요즘은 친구보다 친구의 아들딸들을 더 자주 만나 조언할 수 있다는 것도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나이 들면 누군가를 이끌어주어야 하는데 저는 목표를 감지덕지로 정했습니다. 감성, 지성, 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거죠. 감성의 시작은 드라마 ‘다모’의 명대사, 바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연민입니다. 지성의 시작은 사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겸양이죠. 덕성의 시작은 남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는 아량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나이 드는 것도 즐거울 듯합니다. 이런 지혜를 갖게 된 것도 제겐 감지덕지입니다.

“비가 그쳤다고 우산을 버릴 순 없다. 내일을 살기 위해 어제를 버릴 수 없듯이.” 이렇게 멋진 말을 누가 했을까요? 케이블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의 주인공이 한 독백입니다. 뜻밖이죠?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막돼먹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현인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우산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는 많아도 우산을 버리는 사람은 드물 것
입니다. 그런데 전 진짜로 우산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다를 향해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만약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꼭 넣어야 할 장면 중 하나죠.
비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입대하기 전날 고향인 마산 해변에서 폭풍우에 가까운 비를 만났습니다. 비닐우
산으론 도움이 안 됐죠. 생각해보니 내일이면 군대 갈 놈 아닌가 싶었습니다. 비
좀 맞는다고 대수일까요? 그리고 덤으로 얻은 깨달음. “비를 좋아한다고 늘 떠벌
렸는데 이제껏 내가 해온 행동은 무엇인가. 비를 피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 생
각을 하니 비가 몸에 들어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다. 뭐랄까. 비와 내가 뒤엉켜
사랑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따뜻했고 행복했습니다. 내 청춘의 전반부는 그 사
건으로 대미를 장식했죠.

회사까지 걸어가는 길에 미술관이 둘, 박물관이 둘, 영화관이 둘, 교회가 둘 있
습니다. 걷다보면 세상 속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세월 속을 걸어가는 느낌이 듭니
다. 이문세의 ‘광화문연가’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조그만 교회당이 보이면 출근길
도 막바지에 다다르죠. 교회당 앞에 설교 제목이 늘 적혀있는데 그걸 읽고 사색하
는 재미 또한 각별합니다. 얼마 전엔 좀 특별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어려워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내게 실력이 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젊다는 게 뭔가요. 젊게 산다는 건 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생각의 특징
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현실에 저항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 특권의 시기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영원한 청년이 되려면 분노보다는 유쾌하게
도전하는 모험의 얼굴이 더 낫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한다. 할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려 든다.” 버
나드 쇼의 말입니다. 청춘으로 살려면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알
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주변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배려(配慮)가 있습니다. 외모나 재주가 뛰어나서, 혹은 머리가 좋아서 잠깐 동안
사랑받는 경우는 흔하죠. 그러나 오래가려면 배려가 필수입니다. 국어사전엔 ‘도와
주거나 보살피주려고 마음을 쓰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은 받
는 게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프로그램들에도 수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원일기’에는 영원한 고향의 향기가 있었죠. ‘수사반장’이 장수했던 건 아무리 조심해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마다 방송되는 ‘전국노래자랑’은 또 어떻습니까? 노래를 사랑하는 한국인이 있고 박수 쳐주는 이웃이 있는 한 쉽게 폐지되지 않을 거란 믿음이 갑니다. 그 프로엔 특히 ‘이웃’이란 두 글자가 어울립니다. ‘이웃’은 2행시로 이야기와 웃음이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역시 10년 넘게 매주 토요일 오전에 시청자를 찾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이겠죠. 일단 먹을 게 생기면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이죠. 끼니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은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몸에 맞는 걸 때맞춰 적당한 양으로 먹는 게 잘 먹는 거라고. 그런데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유혹에 못 이겨, 습관에 못 이겨 먹는 일이 잦으니까요. 병을 얻은 후에야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사실 주위를 살펴보면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나’는 선거용 구호만은 아닙니다. 잘 산다는 건 과시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삶일 테니까요. 그게 체질이 되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제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형은 연봉이 얼마나 돼요? 몸값이 꽤 되죠?” 제가 답합니다. “내가 너보단 잘 버니까 언제라도 밥은 내가 살게.” 몸값과 밥값의 차이란 이런 겁니다. 몸값은 받는 것이고 밥값은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잘 산다는 건 결국 잘 쓰는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쓰는 건 돈뿐이 아닙니다. 힘도 쓰고 시간도 쓰고 사람도 씁니다. 손도 쓰고 머리도 쓰고 마음도 씁니다. 종류가 여럿이니까 한 가지씩 정리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뒀야 할 게 있습니다. 쓸만한 것들이 우리가 언제라도 쓸 수 있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진 않다는 냉정한 현실. 예를 들까요? 힘을 쓰고

싶은데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기어이 옵니다. 시간을 행복하게 쓰고 싶은데 이미 시간은 저만치 도망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쓰고 싶은데 필요한 사람은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를 쓰고 싶은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손을 쓰고 싶은데, 몸을 쓰고 싶은데 그것들이 뜻대로 따라주질 않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힘이 있을 때 힘을 좋은 데 쓰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알뜰히 쓰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기분 좋게 쓰라는 겁니다.

오래 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게 바로 마음일 겁니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반대겠죠. 잘 살려면 사실 밥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라는 선인들의 조언은 오늘도 유효하니까요.

잘 살기 위해 쓰지 말아야 할 것들도 몇 가지 기억합시다. 웬만해선 때를 쓰지 말아야죠. 억지를 써서, 악을 써서 되는 일은 드뭅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인상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살아온 사람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인상 좋은 얼굴을 지녔거든요. 잘생겼다는 말, 똑똑하다는 말, 돈 많아서 좋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마음의 부자가 되는 연습을 매일 합시다. 그러려면 꼭 써야 할 게 있죠. 바로 글입니다. 글을 써보세요. 돈을 쓴 기록, 즉 가게부도 좋지만 마음을 쓴 기록, 일기는 더 좋습니다. 반성의 글, 용서의 글, 희망의 글을 매일 쓰다보면 차츰 성격이 인격으로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겨진 인상은 구겨진 인생을 만듭니다. 구겨진 인생을 펴주는 다리미의 이름은 긍정입니다. 긍정이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세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땐 런던올림픽 폐막식 노래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 제목이 참 좋습니다.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늘 인생의 밝은 면을 보아라) 인생을 바꾸고 싶나요? 먼저 인생관을 바꾸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십시오.

“행복해지기는 간단하다. 다만, 간단해지기가 어려울 뿐.”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인 의사가 쓴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옵니다. ‘인생 후반부에 할 일은 인생 전반부에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찾아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톨스토이의 말도 기억납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엔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

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라. 죽어있는 시간이 길 것이니.”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행복이고 사랑받는 일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 받으십시오.

생활기록부에 ‘온순’이란 글자가 빠지지 않던 저에게도 폭력으로 얼룩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문화와 군사문화가 동거하던 1970년대 말. 대학을 갓 졸업한 저는 모교에 국어교사로 부임했습니다.

교단에서 보니 교실은 동물원이었습니다. 순한 양도 있었지만 늑대, 기린, 사자도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내가 어떤 동물인지 간파했을 것입니다. “침묵을 강요할 순 없다. 다만 각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련하리라.”

착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내를 시험할 심산인지 꾸준히 재잘대는 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매를 들었습니다. 뽀 한 대 때리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의 매야”

현실은 종종 영화와 닮아갑니다. 빼딱한 자세로 일관했던 아이에게 일격을 가했는데 그의 입에서 불량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럴 때 밀리면 끝장이라는 건 상식. 전 거칠게 몰아쳤고 급기야 녀석은 가방을 들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연히 수업은 엉망이 됐고.

문제는 종례시간에 터졌습니다. 반장이 담임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슬며시 다시 들어와 자리에 앉은 아이는 교무실로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담임은 제가 중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은사였습니다. 별명은 메뚜기였지만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 “무릎 꿇어” 매질이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가 선생님의 몽둥이를 빼앗았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잘못..했...” 하지만 그 눈물의 성분은 반성이 아니라 반발이었음을 저는 압니다.

며칠 후 수업에서 녀석은 저의 눈을 피했습니다. 똑바로 앉았지만 마음은 빼돌어져 있었습니다. 학기말이 가까울 무렵 운동장 한쪽에서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아직도 미워?”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나왔습니다.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선생님은 눈길 한번 안 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건넨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가 받는 그것이 사랑이로구나.”

예전 ‘개그콘서트’의 ‘선생 김봉투’라는 꼭지에 말썽만 부리는 아이(홍인규)가 고

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희한한 일을 도맡아 하다가 교사(김준호)가 야단을 치면 썰쭉한 표정으로 고백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아이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다만 서로 관심을 주고받는 방법을 몰랐을 뿐.

심정적으로 지금도 저는 교사입니다. 선생님들께 죄송하지만 교실, 아니 교육을 살리려면 먼저 교사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왜 떠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가 바로 일생에서 제일 떠들고 싶은 시기라는 것이죠. 조용히 주목하는 한 부류의 아이들은 일찍부터 철든 아이거나 저처럼 겁 많은 아이일 개연성이 큼니다.

“교단 떠났다고 입 함부로 놀리는구나.” 전직교사로서 그래도 이 말만은 하고 싶습니다. 교실에서도 시청률을 올려야 합니다.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수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사회는 교사에게 인내할 시간보다는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잡무라고 불리는 것들을 과감히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그 무렵이면 교실에서 ‘사랑의 매’도 슬며시 종적을 감출 것입니다.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 1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구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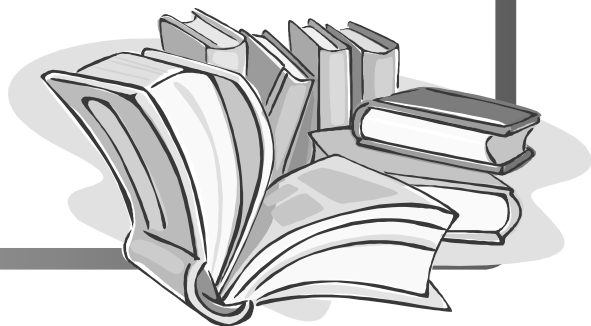
- 강월초등학교

‘감사·나눔, 배려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이동중학교

‘주도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새로운 창송인의 학교문화 만들기’

- 애월고등학교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1-1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구현 방안’

강월초등학교



학교 구성원 일반적 특성[1]

(오영재, 2006)

학생

- 대입 지향의 경쟁 속에 순응하는 문화
- 획일적, 통제 중심의 학교규칙에 저항하는 문화
- 다양한 능력관에 기초한 평등한 인간관계 지향 문화

교사

- 수업의 의례화와 도구화
- 행정업무의 형식화
-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 문화
- 환경변화에 대한 선택적 수용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령어련이

2

서울강월초등학교



학교 구성원의 일반적 특성[2] (오영재, 2006)

학부모

-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
- 학벌, 학력 위주의 교육열
- 자녀 성공을 위한 과도한 경쟁 및 불안심리
- 학교교육 질적 수준에 대한 비판의식 증가

지역사회

- 경제적인 거주지로서의 학교가치 재평가 경향
- 학교의 교육성패에 대한 지역단체로서의 요구 증가

교장

- 의례적인 수업 개선 강조
- 경험 중심의 안정 우선주의 학교경영
- 환경변화를 꺼려하는 경향



학교문화의 개선 방향 (신종국, 2009)

기존의 학교문화

- 통제대상으로서의 인간
- 인권 경시, 차별과 불공정
- 무관심 및 제한된 관심
- 이질성에 대한 배타, 따돌림
- 낮은 기대, 멸시와 낙인
- 고정관념, 편견, 무지와 몰이해
- 일방적 권위
- 권위적, 방임적 리더십
- 좌절, 패배감, 냉소주의
- 의미부여 소홀
- 수동적 과업수행



추구하는 학교문화

- 성장주체로서의 인간
- 인권 중시, 공정유지
- 관심 및 배려
- 동질성에 대한 포용과 관용
- 높은 기대, 격려와 인정
- 열린 사고와 지적인 이해
- 권한 위임
- 신뢰에 의한 권위
- 동기부여, 성취감 고취 및 금지
- 의미부여 중시
- 능동적 과업 수행

교육공동체 학교문화의 지향점(1)

(신종국, 2009)



	·기본방향	·실현 방안
학생	·학교 구성의 일원이라는 자긍심 고취 ·학교 역사의 주체로서 학생 인권 보장과 의사결정 동반자 대우 ·시대 변화의 희생자=> 수혜자	·두발 규정 등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학생 => empowerment 실시 ·모든 학생에게 자기 및 상대방 존중의 체험학습 기회 부여
학부모	·학교 구성의 일원이라는 자긍심 고취 ·학교 의사 결정의 동반자로서 대우	·학교 운동회 계획 단계부터 동참 ·지역민과 직장 아버지를 위한 담임과의 야간 학교 모임 개최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령어련이

5

서울강령초등학교

교육공동체 학교문화의 지향점(2)

(신종국, 2009)



	·기본방향	·실현 방안
교직원	·변화의 장애요인 인식과 변화 가능성 찾기 ·적극적인 자기연찬 및 자기 평가 ·변화선도의 개방적, 진취적, 긍정적 마인드 함양	·상대방 입장 및 서로의 고충 이해하기(교장/교감/교사)
학교장	·응집력있는 학교문화 형성 ·권한이양, 솔선수범, 적극적인 의견수렴,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운영	·학교의 역사, 전통, 일화와 연계, 학교의 비전, 교화·교목 가꾸기 =>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존중 및 공유 확산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령어련이

6

서울강령초등학교



학교문화개선을 위한 연구주제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구현 방안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령어린이

7

서울강열초등학교



➤ 학생 · 학부모 · 교사는 정말 행복한가?

[사회]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3년 05월 10일(金)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행복하지 않은 게 우리교육 현실”

“아이들 꿈-끼 살리는 교육 돼야”



서남소(61) 교육부 장관은 서남소를 '선진자'라고 불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진짜 교육'을 실현

하기 위한 '립 서비스'는 아닐까. 이어지는 서 장관의
마인드, 수석위원, 그대를 드는 기자의 이그니션을 지그시

억지로 하는 공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 수단이
되는 공부에서 벗어나 즐겁게 배우고 잠재력과 희망
을 키워 주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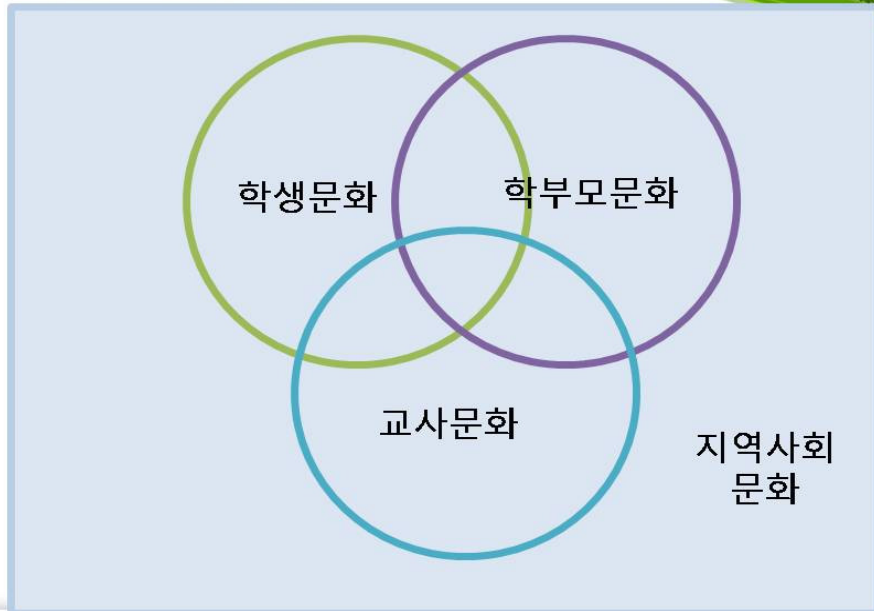
입니다. 특히 5월이 되면 선생님들이 생각합니다.”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령어린이

8

서울강열초등학교

행복한 학교문화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얼어린이

9

서울강열초등학교

강월의 학교문화 개선방향



	기존 문화	개선 방향
학생	▪선생님이 지시하는 데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문화	▪스스로 결정하고 서로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학부모	▪내 자녀만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문화	▪내 자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모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문화
교사	▪수업에 자신감이 없고, 수업을 의례화, 도구화 하는 문화	▪학생들을 믿고 열심히 가르치는 문화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얼어린이

10

서울강열초등학교



행복한 학교문화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소외됨 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서로가 격려하고 지원하여 행복함을 공유하는 학교 문화



운영과제 설정

- 운영과제1
 - 모두가 참여하는 배려와 나눔의 학교문화 조성
- 운영과제2
 - 모두가 공감하는 자치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 운영과제3
 -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연구과제1

모두가 참여하는 배려와 나눔의 학교문화



구성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배려문화	학생	•함께 놀이해요 •친구 사랑해요 •스스로 봉사해요 •친구를 도와줄래요	•또래 놀이 문화 •진솔한 교우 관계, 친구사랑행사 •스스로 계획 · 실천, 자율봉사 •또래 친구 상담해 주기
	학부모	•자녀와 대화해요.	•주경아독프로젝트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달님별님축제 •아버지와 친해지는 지양산 산책
	교사	•내 자녀처럼 들봐요.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교사가 직접 -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 연계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얼어린이

13

서울강열초등학교

연구과제1

모두가 참여하는 배려와 나눔의 학교문화



구성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나눔문화	학생	•행복을 나눌래요 •세계와 나누어요	•행복 나눔 알뜰시장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희망학교 건립 위한 사랑의 똥 동전 모으기, 사랑의 모자 뜨기
	학부모	•오카리나를 불러요 •부모님 직업과 만나요	•오카리나를 배워 1학년 수업지원 •엄마 · 아빠가 들려주는 직업이야기
	교사	•재능을 나누어요	•국제이해교육 아침방송, 합창부, 방학 캠프, 영재, 숨꿈터 진로공부캠프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얼어린이

14

서울강열초등학교

연구과제1

모두가 참여하는 배려와 나눔의 학교문화

2) 수업 시청표

시 간	교 시	비 고
 놀이문화(1)	 놀이문화(2)	 놀이문화(3)
 놀이문화(4)	 교실 활동	 학년별 주 1회
 한학기 한생명 살리기	 주경아독 프로젝트	 사랑의 빵 동전
		 강월달님별님축제

연구과제2

모두가 공감하는 자치와 존중의 학교문화

구성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자치문화	학생 - 스스로 만들어 가요 - 함께 의논해요	- 우리는 모두 리더, 강월 어사제, 토래 법정, 행복 UCC 만들기 등 4정모, 5정모, 6정모
	학부모 - 가족헌법 만들어요 - 자율적으로 운영해요	- 오손도손 화목 헌법 만들기 - 학부모 단체 자율적 운영(아버지회)
	교사 전문가가 되어요.	교사 자율 연구 동아리, 교과연구회, 수업연구협의회, 연수활성화(111)



모두가 공감하는 자치와 존중의 학교문화

구성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존중문화	학생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해요 ▪착한 마음 바른 행동 키워 봐요	▪아름다운 인사말 나누기, 존댓말이 오가는 교실 만들기, 거친 말 버리고 고운말 채우기 ▪착한 마음, 바른 행동 선행 공책
	학부모	▪마음의 등대 세워요	▪부모님이 마음에 담고 있는 좋은 말 자녀와 공유하고 실천하기
	교사	▪역사관에 담아요 ▪교육환경 꾸며요	▪학교의 역사, 전통 등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만들어 가기 ▪학교 정원 아름답게 가꾸기



연구과제2

모두가 공감하는 자치와 존중의 학교문화



4정모



5정모



6정모



학년 티셔츠 공모



가족화목헌법 전시회



수업연구 협의

연구과제3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구성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소통문화	학생	•우리모두 즐겁요 •이야기 들어봐요	•선배들과 함께하는 입학식, 모두가 칭찬받는 졸업식, 꿈과 끼를 키우는 종합학예발표회 •함께 쓰는 학급일기, 함께 만드는 학년신문
	학부모	•학교 소식을 알아요	•학부모총회, 학부모 정기상담 •학부모대표간담회 •학교홈페이지 등 교육활동 안내
	교사	•공동체간 소통해요	•수시 학생 상담, 학급 회의 활성화 •담임과 교과교사, 학년별, 부서별 교육과정 협의

연구과제3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구성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협력문화	학생	•협력에서 학습해요 •좋은 책 함께 읽어요 •주제중심 수업 재밌어요	•협력학습, 팀프로젝트학습 •나도 읽고 친구도 읽고, 좋은 글귀 나누기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을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
	학부모	•내 아이처럼 사랑해요	•마중물 하교 맞이, 배려 대상 학생 반찬배달, 다문화학생과 함께 하는 우리문화 체험하기
	교사	•함께 성장해요	•선배교사와 함께 하는 멘토링 •학생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과제수행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열어린이

21

서울강열초등학교

연구과제3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학교문화개선 연구학교 운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배려와 나눔의 학교문화
모두가 공감하는 자치와 존중의 학교문화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령어련이

23

서울강열초등학교

감사합니다

꿈을 카우는
희망교육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서는 창의적인 강령어련이

서울강열초등학교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1-2

‘감사 · 나눔, 배려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동중학교

감사·나눔, 배려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동중학교

【운 영 개 요】

학교명	이동중학교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664번지			
교 장	김유곤		학 교	교무실	(054) 278-5348		
교 감	최봉식		안 내	홈페이지	http://www.2dong.ms.kr		
영 역	학교문화개선		지 정	경상북도교육청(교육부 요청)			
종 별	선도학교		기 간	2013. 03. 01. ~ 2014. 02. 28.			
학 급 수				학 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4	13	14	41	470	453	488	1411
주제	감사·나눔, 배려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영과제 및 실천	운영 과제		실천 내용				
	1. 감사·나눔 정신의 고양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매일 감사노트 작성 ◆ 감사 쉽터 및 공원 조성 ◆ 다양한 감사 관련 행사 실시				
	2. well-being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서순화 활동		◆ 원예 심리 치료교실 운영 ◆ 음악 심리 치료교실(작은 음악회) 운영 ◆ 학급 police 제도 운영 ◆ 'Wee클래스' 중심의 학교상담 활동 내실화 및 전문적 인성교육 실시 ◆ 학습 환경을 통한 정서순화 -누리 Art Gallery 설치 운영 ◆ 솔리오(또래도우미) 운영				
	3. 배려의 가치를 나누는 심성 교육 활동		◆ 실천 생활 예절 교육 활동: 생활예절 인증제 ◆ 덕동전통문화 체험학교 입소 캠프교실 ◆ 예절실 운영으로 다양한 예절 교육 체험 활동 및 체험 캠프 지원 ◆ 가족과 함께 하는 예절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사제 동행 학생간부 예절교육 수련활동 ◆ 학생회 주관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친구사랑 주간)				
운영의 결과 예상	1. 기본 인성 덕목의 생활화로써 언어순화와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자세가 길러질 것이다. 2.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급, 학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봉사와 협동의 민주시민 지질이 함양될 것이며, 민주 시민의 자질이 함양되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될 것이다. 3.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에 유대감과 신뢰감이 형성되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4. 학생 중심의 실천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존중 의식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신뢰받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5.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창의력과 응용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6. 학생들이 각종 교육 활동에서 동료와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개인 중심적인 사고를 깨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협동정신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 학교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의 필요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옛 청소년상담원)의 '2012년 상담경향 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뤄진 방문상담 3천500건 가운데 우울증과 불안감, 충동·분노,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상담이 25.5%(88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인관계(24.9%), 가족(14.2%), 학업·진로(11.5%), 컴퓨터와 인터넷 중독 문제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청소년 시기엔 내적갈등이 심하여 늘 자살이 가장 큰 사망원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 까지만 하더라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운수사고였다. 해가 갈수록 청소년에게 자살이라는 문제가 크게 대두 되어왔고,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자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6천5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18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2010년(4천 862건)에 비해 2천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1년도에 5천233건이 발생했음을 감안하면 매년 10% 전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는데다 급증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가슴 아픈 사실은 가정불화(34.2%)가 가장 큰 청소년 범죄의 동기이다.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은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살아간다. 아이들이 아프다. 그들을 치유해 주고 보듬어 줄 곳이 필요하다. 그곳이 학교가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동안의 우리의 교육(교육 뿐 아닌 사회전반의) 발전이 수월성과 탁월성을 지향하는 외형적인 몸집 불리기였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시름을 앓게 되었다. 그리하여 언젠가부터 'well being', 이나 'healing'이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그만큼 우리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는 학교라는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학교에서도 사회가 겪는 발전의 양상을 닮은 꼴로 진행하여 비슷한 본질의 문제를 겪어 왔다. 거기에다가 학교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은 문화의 생성 및 전파에서 다른 기성세대와는 비교하지 못할 문화생성과 전파의 속도와 다양성을 더해 간다. 예전의 학생들이 기성세대를 모방했다

면 요즘의 학생들은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 암묵적인 룰을 만들어 기성세대들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

수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많은 사회적 문제와 비극의 원인으로 바로 ‘공감’의 결여를 꼽았다.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 행하는 끔찍한 일들의 원인인 공감의 결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억지적인 행위나 구호보다 근본적인 것은 감사와 나눔 정신의 고양이다. 공감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끌어올리면 자연히 공감 능력과 자존감은 따라 올 것들이다. 그리고 감사와 나눔의 생활습관 형성으로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특히나 자존감이 쉽게 낮아질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있어 이러한 감사·나눔의 활동들은 자존감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으며 그 효과는 근원적인 문제로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내용이나 이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천이다. 윤리나 도덕을 실천 철학이라고 한다. 철학적 판단 뒤에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는 것이 실천이다. 일상생활의 대개의 경우 가치판단은 내려져 있다. 하지만 실천의 영역에서 불일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학교현장에서 절실한 것은 지식적인 앎뿐만 아니라 숨 쉬며 밥 먹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습관의 형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육현장과 학생들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를 ‘감사·나눔, 배려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로 보았다. 정서순화 및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예절 의식, 인간 존중 의식을 내면화하는 것은 함께하는 학교 문화 조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

2. 학교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의 목적

본교의 ‘감사·나눔, 배려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나눔 정신의 고양을 통하여 학생들을 일상의 행복함을 회복시켜 행복한 학교로 만든다.

나. well-being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처 받거나 움츠려 있던 마음을 회복시켜 정서를 순화시킨다.

다. 배려의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는 심성 교육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3. 학교문화 개선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가. 실태 조사

1. 대상 : 본교 1·2·3학년 학생(1460명), 교원(70명), 학부모(1023명)
2. 방법 : 설문지법
3. 설문조사 응답자 수(2013. 02. 08.)

<표 1> 설문조사 응답자 수

구 분	학 생	교 원	학 부 모
표집대상 수	1460명	70명	1023명
응답자 수	1400명	70명	821명
회수율	95.89%	100%	80.25%

나. 조사 대상별 실태분석결과

1) 학생

<표 2> 학생 실태분석 결과

대상	번호	질 문 내 용	우수하다	보통이다	노력해야 한다
			%	%	%
학생 N(1391)	1	일상생활의 만족도	13	35	52
	2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사함	17	36	47
	3	자아존중감	15	31	54
	4	자아 정체성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	19	29	52
	5	공동체 의식 여부 및 타인에 대한 배려	15	37	48
	6	생활예절에 대한 실천도	41	32	27

2) 교사

<표 3> 교원 실태분석 결과

대상	번호	질 문 내 용	매우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	%	%
교원 N(67)	1	감사·나눔 및 배려심의 내면화 교육	35	35	30
	2	공동체의식 강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41	38	21
	3	공동체의식 강화 교육 현황에 대한 인 식	우수하다	보통이다	노력해야 한다
			28	38	34
	4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견해	41	30	29

3) 학부모

<표 4> 학부모 실태분석 결과

대상	번호	질 문 내 용	매우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	%	%
학부모 N(1023)	1	감사·나눔에 대한 내면화 교육	28	33	39
	2	공동체의식 강화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	33	48
	3	가정에서의 정서 교육	우수하다	보통이다	노력해야 한다
			40	33	27
	4	자녀의 공동체의식 평가	42	34	24

다. 결과 분석내용

<표 5> 결과분석 내용

영 역	분 석 내 용
학 생	·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다소 낮음. · 생활 속에서 감사함 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지 못함. ·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에 가기를 싫어함. · 인사 예절은 비교적 바르나 공중도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개인주의에 길들여져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많음. · 타인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는 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낮았고, 타인에 대한 예의 준수 비율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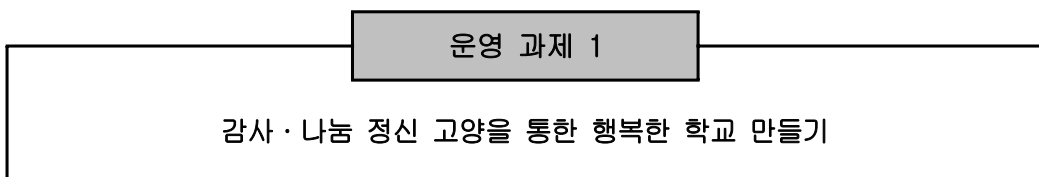
영역	분석내용
교사	• 감사·나눔 등 긍정적인 감성의 내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동체의식강화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공동체의식강화교육에 대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을 필요로 함. • 이기적이고 무례한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함.
학부모	• 감사·나눔 등 긍정적인 태도 확립의 필요성을 느낌. • 공동체의식강화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 가정에서의 정서 교육이 나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 기본생활습관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자녀의 공동체 의식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라. 시사점

- 1) 일상생활 전반에서 감사·나눔 정신을 고양하여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 2) 학생들의 마음을 healing 할 수 있는 well being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학생 특성에 맞는 심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해야 한다.
- 3)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동체의식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편입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4. 운영 과제의 선정

운영의 필요성과 목적, 문헌 연구 및 선행 연구, 실태 분석을 토대로 ‘감사·나눔 배려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과제를 설정하였다.



- ◆ 매일 감사노트 작성
- ◆ 감사릴레이 운영
- ◆ Love day 지정 운영

운영 과제 2

well-being교실 운영을 통한 정서순화프로그램

- ◆ 원예 심리 치료교실 운영
- ◆ 음악 심리 치료교실 운영
- ◆ 학급 police 제도 운영
- ◆ ‘Wee클래스’중심의 학교상담 활동 내실화 및 전문적 인성교육 실시
-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소시오 드라마 수업 적용
- ◆ 학습 환경을 통한 정서 순화를 위한 누리 Art Gallery 설치 운영
- ◆ 솔리오(또래도우미)의 운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문화 정착

운영 과제 3

배려의 가치를 나누는 심성교육활동

- ◆ 실천 생활 예절 교육 활동: 생활예절 인증제
- ◆ 덕동전통문화 체험학교 입소 캠프교실
- ◆ 예절실 운영으로 다양한 예절 교육 체험 활동 및 체험 캠프 지원
- ◆ 가족과 함께 하는 예절 교육 프로그램 실시
- ◆ 사제 동행 학생간부 예절교육 수련활동
- ◆ 학생회 주관 인성교육 실천 주간(친구 사랑주간) 운영

II. 운영의 실제 계획

1. 운영 과제 1의 실행 계획

운영 과제 1

감사·나눔 정신 고양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가. 감사·나눔 정신의 내면화를 위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나. 감사 쉼터 및 공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다. 실천적인 감사교육을 통하여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RCY 등 봉사동아리를 상시 운영하여 감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킨다.
- 라. 학교 축제 등 다양한 활동 시 바자회를 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등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봉사와 나눔의 생활 태도를 익히게 한다.

2. 운영 과제 2의 실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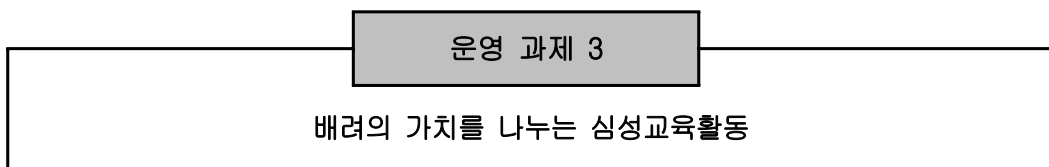
운영 과제 2

well-being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서순화프로그램

- 가. 학교 화단을 이용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원예활동과 원예 관찰을 하며 자신의 심성을 순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나. 일상 학교 생활속에서 학생들의 연주 및 음악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연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생활에서 음악을 제공하거나 수용하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음악회’를 매주 열어 음악을 이용한 정서순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다. 학급 police를 운영하여 학급내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학생들이 책임을 부여받고 사전에 예방 및 대응할 수 있으며 학생들끼리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라. ‘Wee Class’를 중심으로 학교 상담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여 이를 통해 전문적인 인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마. 학교에 넓은 벽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꾸미는 갤러리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딱딱한 시멘트벽이 아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준다.
- 바. 솔리오(또래도우미)의 운영으로 학생들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협동적인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친구들에게 긍정적 영향(모범을 통한 인성 교육)을 줄 수 있는 자율적 인성 교육 활동을 장려한다.

3. 운영 과제 3의 실행 계획



- 가.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사용하게 될 예절들을 위주로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인증해주는 생활예절 인증제를 실시한다.
- 나. 생활예절 인증제를 수료한 학년을 대상으로 일정을 짜서 각반별로 전통문화 체험 캠프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내면화한다.
- 다. 예절을 위한 전용실을 확보하여 다양한 예절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 라. 학기뿐만 아니라 및 방학 중 다양한 예절 교육 활동 및 체험 캠프를 지원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예절캠프를 가서 사제간의 예의와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마. 학생회 주관 인성교육 실천주간(친구 사랑주간) 운영
 - 1) 일시 및 대상 :연중 2회실시 / 전교생

2) 운영 내용 : 폭력예방 집중 홍보활동(3월,9월~) 및 학급 특색활동

Ⅲ. 기대 효과

‘감사·나눔, 배려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감사·나눔 정신의 고양으로 인하여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를 되돌아 보며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며, 나아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감사와 나눔, 배려의 문화 형성으로 경쟁과 결과 위주의 풍토를 지양하게 되어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정서순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에서 놓치는 학생이 발생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이 학생을 돕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 되며, 학생 중심의 실천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인간 존중 의식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신뢰받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다섯째, 실천적인 예절 교육 및 체험 활동으로 인하여 귀로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여 보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이룰 것이다.

여섯째, 기본 인성 덕목을 생활화함으로써 언어 순화와 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학생의 참여 활성화 및 학부모의 관심을 증진시켜 바람직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교문화 개선 선도학교

포항이동중학교



감사 · 나눔 · 배려의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 문화 개선 선도학교
포항이동중학교

감사 나눔 정신의 고양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매일 감사노트 작성
- 감사 공원 조성
- 감사관련 행사 진행

감사 UCC 공모
감사표어 공모
감사 엽서 쓰기

Well-being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서순화 활동

- 원예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
- 음악을 통한 정서순화
- 'Wee클래스'중심의 학교상담 내실화 및 전문적
인성교육 실시
- 학습환경을 통한 정서 순화
-누리 Art Gallery 설치 운영
- 솔리오(또래도우미) 운영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연속성** 있는 노력

2011 학년도 학교문화 선도학교

작은 음악회
생활예절 인증제



feedback

2012 학년도 학교문화 선도학교

누리 art gallery

feedback

2013 학년도 학교문화 개선 선도학교

감사 운동 전개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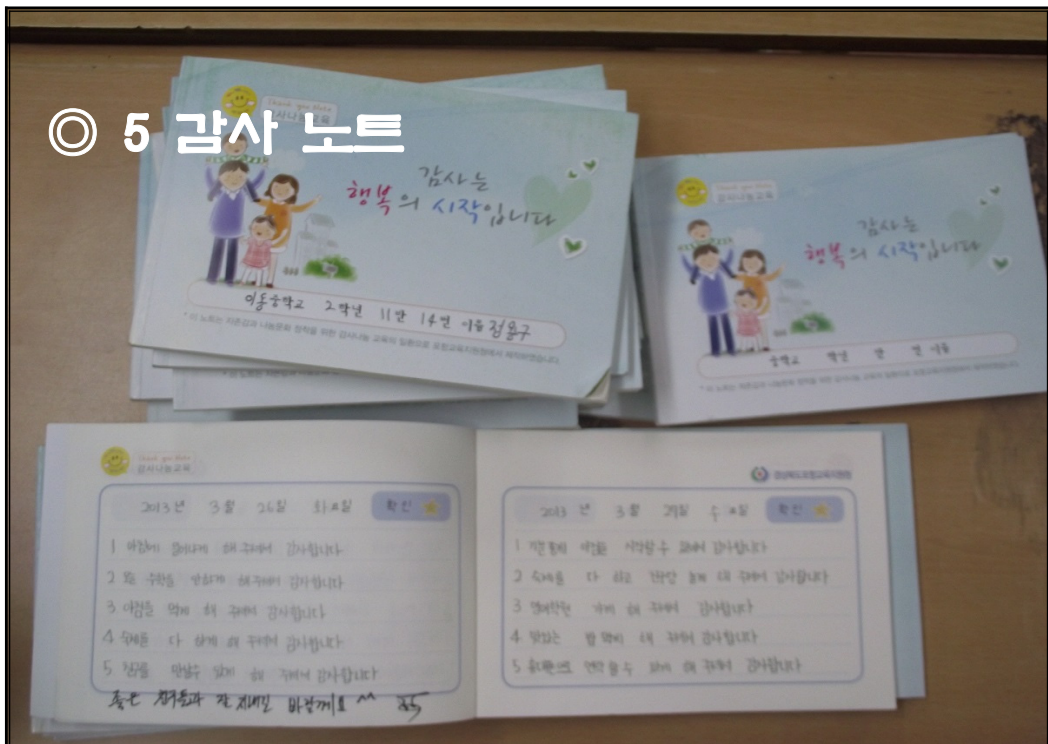
· 운영과제 1 감사 나눔 정신의 고양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매일 5감사 노트 적기



◎ 5 감사 노트



감사 공원 조성



이동 감사! 나눔! 실천! 자연 쉼터

이곳은 2013년 포항시 감사(感謝) 인성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되어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지정된 장소입니다.

감사란 사랑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

감사(Appreciation: 옴미)는 자기 자신의 진가를 알면서 하는 자기 존중(Self-Appreciation)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라도 끌어들이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느낌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모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초점"과 여러분의 "주의"가 어떤 것에 집중되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 창조의 법칙입니다.



- 코스안내 -

- | | |
|---------------|----------------|
| ① 감사 나눔 쉼터 | ⑤ 파스칼의 글 |
| ② 존자월의 글 | ⑥ 이어령의 글 |
| ③ 아더 핑크의 글 | ⑦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글 |
| ④ 에이미 반데빌트의 글 | ⑧ 세면대 |

쉼터지정일: 2013년 4월

포항이동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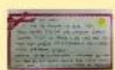
감사 관련 행사들

감사표어 공모전

감사 엽서 쓰기



감사 포스터 수상작





감사 UCC공모전

- 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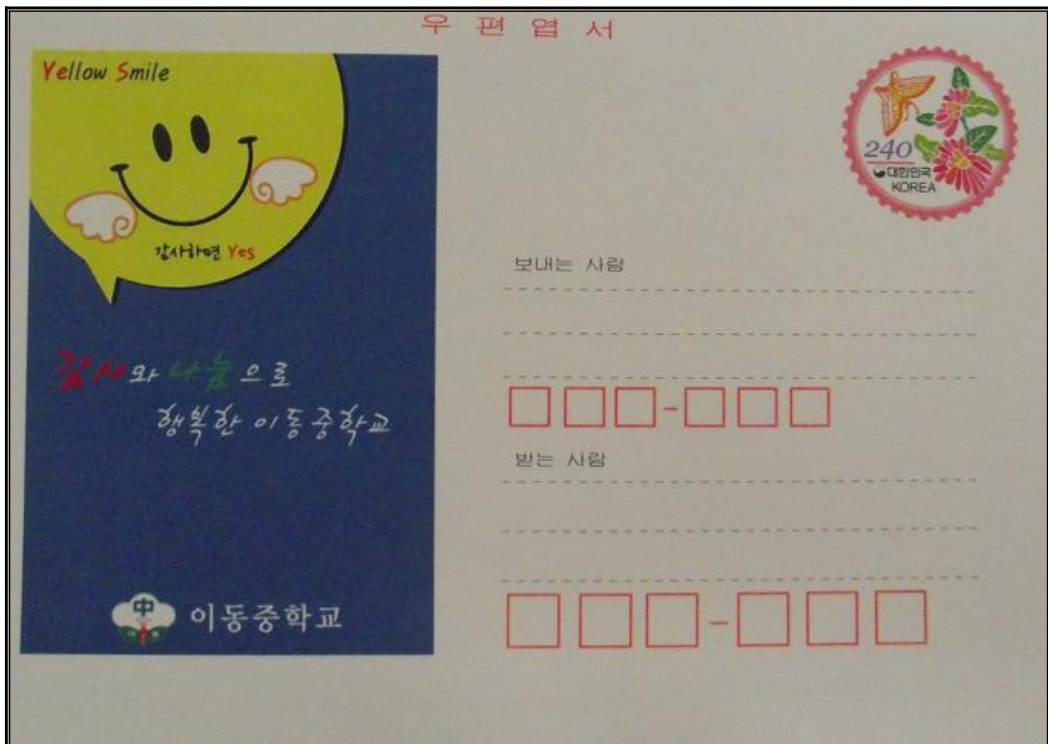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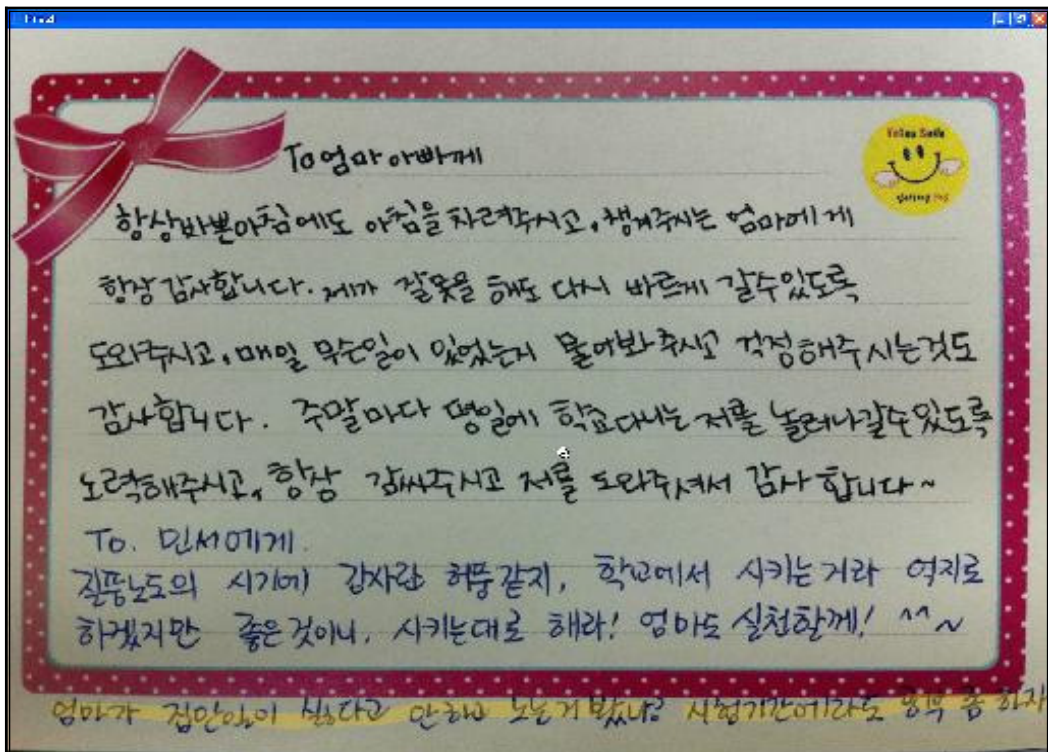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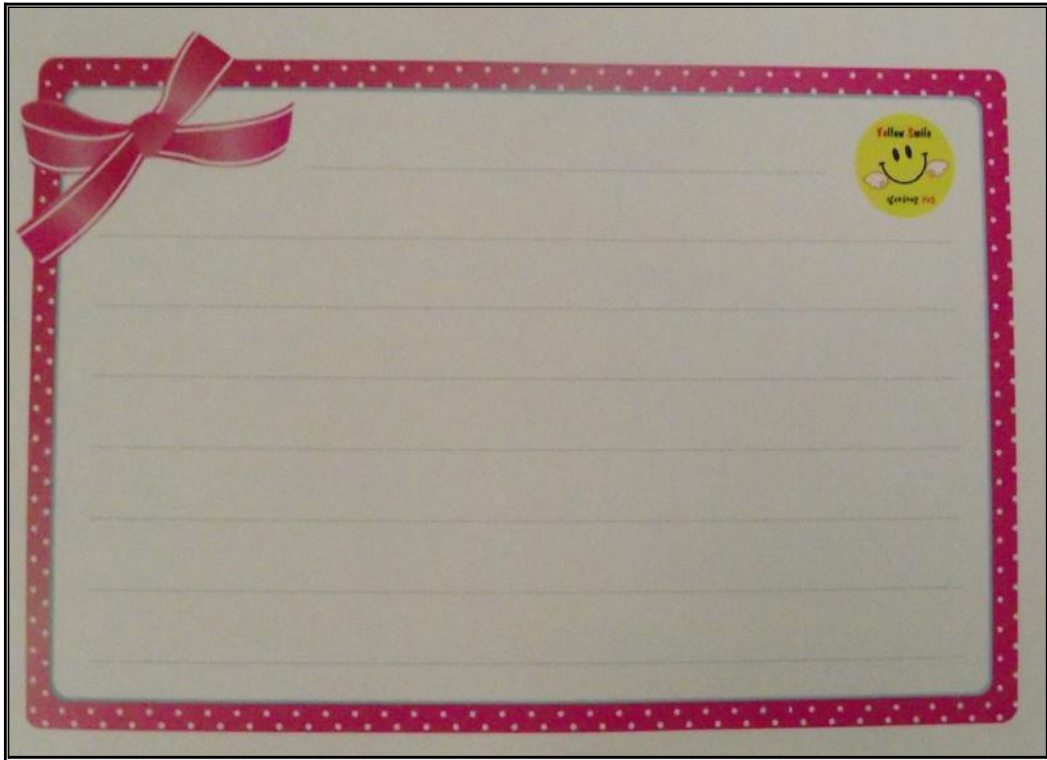
감사 표어 포스터 당선작 : 1학년 김도우

감사란?	고마워요 하하 호호 우리 서로 행복해요
나눔이란?	나누어요 착한 마음 나누면서 사랑해요
실천이란?	작심삼일 싫어 싫어 작심평생 좋아 좋아
감사! 나눔! 실천! 이란?	중요 중요 세가지들 기억해요 착한 마음

감사 표어 포스터 당선작 : 2학년 김민정

감사란?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나눔이란?	행복은 곱하고 슬픔은 나누는 것
실천이란?	말로만 하는 실천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실천
감사! 나눔! 실천! 이란?	Thank you Divide Promise





• 운영과제2

다양한 **well being** 프로그램



정서순화



Fleur(원예동아리 운영)



감사 나눔 교육 실시



누리 art gallery



작은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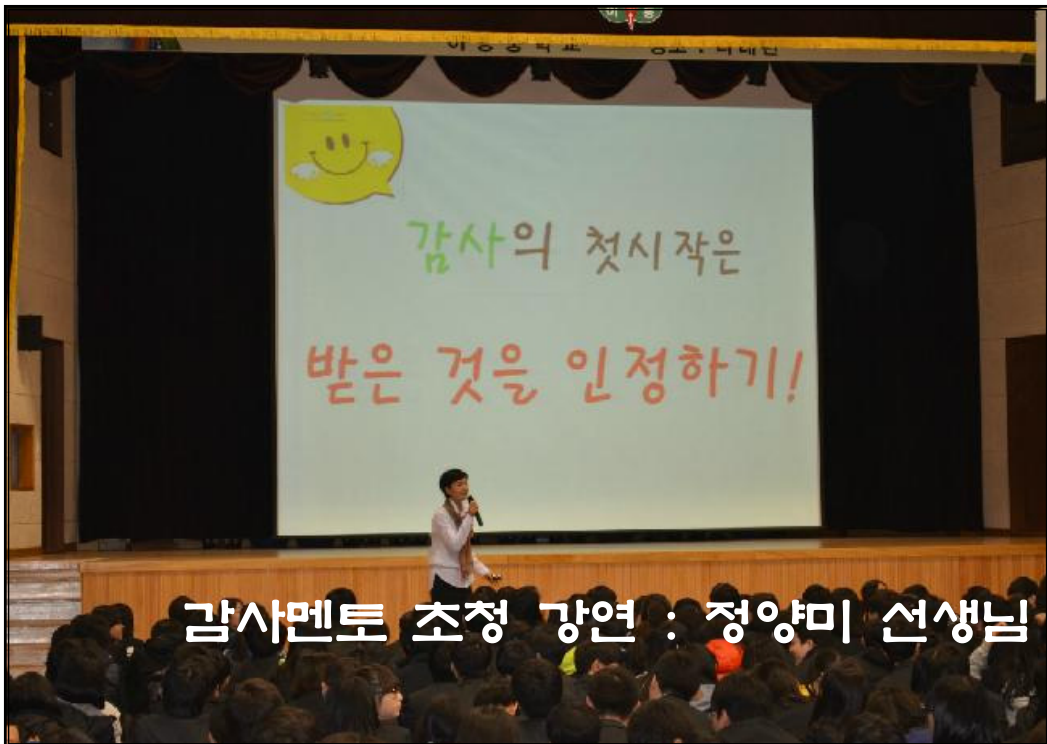


솔리언 토레 상담 프로그램





원예동아리 : 지도교사 김양숙 선생님



감사멘토 초청 강연 : 정양미 선생님





토레상담교육 : 지도교사 김민채 선생님

• 운영과제 3 배려의 가치를 나누는 심성 교육 활동



생활예절 인증제 (예절실 운영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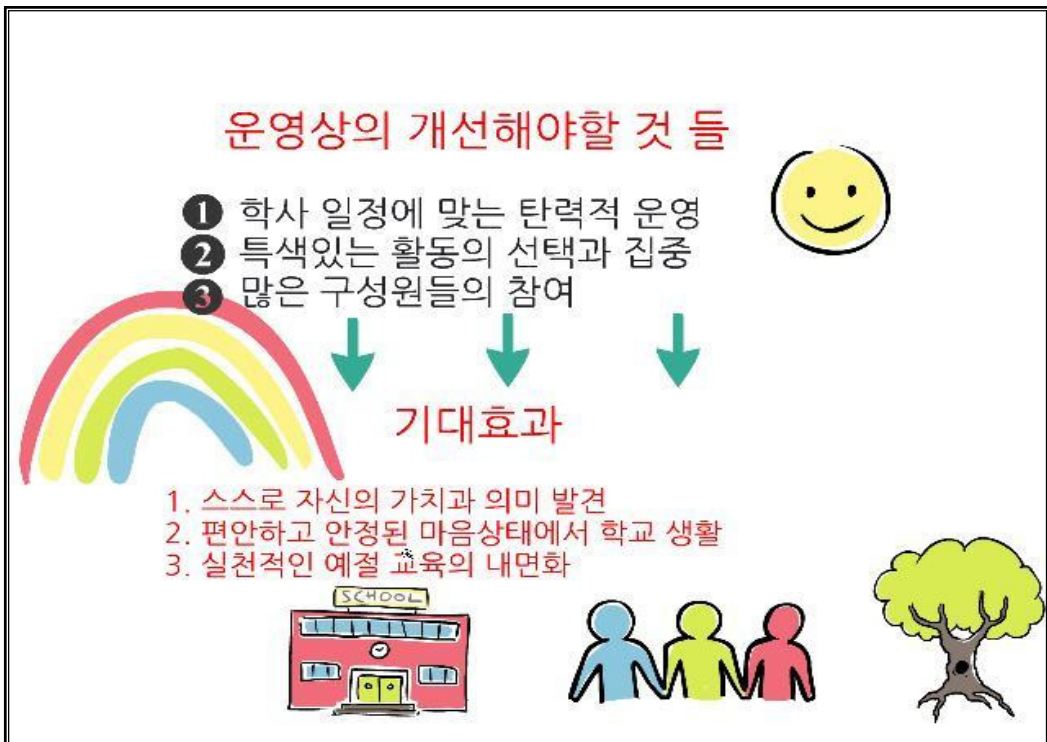
친구사랑 주간 운영



덕동전통문화 체험학교 (사제 동행 학생 간부 수련회)

아빠와 함께 떠나는 힐링캠프(2학기 예정)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1-3

‘주도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새로운 창송인의 학교문화 만들기’

애월고등학교

주도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새로운 창송인의 학교문화 만들기

애월고등학교

I. 사업 추진 배경

1. 사업의 필요성

- 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학교문화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화와 기성세대 간의 문화지체로 의사소통의 괴리감이 커지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인터넷 신조어, 의미도 모른 채 거침없이 쏟아내는 심한 욕설들, 외계 언어로 느껴지는 줄임말 등 디지털 문화의 중심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거친 언어 사용은 심성을 황폐화시키고 사제 간, 교우 간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 다. 학생들의 부정적인 품행은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쌍방향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라. 학교문화의 패러다임이 학생들은 자율성과 창의성, 교사는 학생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자세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책임 확대로 전환되고 있다.
- 마. 학교 행사 및 사업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여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자치능력을 강화하고 신장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 바. 학생들의 인권 존중과 차별이 전면 금지된 교육현장에서 지식만을 전수하는 교과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하고 즐겁고 행복한 사회분위기 형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사업 목적

- 가.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즐겁게 참여하며, 기본 질서를 지키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 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행사를 통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한다. 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책임짐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행사의 중심이 되어, 올바르게 건전한 학교 행사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한다.
- 다. 학생은 신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고(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는 바람직하게 변해가는 자녀를 보고 학교를 신뢰하며(보내고 싶은 학교), 교사는 제자를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며(머물고 싶은 학교),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학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의 목적이 있다.

3. 학교 실태 및 여건 분석

가. 학교소개

- 1) 본교는 1953년 4월 25일에 애월상업고등학교(6학급)로 개교를 함.
- 2) 21세기 창의·인성의 사회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나눌 수 있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해야 위하여 2007년 애월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2008년 12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읍소재 특성화고에서 일반계고로 전환됨.
- 3) 현재 18개 학급의 51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을 키우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함.
- 4) 연구학교, 시범학교 운영 상황 및 실적
 - ◇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최소화 정책에 따른 교과교실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모다들영 학력 향상’ 최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3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함.

◇ 2013년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 지정되어,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하는데 최대는 다하고 있음.

나. 학생현황

- 1) 본교는 제주도 특성상 비평준화 지역의 읍 단위 일반계고등학교로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주변의 학교에 비해서 매우 낮음. 입학생의 경우 기초·기본 학력이 최하 수준으로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을 평균 83.5%이고,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을 90% 이하가 전체 42%에 해당함. 중학교 때부터 낮은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 본교 재학생 중 51.7%가 결손 및 위기 가정인 학생임.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제적인 배경이 좋지 못하여,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개인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실정임.
- 3) 또한 학부모들도 어려운 가정경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학교행사에 참여율도 낮은 상태임.

II. 사업 추진 과제

영역	사업 추진 과제	시기	비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하기	창송 Time(전체조회)	월1회	진행 중
	‘우리 선생님’(스승 존경 주간 행사)	5월	실시
	창송인의 날(교내체육대회 및 스포츠클럽대회)	5월	실시
		9월	예정
	소통과 나눔의 시간	매월	진행 중
	추억과 꿈을 담은 시간(졸업식)	14년 2월	예정

영역	사업 추진 과제	시기	비고
힘내고 같이 가는 프로그램 참여로 분위기 일신	‘빛과 소금(매점)’ 운영	7월	진행 중
	창송 클린 봉사대 운영	7월	진행 중
	기획 프로젝트 - 우리도 할 수 있다	월1회	진행 중
	아버지,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함께하는 등굣길 자녀 맞이	매주 월요일	진행 중
	동문들과의 만남의 시간	12월	예정

Ⅲ. 사업성과

1.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하기

가. 창송 Time(전체 조회)

(1)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 인성 함양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 만들기
- ◇ 학교 교직원이 함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 ◇ 다양한 전체 조회 활동을 통해 선·후배간의 화합 도모
- ◇ 민주 시민으로써 기본적인 인성을 함양하기

(2) 운영 기본 방침

- ◇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처음부터 종료 시까지 진행한다.
- ◇ 매월 매회마다 재능기부를 받아 실시한다.
- ◇ 오늘의 “창송인에게 고함” 훈화 학생을 매회 뽑아 발표토록 한다.
- ◇ 전 학생 중에 숨은 끼를 찾아서 매회마다 새로운 학생을 뽑아 발표토록 한다.

(3) 추진 내용

- ◇ 재능기부(학생자치회에서 섭외)
- ◇ 애국가 제창(학생회 지휘)
- ◇ 창송인의 다짐(학생회 낭독)
- ◇ 오늘의 훈화 발표 - “창송인의 고함”

◇ 시상

◇ 학교장 격려

◇ 이달의 끼 발표 - 매회 마다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받아 발표토록 함.

일 시	내 용	시	비고
4월 26일 1교시	음악연주(재능기부) - 현악 4중주 연주가 : 박성규 교수(유네스코 앙상블의 감독 겸 리더)와 연주곡 : 캐리비안의 해적 외 1곡 학생 바이올린 체험 애국가제창(학생자치회 남부회장 오지우 지휘) 창송인의 다짐 시간(학생자치회 여부회장 김연수) 1. 우리는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킵니다. 2. 우리는 고운 말을 씁니다. 3. 우리는 주변을 청결히 합니다. 4. 우리는 인사를 잘 합니다. 창송인에게 고함(학생자치회장 김민호) 내용 : 일반계로 고등학교로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에 맞추어 우리 학생들도 노력하자 시상 이달의 끼 발표 내용 : 댄스 공연(리믹스 음악 외 1곡) 발표자 : 강지현(3-3), 강은지(2-1)서보마 김수잔 김민지(2-3)	15' 2' 2' 5' 7' 7'	재능기부
5월 27일 1교시	음악연주(재능기부) - 색소폰 연주 연주가 : 지기택선생님(MBC, JIBS 실용 음악장) 연주곡 : 임재범의 너를 위해 외 1곡 애국가제창(학생자치회 남부회장 오지우 지휘) 창송인의 다짐 시간(학생자치회 회장 김민호) 학생 대표 연설(학생자치회 남부회장 오지우) 내용 : 학교생활에 집중도를 높이자! 시상 학교장 격려의 말씀 내용 : 학교 행사 참여에 적극성을 높여 동참하자 이달의 끼 발표 내용 : 노래 발표자 : 박재연(3-3)	10' 7' 2' 5' 7' 7' 4'	재능기부

일 시	내 용	시	비고
6월 24일 1교시	음악연주(재능기부) - 현악 4중주 연주가 :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과 각 파트 수석 연주곡 : 모차르트의 아이네클라이네의 2곡	10'	재능기부
	애국가제창(학생자치회 남부회장 오지우 지휘)	2'	
	창송인의 다짐 시간(학생자치회 동아리 부장 이승한)	5'	
	학생 대표 발표(학생자치회 여부회장 김연수) 내용 :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은 학생 즉, 우리 학생 들 몫	8'	
	시상 학교장 격려의 말씀 내용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위와 관 련한	10'	
	시 낭독.	5'	
	이달의 끼 발표(컴퓨터 프로그램 영상 편집 상영) 내용 : 1학기 동안 학급 학생들과 추억(사진 및 동영상)을 편집 상영 발표자 : 양원석(2-6)		

(4) 관련 사진 자료

4월 26일 전체 조회



<연주회>



<학생 체험>



<창송인의 다짐>



<학생 연설1>



<학생 연설2>



<끼 발표-댄스>

5월 27일 전체 조회



<색소폰 연주>



<학생연설>



<끼 발표-노래>

6월 24일 전체 조회



<현악 4중주>



<애국가 지휘>



<창송인의 다짐>



<학생 연설>



<학교장 훈화>



<끼 발표-추억영상>

(5) 운영 성과

- ◇ 교사 중심의 전달 및 훈화식의 전체 조회 탈피
- ◇ 마음을 다스리고 음악을 통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간 마련
- ◇ 연주회 관람 기회 제공
- ◇ 학생자치능력 함양 및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
- ◇ 학생들의 숨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 학생 발표 기회 제공(재학생들에게 칭찬하고 싶은 것과 당부하고 싶은 것 등)
- ◇ 참여하는 학생 및 지켜보는 학생들이 전체조회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짐

- ◇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자긍심을 고취
- ◇ 빔 프로젝트, 비디오카메라, 멀티비전 및 스크린 등으로 세련된 준비 및 진행을 하는 등 점차 개선 되어 질 것으로 판단
- ◇ 학생들의 끼 발산 코너 기획 부분의 한계점 및 창의성이 부족
(댄스 및 노래 외의 다양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여야 하나 관람하는 학생들이 흥미 위주의 장기 외에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 추후 위와 같은 내용을 개선한다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

나. 우리 선생님(스승 존경 주간 행사)

(1)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를 회복
- ◇ 학생과 교사 간의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조성

(2) 운영 기본 방침

- ◇ 일주일동안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스승존경주간”을 선포하여 매일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스승의 날에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현수막을 정문에 건다.
- ◇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편지를 읽는다.
- ◇ 학생자치회가 마련한 마음의 선물을 전 교사에게 달아드린다.
- ◇ 각 반에서 선생님에게 감사 문자(SNS) 및 안부편지 쓴다.

(3) 추진 내용

일시	내 용	성 과	비고
5.13 (월)	등교 시 출근길 스승 맞이(07:00~08:00) : 출근 시 학교 정문에서 감사의 글과 함께 선생님들을 맞이하기	감사의 글 18개 제작	
5.14 (화)	틈새시간을 이용한 구두 닦아드리기 : 학생자치회 임원들 주축으로 선생님들의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드리기	구두 15켤레 닦이 운동화 10켤레 닦이	
5.15 (수)	Hug Day :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교생이 감사의 큰절과 Hug 행사		
5.16 (목)	사제동행 체육대회 :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은 파트너가 되어 경기에 참여하기	피구, 계주 등 전 종목 선생님 참여	
5.17 (금)	감사 문자 발송 : 선생님들께 감사의 문자(SNS)를 발송하기		

(4) 관련 사진 자료

5월 13일 - 출근 길 스승 맞이



<출근길 정문>



<스승의 날 문구>



<스승의 날 학급 문구>



<기본 좋은 출근길>



<출근길 맞이 중인 학부모 및 학생들>



<담임과 학생 1>



<담임과 학생 2>



<스승의 날 감사 현수막>

5월 14일 - 구두 닦아드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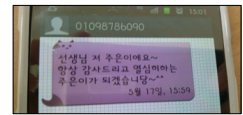
<구두닦이1>



<구두닦이2>



<구두닦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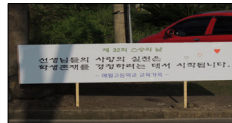


<구두닦이4>

5월 15일 - Hug Day



<감사의 큰절 1>



<감사의 큰절 2>



<Hug 1>



<Hug 2>

5월 16일 - 사제동행 경기



<계주 경기 장면>



<피구 경기 장면>



<감사의 문자 1>



<감사의 문자 2>

5월 17일 - 감사 문자 발송

(5) 운영 성과

- ◇ 학생들이 좀 더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조성하여 교사에 대한 존경심 회복됨
- ◇ “스승 존경 주간 행사”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다. 창송인의 날 운영(교내체육대회, 스포츠클럽대회)

(1)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 장시간 실내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신체 단련의 필요성
- ◇ 학생 자치회 중심으로 체육 대회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 참여 높이기
- ◇ 스포츠를 통해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 간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 ◇ 건강한 체력을 통해서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고취하기

(2) 운영 기본 방침

- ◇ 학생 자치회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 의견 수렴을 통해 종목 선택, 운영, 심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협의회를 갖는다.
- ◇ 협의된 사항을 체육교사 및 교장선생님과 의논하여 확정한다.
- ◇ 확정된 사항을 각 반 실장을 통하여 전달한다.

(3) 추진 경과 및 내용

일 자	내 용	비 고
4.22(월) ~30(화)	학생자치회 체육부장을 중심으로 전교생의 의견을 학급 대표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정리	
5.6(월)	학생자치회 협의회를 통해 종목 및 행사 아이디어 총 정리	
5.7(화)	학급 대표를 통해 전교생에게 행사 개요 전달	
5.15(수) ~16(목)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개회 및 경기 진행	
5.15(수) ~16(목)	총동창회 및 학부모 및 선생님들의 다양한 경품 제공 및 추천	별첨
5.27(월)	설문조사 실시	
5.29(수)	설문조사 통계	

(4) 관련 사진 자료

5월 6일 -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학생자치회 협의회



<협의회 장면 1>



<협의회 장면 2>

5월 15일 -체육대회 진행



<개회식-학생회장인사>



<선수대표 선서>

체육대회 장면(번외 경기 및 본 경기)



<학부모 경품 추첨>



<학부모 학생 교사
경기장면>



<체육대회 장면-씨름>



<바리스타 체험>

(5) 운영 성과(별첨 설문지 참조)

- ◇ 학생회 중심으로 전교생들의 의견을 학급 대표를 통해서 수렴하여 종목을 선정한 결과, **보통 이상의 만족을 보인 학생이 96%이상**이라는 결과 도출
- ◇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학생간의 경기로 보다 더 원만한 관계 형성
- ◇ 학부모님들과 지역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번외행사(바리스타 체험, 승마체험, 경품추첨, 노래 및 댄스 경연 등) 개최
- ◇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위한 체육대회가 아닌 학생, 학부모, 지역단체 등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마련
- ◇ 종목에 따른 규칙 및 진행요원도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경기 진행 운영에서 다소 미숙한 점 표출
- ◇ 보다 더 긴 준비시간과 체계적인 경기 운영 및 진행법을 습득하여 보다 더 나은 대회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 판단

마. 소통과 나눔의 시간

(1)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

- ◇ 학생회와 교사들의 의견의 소통의 필요성
- ◇ 학생회와 교사들의 의사소통을 통한 원활한 학교 운영의 필요성

(2) 운영 기본 방침

- ◇ 월 1회 학교장과의 대화를 월요일 자율 활동이나 수요일 담임과의 독서시간을 통해서 실시한다.
- ◇ 1학기, 2학기 분기별 1회 학생자치회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학생회의 운영과 활동 방향을 수 정한다.

(3) 추진 내용

일시	장소	참석범위	내 용	건의사항	조치사항
4.8	도 서 실	본교 대의원	- 학교의 발전 방향 설명 1) 5無(무) 운동 전개 2) 전체 조회의 학생자치회에 진행 3) 클린봉사대 및 교내 매점 운영 건 4) 애월고 관제실 운영 건 5) 체육대회 운영 건 등.	교내 매점 운영에 대해 건의	추후 정부회장과 교장선생님이 대화 후 결정 (7.15일부터 시범 운영예정)
4.10		1년 각학급별 5명 대표	- 신입생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1) 행복한 아침을 여는 50분 참여 2)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3) 창송 10대 S-Dream 프로그램	수면 방지용 책상 배치	1단계 5개 책상 배치 후 활용도 고려하여 추후 추가 배치
4.17		2년 각학급별 5명 대표	-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 및 기본생활 습관 1) 바리스타, 조리, 제빵제과 참여 기회 확대 2) 흡연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예산 투자 확대	방충망 설치 요구	8월 중 전교실 방충망 설치
4.22		3년 각학급별 5명 대표	- 2014 대입 수시전형의 준비와 도전 1) 수시 전형 본교 2013년 실적 2) 스포츠 활동 활성화	헬스기구 활용 요청	9월부터 체육시간을 활용하여 이용

(4) 관련 사진 자료

1학기 정기대의원회의



<1학기 학교운영방향
설명 중 >



<학생 질문에 답변 중>

2학기 정기대의원회의



<2학기 학교운영방향
설명 중>



<학생 의견 경청 중>

(5) 운영 성과

- ◇ 직접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학교의 발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계기 마련
- ◇ 학교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도 학교의 변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학생들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 마련

2. 힘내고 같이 가는 프로그램 참여로 분위기 일신

가. ‘빛과 소금(매점)’ 운영

(1) 운영 목적

- ◇ 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부에 나가서 군것질을 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 ◇ 학생자치회와 학부모 운영 위원회와 함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2) 운영 일시 : 2013. 8. 12(월)~사업 종료 시까지

(2013. 7. 15(월)~7. 18(목)까지 4일간 시범 운영)

(3) 운영 장소 : 본관동 학생자치회의실

(4) 운영 대상 : 창송인 전체

(5) 운영 시간 : 매일 아침(07:35~07:55), 점심(12:20~12:40), 저녁(18:20~18:40)

총 3회 실시

(6) 운영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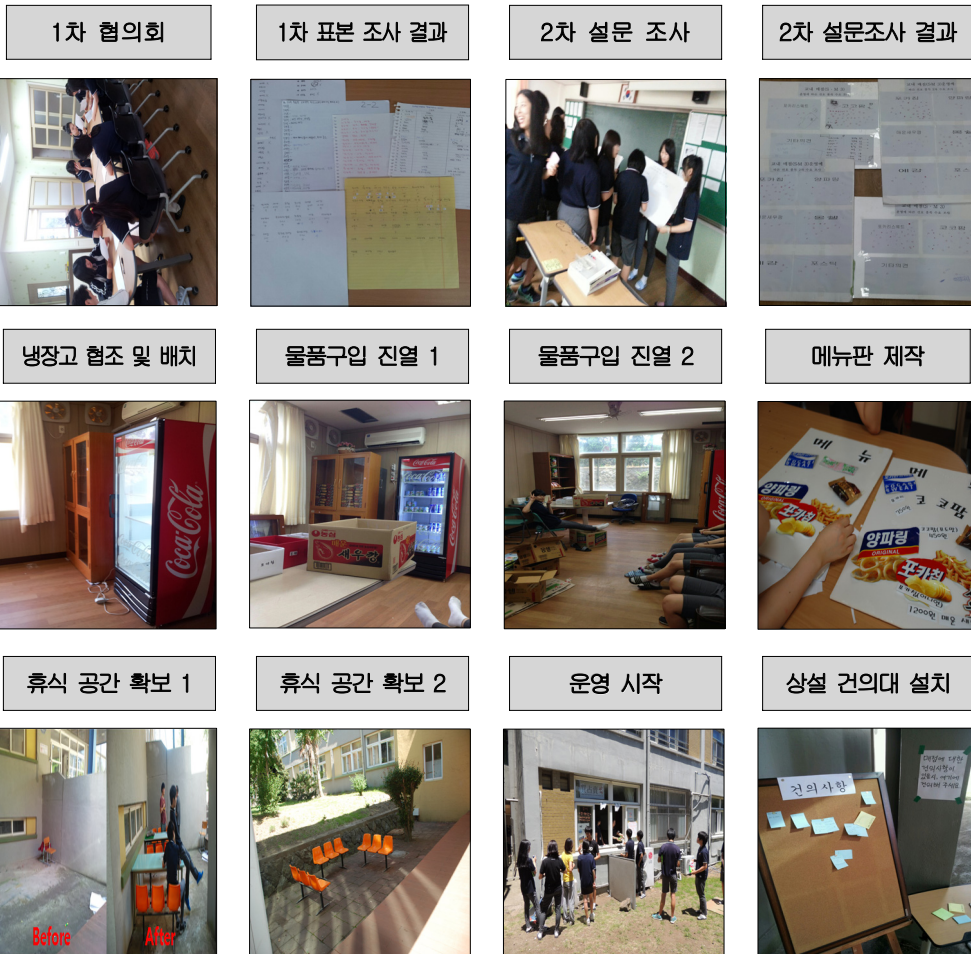
- ◇ 학생자치회에서 모집·홍보를 통해 자원한 학생들이 운영한다.
- ◇ 팀장을 정하고 그에 따라 5팀(구입·진열·판매·회계·기타)으로 편성한다.
 - 팀장 :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 구입 :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물품들 중 유통기한, 학교 내 판매금지 물품들을 제외하여 음료 4종, 과자류 6종 구입(시범 운영 시 음료 2종, 과자류 4종 구입)
 - 진열 : 판매 팀(2팀)이 판매에 용이하도록 진열
 - 판매 : 판매물품을 바로바로 회계 팀(정산시 용이)에 알리면서 물품을 판매
 - 회계 : 판매 대금과 물품의 개수를 맞추어 운영 직후 즉시 정산을 원칙으로 함
 - 기타(잡부) : 각 팀별로 결원이 생길 시 보충하고, 질서 유지 및 기타 활동

- ◇ 당일 정해진 물품 수만 판매하고 당일 판매 물품 소진 시에는 일일 운영을 마감한다.
- ◇ 납품된 원가 그대로 판매한다.
- ◇ 재학생 및 운영 학생들이 교과 수업 및 학교 행사에 늦거나 빠지지 않도록 판매 시간은 절대적으로 엄수한다.
- ◇ 판매 물품은 학생들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입한다.(추가물품 포함)
- ◇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일명 썰탈, 쓰레기처리 등) 발견 시 운영을 중단한다.
- ◇ 기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 보면서 바로 전체 팀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7) 추진 경과 및 내용

일 시	내 용	비 고
7.1(월)	매점 운영 팀 협의회 실시	
7.2(화)	판매 물품에 따른 1차 표본 조사 실시	
7.3(수)	1차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전교생 대상 2차 설문조사 실시	
7.5(금)	판매 물품에 대한 가격 조사 및 필요 물건(냉장고)협조 요청	
7.11(수)	판매 장소, 기본 물품 진열 및 정리 예정	
7.12(금)	판매 물품 구입	
7.15(월)~18(목)	시범 운영 실시	
8.6(화)~8(목)	2학기 운영 준비(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추가 물품 조사 및 정리	
8.9(금)	판매 물품 구입(1주일 단위로 구입)	
8.12(월) ~	2학기 본격적인 운영(구입-진열-판매-회계-재고파악-대금결제)을 학생들이 직접 실시	진행 중
8.14(화)	운영 팀 재편성(추가 모집)	
9.2(월)~	매점 활성화를 위해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 예정	

(8) 관련 사진 자료



(9) 운영 성과

- ◇ 재학생들이 일과 중 학교 밖을 출입하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감소함
- ◇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지역 기관의 도움으로 저렴한 가격(원가)에 물품 납품)
- ◇ 운영하는 학생들이 직접 물품 구입→판매→정산의 과정을 직영하면서 경제교육 도움
- ◇ 일과 중 운영을 통해 운영하는 학생들의 시간관리 및 봉사의식을 고취함

나. 창송 클린 봉사대 운영

(1)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 봉사대를 조직의 필요성
- ◇ 학생들의 봉사 시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자율성을 높이기
- ◇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여 애교심 고취
- ◇ 정기적인 교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 증대

(2) 운영 시간 : 아침 0교시 전, 점심시간 등 수시로

(3) 운영 장소 : 학교 및 교문 주변

(4) 운영 대상 : 1· 2학년 재학생

(5) 운영 방침

- ◇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습기간(1달)을 두고 활동한다.
- ◇ 수습기간 중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임명한다.
- ◇ 활동 후 활동 일지에 기록하고, 남녀 대표학생의 확인을 거쳐 담당선생님에게 확인 받는다.
- ◇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하여 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6) 추진 경과 및 내용

일 자	내 용	비 고
5.22(수)	클린봉사대 결성 및 협의	
6.3(월)	클린봉사대 수습 운영(1,2학년 30명 신청) 남녀 4개조씩 편성하여 1주일씩 남녀 2개조씩 봉사 시작.	
7.19(금)	수습 기간 종료(27명의 학생이 수습 기간 이수) 클린봉사대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학생들 추가 접수(6명) - 8월부터 수습기간을 두어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명할 예정.	
8.12(월)	창송클린봉사대 정식 임명(27명)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습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는 곳을 게시하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주변 환경정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7) 관련 사진 자료



(8) 운영 성과

- ◇ 수습기간을 통해 참여 학생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고취시킴
- ◇ 학교환경 정화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주인의식 함양
- ◇ 봉사활동을 통한 학생 본인의 인격 향상
- ◇ 현재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열의가 높은 관계로 이 학생들 또한 일 정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하여 봉사활동에 참여시킬 예정

다. 기획 프로젝트 - 우리도 할 수 있다

(1)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 학생회 자율성을 높여 학생 스스로 인성교육 분위기 만들기
- ◇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학교 교칙을 준수하고 홍보하는 효과의 필요성
- ◇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써 자질 함양의 필요성

(2) 운영 방침

- ◇ 4월 중으로 전체적인 방향, 목표 및 운영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 우리 학교의 5무 운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학생자치회에서 결정한다.
- ◇ 4월-12월까지 매달 1회씩 학생회가 전체 조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중점 사항을 전달한다.
- ◇ 제반 비용은 매 프로젝트별로 100,000원으로 책정한다.
- ◇ 12월에 프로젝트에 관한 평가회를 열어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3) 추진 내용

일 시	내 용	성 과	비 고
4. 8 (월)	◇ 학교사랑 사진 콘테스트 ◇ 예심을 거쳐 본선을 오른 작품들을 등교 시간에 전시하여 전교생이 등교 시 투표로 선정함.	20작품 출연 (개인 및 단체)	
5.13 (월)	◇ 스승 존경 주간 행사 ◇ 13일(월) 출근길 스승 맞이 14일(화) 구두 닦아드리기 15일(수) Hug - Day 16일(목) 사제동행 체육활동 17일(금) 감사 문자 발송		
6.18 (화)	◇ 친구야, 지각하지 말자 ◇ 6월 18일(화)~21일(금)까지 총 4일간 등교 시 출석 확인으로 지각 학생 수를 파악하여 결정함.	2-1, 3-1 4일간 총 1명 지각	(07:40 분 기준)

(4) 관련사진 자료

4월 학생회 프로젝트 - 학교사랑 사진 콘테스트 -



<등교 시 투표 장면 1>



<등교 시 투표 장면 2>



<본선 진출 사진들>



<대상 사진>

5월 학생회 프로젝트 - 스승 존경 주간 행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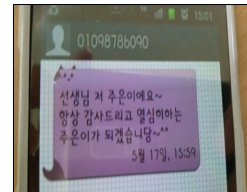
<스승 존경 주간 행사>



<출근길 스승 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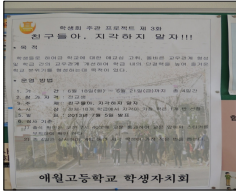


<구두닦이>



<감사 문자 발송>

6월 학생회 프로젝트
- 친구들아, 지각하지 말자!-



<프로젝트 공고문>



<등교 장면 1>



<등교 장면 2>



<등교 장면 3>

(5) 운영 성과

◇ 4월 프로젝트(학교사랑 사진콘테스트)

: 학생들의 학생사랑과 선생님과의 추억거리를 제공하는 계기 마련

◇ 5월 프로젝트(스승 존경 주간 행사)

: 스승의 날을 맞아 일주일간 요일별 다른 행사를 준비하여 스승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좀 더 넓고 깊게 생각하는 의미부여

◇ 6월 프로젝트(친구야, 지각하지 말자!)

: 인성교육실천 계획에 의하여 5무 운동 중 하나로 학생들 스스로 지각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짐

학생자치회에서 재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경험을 하는 계기 마련.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자치회가 좀 더 학생 및 선생님들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됨.

라. 아버지,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함께하는 등굣길 자녀 맞이

(1)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학생들이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보호 필요

◇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사소통의 장 마련

◇ 학부모들의 자식 사랑 실천하기

(2) 기본 운영 방침

◇ 주 1회 7시00분까지 학부모와 전교직원 및 학생회가 교문 입구에서 등교 학생들을 기다린다.

◇ 아침밥을 먹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서 나눠 준다.

◇ 힘들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와 힘을 준다.

(3) 실시 일시 : 4월 이후 매주 월요일 07:00~08:00

(4) 실시 장소 : 교문 앞

(5) 대 상 : 전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자치회

(6) 추진 내용

◇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및 읍 지역 일반계고로의 자리매김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

◇ 교직원들과 학부모님, 더 나아가 지역 단체 기관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즐겁게 한 주를 시작하는 계기 마련

일 시	내 용	비 고
4. 1 (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방문주 도의회 부의장 등 동문들이 재학생들에게 격려를 해줌. 또한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애월 파출소장 및 자율방범대, 지역 노인회 등 각 기관 단체에서도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활동 및 캠페인 첫 걸음을 격려함.	학교운영위원장 전액 지원
4.8 (월)	담임교사 및 전 교직원이 등교하는 각 학급 학생들을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 사제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조성, 교감을 형성하는 계기 마련.	
4. 15 (화)	학생자치회 간부 중심으로 이른 아침부터 등교하여 등교하는 재학생들에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 자신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함.	
4.22 (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전교직원, 학생자치회 간부 등 등교하는 재학생들에게 격려를 해줌.	
4.29 (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전교직원, 학생자치회 간부 등이 지난 4주간의 학교 관련 기사 및 기록물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변화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주체는 학생들 자신이라는 자긍심을 키워줌.	

(7) 관련 사진 자료

일자	연			
4월 1일 (월)				
	<자녀 맞이 첫날>	<자녀 맞이 중인 학부모님들 1>	<자녀 맞이 중인 학부모님들 2>	<참여해 주신 분들과>
4월 8일 (월)				
	<학생을 기다리는 선생님들>	<선생님과 포옹 1>	<선생님과 포옹 2>	<선생님과 포옹 3>
4월 15일 (월)				
	<다짐의 글>	<독려의 글 1>	<학생회 주관 이벤트 글>	<독려의 글 2>
4월 22일 (월)				
	<재학생 맞이 중인 학생회>	<자녀들을 기다리며 준비중인 부모님들 1>	<자녀들을 기다리며 준비 중인 부모님들 2>	<자녀들을 맞아주시는 부모님들>
4월 29일 (월)				
	<보도자료 준비 중인 부모님들 1>	<보도자료 준비 중인 부모님들 2>	<보도자료 관람중인 학생들 1>	<보도자료 관람중인 학생들 2>

(8) 기대효과 및 평가

- ◇ 학생들이 월요일 등교 시간에 반갑게 맞이하여 주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됨
- ◇ 교육에 참가하는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함께 동참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됨

IV. 하반기 추진과제

1. 추억과 꿈이 함께하는 시간

(1)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 방지를 위한 졸업 문화 정착
- ◇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소통과 나눔, 축제형 졸업문화 정착

(2) 운영 기본 방침

- ◇ 졸업생이 축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 재학생의 축하 공연 및 메시지
- ◇ 선 · 후배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졸업식
- ◇ 학급별 합창 경연대회

2. 동문들과의 만남의 시간

(1)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 학생들이 성공한 선배들이 모습을 보며 진로에 대한 생각할 기회 제공
- ◇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향상시킬 필요성

(2) 기본 운영 방침 및 내용

- ◇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동문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 및 기사를 올린다.
- ◇ 학교 건물 내부에 “빛나는 동문들”의 코너를 만들어서 전시한다.

◇ 연중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애교심을 고취시킨다.

◇ 건물 내부의 동문 소개 9종으로 제작하고 각 100,000씩 책정한다.

V. 추진 성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문화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주도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새로운 창송인의 학교문화 만들기’의 주제를 가지고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를 창출하고자 한 학기 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가 쉽 없이 노력해왔다. 소통과 공감의 장 속에서 억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1.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하기

가. 창송 Time(전체조회)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전달식 전체조회를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월별 캠페인 주제를 선정하여, 소통하고 결의하여 실천을 결의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 자치 능력을 함양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간부들의 지도력이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학생들 속에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학교의 기풍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창의성을 모아 나간다면 학생들 스스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다. 명석을 깔아주면 못한다는 그릇된 관념을 벗어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나. 우리 선생님(스승존경 주간 행사)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바쁜 5월에 가정과 학교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자는

학생회의 의견이 주간행사로 실천하게 되었다. 일회성 및 형식적으로 끝낼 수 있는 감사의 표현 양식을 요일별로 핵심 포인트를 설정하여 전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창송인의 날(교내 체육대회 및 스포츠클럽 대회)

기존에 체육 담당 교사가 체육대회 전 과정을 주관했었는데, 학생회를 중심으로 기획, 진행, 뒷정리 및 평가까지 체육대회와 관련된 부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진행을 하였다. 과열된 승부욕을 자제할 줄 알고 전 학생이 단결을 바탕으로 심신 단련 및 반별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 및 젊음의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과정의 하나하나가 매우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리고 교사 및 학부모의 참여로 그 내용들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

라. 소통과 나눔의 시간

형식적인 학생회 간부들과 교장과의 대화가 아니라, 학교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가짐은 물론 교장이 직접적으로 학급별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다.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 및 매점 설치 문제, 클린 봉사대 조직 및 운영, 또래 상담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의견 수렴하였다.

2. 힘내고 같이 가는 프로그램 참여로 분위기 일신

가. ‘빛과 소금(매점)’ 운영

학교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설치되었던 구내매점을 폐쇄하게 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되파는 형식의 매점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익 창출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경제관념 함양 및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라는 목적으로 학생회 간부들 중심으로 1일 3회 개점하게 된 것이다. 일과 중에 교문 밖 출입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출구 마련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및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학생회 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있어 긍정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창송 클린 봉사대 운영

상설 동아리 활동이 ‘책가방 없는 날’ 운영으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월 1회의 활동으로 제한되어, 항시 운영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교내 봉사활동을 담당하게 하였다. 일과 중 틈나는 시간을 이용하여 환경 정화 활동의 내용을 활동 기록지에 기록하고 봉사활동을 인정하게 하였는데, 참여도가 매우 높다.

다. 기획 프로젝트(우리도 할 수 있다)

학생회에서 월 중 기획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전 학생이 참여로 학교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는데, 애교심 함양을 위한 사진 콘테스트 및 지각 줄이기 운동 등 학생들 스스로 캠페인 및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교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운동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월 중 활동 주제를 스스로 설정한다는 것도 하나의 과정 속에서 자치 활동 활성화의 측면에서 긍정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라. 등굣길 자녀 맞이

학교 문화를 바꿔 나가는 첫걸음이 교사들의 마음이었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 결과 먼저 출근하여 학생들을 교문에서 맞이하자는 취지였으며, 이에 학부모들의 동참이 이루어진 하나의 감동 작품이다. 선생님들이 일과 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이 부담되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 주고 믿음과 신뢰, 그리고 소통의 단계로 나아감을 느끼면서 교사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준 사건의 단초였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교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학생들의 시끌벅적함 속에서 출발함은 교사의 책무를 되새기며 열정을 쏟아 부을 에너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VI. 향후 계획

학교문화 선도학교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학교의 명운을 걸고 변화를 해야만 학교 공동체가 즐거움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보내고 싶은 명품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희망의 싹을 틔

을 수 있다. 우리학교가 올 해 추진하는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10대 프로젝트들 대부분은 선진학교에서 진행했었거나 진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학교의 처한 사정이 각기 틀리고, 지향하는 바가 상이하지만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제주시 인근 읍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육 가족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더욱 고민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고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은 힘들지만 변화된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서 부단하게 교육가족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 1년을 마무리하고 총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졸업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수능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졸업생들이 모이기 힘들겠지만, 졸업축제 준비 위원회를 학생회 중심으로 준비해갈 것이다. 거창하지 않지만 참여도와 호응도 그리고 교육적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의 능력은 없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내재된 끼를 발휘할 수 있게 공간을 창출해 주는 것이며, 변화 발전할 수 있게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것이 출발이다. 힘든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버리지 않고, 때론 기다리면서 학생들의 희망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관련 보도 자료

[illegible]

우리선생님
(스승존경주간행사 2-1)

등곶길 자녀 맞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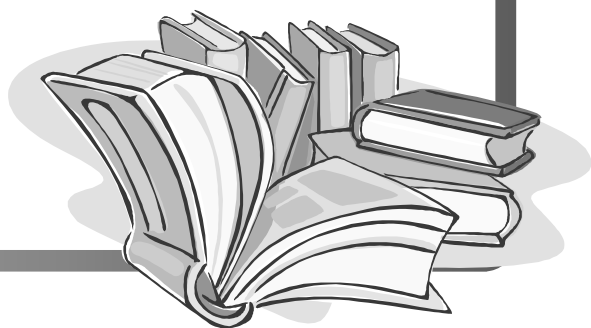
[illegible]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 2 (언어문화)

‘품격있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통·통·통(通·洞·統)’
튀는 프로젝트’

● 헤인여자중학교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2 (언어문화)

‘품격있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통·통·통(通·洞·統)’ 튜는 프로젝트’

헤인여자중학교

‘품격있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통·통·통(通·洞·統)’ 튜는 프로젝트’

헤인여자중학교

I. 학교 현황

지역명	학교명	설립별	학교장명	학급수	학생수
목포	목포헤인여자중학교	사립	김만기	17학급	총 608명

II. 통·통·통 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통·통·통(通·洞·統)’ 이란? (2가지)

1. 바른 언어습관은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지 않고 **학생, 교사, 가정**이 지속적 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학생과의 **통(通)**, 교사와의 **통(通)**, 가정과의 **통(通)**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
2.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해 학생과 교사, 가정이 함께 **소통하고(通)**, **이해하여(洞)**, **하나될 때(統)** 올바른 학교언어문화를 만든다는 뜻

1. 운영의 필요성

- 비속어, 은어, 욕설 등 청소년의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이 일상화 됨(초등학생 10명 중 6명, 중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욕설이나 공격적 언

어를 사용함-청소년언어실태언어의식전국조사(2011) 자료)

- 언어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는 학생들이 이 사회의 소통문화를 익혀 사회에 무리없이 입문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곳이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언어습관을 익히고 있다. (**학생 언어의 문제점**)
-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가 교사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는 곳이어야 하고, 교사의 언어가 학생들의 존경 속에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는 곳이어야 하지만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있음(**교사와 학생 언어의 문제점**)
- 가정에서는 학생의 바른 언어습관형성에 대한 부담을 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오히려 파괴적인 언어를 배우고 내면에 분노를 쌓아오는 경우가 많음(**가정과 학생의 문제**)
- 이에 학생과 교사, 가정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여 하나되는 학교언어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2. 운영의 방향

- 교육의 3가지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바른 학교언어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단회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으로는 습관화된 부정적, 폭력적 언어사용은 근절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바른 언어사용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
- 본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추진 결과를 반드시 문서화하고 체계화하여 향후 일반화 및 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운영의 목적

- 교육의 3가지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바른 언어습관형성

을 위해 공감하고 노력하는데 있다.

- 바른 언어습관 개선을 위해 학생 스스로 절제하고 동료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을 활성화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다.
- 교사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이를 적극 활용 및 연구하며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단원을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의 지속적인 언어사용을 모니터링하여 바른 언어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Ⅲ. 운영을 위한 사전 계획

1. 헤인여중의 교육여건 및 인성교육과제

구 분	여건 및 실태	인성교육 과제
학 생	학생들의 심성이 밝고 깨끗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20%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가정 및 사회적 소외대상으로 바른 언어습관 형성이 어려움 - 학생 스스로의 언어습관 개선 의지가 절실함.
학부모	생업근거지가 신도심권에 집중되어 있어 원도심 기피 현상이 있으며, 공동체의식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비교적 강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 자녀이해 교육, 학부모 상담 기회 확대 - 학부모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추진으로 교육공동체 의식 형성 필요
교 원	교직경력이 전체 평균 19년으로 매우 높고 폭 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조직이 안정적이어서 모든 업무에 능동적이며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되어 학생들의 인성지도에 성의를 다하고 있음.	- 교사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에 유리함. -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매우 높은 관심이 있음.
지역 사회	- 목포권 인구가 신도심으로 이동하고 특히 30~40대 젊은층의 이동이 많아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 - 각종 교육문화적 시설이 낙후되어 있음.	- 지역 사회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적극적 교육협력(MOU) 체결 - 상담 및 인성관련 프로그램 협조가 원활함.

2.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인성교육환경 개선

영역	교육과정 재구성	구체적인 내용
교육 목표	2013년도 교육목표에 “인성(Personality)”을 적용함.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실시를 위해 2012년부터 학교교육목표에 V(vision)·I(identity)·P(personality)의 3요소 집중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을 노력함.
창의적 재량 활동	- 창의적재량활동 시수 증가(1단위) - 창의적재량활동 전담 교사 배치(전학년 1명)	- 다양한 인성, 언어교육 및 윤리교육을 위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함. -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창의적 재량활동 1시간을 “인성교육 및 자기이해”의 시간으로 할당하고 전문 강사를 고정 배치함.
체험 활동	- 다양한 인성활동을 위한 시수확보(4주 단위 수업들 편성) - 학생중심 인성활동 실시	-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수업시수 부족으로 체험활동 시수확보를 위해 4주 단위 기본 수업들을 활용하여 체험활동시간을 대폭 확대함. - 교사주도의 중심의 체험활동에서 학생 중심의 체험활동으로 전환
동아리 활동	- 상설동아리 20개와 인성 함양전문동아리 8개 운영 - 동아리활동을 위한 지역 단체와 MOU체결(15개 단체)	-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상설동아리 운영(20개) - 각종 인성함양 전문동아리를 운영을 위해 지역단체와 MOU를 체결(15개 단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함.(8개 동아리)

3. 운영과제의 설정

주제 : 품격있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통·통·통(通·洞·統)’ 튜는 프로젝트

운영과제	실 천 내 용
<운영과제 1> 학생과 通 학생 언어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	가. 인성자극주간, 아침 “Q.T(Quite Time)”운영 나. 언어습관개선 선도학급 운영 다. 21일간의 기적, 언어습관개선 프로젝트 “불평제로” 라. 내가 받고 싶은 나만의 칭찬언어 “사랑의 언어 명찰 만들기” 마. 사랑의 우체통 “금란지교” 운영

	바. 사랑의 언어로 사과하는 날 “애플데이” 운영 사. 학생자치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운영 아. 인성 집중 자극시간 “창의·인성 캠프”(추진예정)
<운영과제 2> 교사와 通 교사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가. 교사언어문화개선을 위한 동호회 “NVC(비폭력대화)하자” 운영 나.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언어문화개선 융합교육 실시 다.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연수자료집 발간
<운영과제 3> 가정과 通 학부모 언어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	가. 자녀를 살리기 위한 학부모 연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세우기”운영 나. 좋은 언어사용하기 다짐 서약서“1004 서명서” 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언어개선캠페인 “플래쉬몹”공연

IV. 세부 실천 사항

1. 운영과제 1의 실행 계획

학생과 通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습관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천 내용 1) 인성자극주간, 아침 “Q.T(Quite Time)”운영 2) 언어습관개선 선도학급 운영 3) 21일간의 기적, 언어습관개선 프로젝트 “불평제로” 4) 내가 받고 싶은 나만의 칭찬언어 “사랑의 언어 명찰 만들기” 5) 사랑의 우체통 “금란지교” 운영 6) 사랑의 언어로 사과하는 날 “애플데이” 운영 7) 학생자치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운영 8) 인성 집중 자극시간 “창의·인성 캠프”(추진예정)	

1) 인성자극주간, 아침 “Q.T(Quite Time)”운영

- 대상 및 일시

- ▷ 대상 : 본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17학급, 608명)
- ▷ 추진 기간 : 2013. 4.15 ~ 2013. 12.(분기별 4회, 1회 5일 분량)

- 프로그램의 목적

- ▷ 용어설명 : “Q.T(Quite Time)”좋은 언어습관 및 인성함양을 위해 관련 동영상(5분 분량)을 시청하고 이에 대한 소감 및 실천 내용을 기록하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말한다.
- ▷ 인성자극 주간을 선정하여 인성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에 대한 반응케 함으로써 좋은 인성이 삶으로 실천함으로 들어나고 습관으로 몸에 배이게 한다.
- ▷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동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언어 및 인성 함양을 시키기 위해 주제별로 선별하여 시청케 한다.
- ▷ 소감 내용 및 실천 내용을 직접 기록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의 개요 및 실제

- ▷ 인성자극 주간을 학기별 2회 지정하고 아침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분기별 인성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동영상을 제작한다.)
- ▷ 1주 단위 (4~5일)의 혹은 1달 단위(1주~4주) 주제별 동영상을 5분 분량으로 첨삭하여 제작한다.
- ▷ 동영상의 시청 및 소감의 기록은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 교사가 지도하도록 한다.
- ▷ 가정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Contest를 실시함으로써 지식이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
- ▷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피드백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한다.

▷ 세부 일정

일 시	주 제	차시	동영상 내용
4월 16일~19일 (1주일)	언어습관 개선	1차시	욕, 참기힘든 유혹
		2차시	와인맛의 변화
		3차시	말의 힘(2)
		4차시	말을 바꾸면...
5월 (1개월)	가정의 소중함	1주	부모님께 감사
		2주	가정의 따뜻함
		3주	사랑의 언어
		4주	감사합시다
10월 중	긍정적인 사고	1차시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2차시	좋은 생각의 중요성
		3차시	긍정의 힘
		4차시	나도 할 수 있다
12월 중	언어습관 개선	1차시	우리가 해 본 실험
		2차시	말의 힘(3)
		3차시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4차시	사랑의 언어(2)



2013. 4. 16



2013. 4. 17



2013. 4. 18



2013. 4. 19



2013. 5월 첫째주



부모님과 포옹사진
공모



2013. 5월 둘째주



가족끼리 사랑으로
통하는 사진 공모

- 프로그램의 효과

- ▷ 인성주관을 통해 매일 아침 언어개선 및 인성관련 동영상 시청하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자기반성 및 행동개선의 계기가 됨.
- ▷ 가정에서 부모,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내용을 제시하
여 공모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가정 화목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고, 학부모로부터 많은 격려 전화와 칭찬문자를 받음.



부모님과 포옹사진
공모



부모님과 포옹사진
공모



가족끼리 사랑으로
통하는 사진 공모



가족끼리 사랑으로
통하는 사진 공모

2) 언어습관 개선 선도학급 운영

- 대상 및 일시

- ▷ 대상 : 본교 1학년, 2학년, 3학년 특정학급
1학년 1학급, 2학년 2학급, 3학년 2학급(5학급,107명)
- ▷ 추진 기간 : 2013. 3. 4 ~ 2013. 12. 31

- 프로그램의 목적

- ▷ 인성함양과 언어습관 개선을 위해 학급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프로그램
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 ▷ 지식적 배움을 통한 인성함양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급에서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
는 실천교육이 되도록 한다.
-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언어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설계, 실천해 보게 하고 이를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의 개요 및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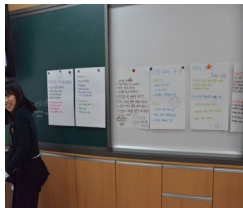
- ▷ 학급 운영을 인성함양과 언어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프로그
램을 계획하여 추진한다.

- ▷ 교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학급 운영의 방법을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 ▷ 세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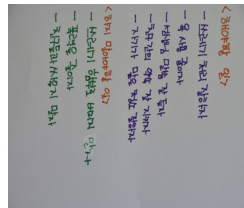
일 시	주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운영
학기초	급훈 정하기 및 급훈 다지기	① 급훈을 정할 때 인성향양과 관련된 급훈을 정한다. (예 :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② 급훈을 종례 때 종례인사를 대신하여 2번 함께 외친다. (예 : 반장 : 전체 차렷! 학생전체 : ○반! 반장 : 구호시작! 학생전체 :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반장 : 한번더! 학생전체 :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급훈과 관련된 학급평화규칙 정하기	① 모둠별 “내가 바라는 학급”을 3가지씩 정해서 칠판에 게시.(단, 급훈을 이루기 위한 내용 1가지 포함할 것)
		② 칠판에 부착된 내용에 스티커를 붙혀 많이 동의하는 내용 4가지를 선정
		③ 모둠별 “내가 바라는 학급을 이루기 위해 해야할 일 5가지, 하지 말아야할 일 4가지”를 정해서 칠판에 게시
		④ 칠판에 부착된 내용을 스티커에 붙혀 많이 동의하는 내용을 5개 선정
		⑤ 예쁘게 액자화하여 학급 구성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매일 아침 함께 읽는다.
		⑥ 학급평화규칙 관리부를 구성하여 평화규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격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화규칙 준수여부를 점검)
		⑦ 격주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보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규칙에 동참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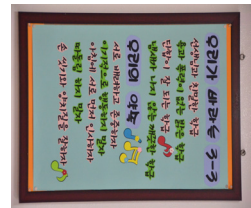
우리가 바라는 학급



게시 후 투표받기



해야할일! 하지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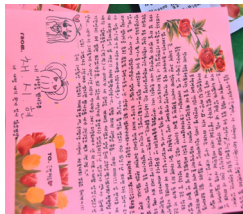


학급평화규칙 게시

일 시	주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운영
학기중	종례 인사법의 변화	3월에는 급훈을 종례 인사를 대신하여 2번 함께 외쳤다. 하지만 4월 부터는 매월 학생들에게 습관을 형성시켜 주고 싶은 내용으로 대체한다. 단 5월부터는 학생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결정하도록 한다. (예 : 4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반장 : 전체 차렷! 학생전체 : ○반! 반장 : 구호시작! 학생전체 : 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존경합니다. 반장 : 한번데! 학생전체 : 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존경합니다.) ▷ 월별 종례구호 3월 :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4월 :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5월 :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6월 : “잘한다, 할 수 있다, 최고다 ○반!” 7월 : “네가 있어 행복해~(포옹)”
	금란지교함의 운영	① 학생전체의 이름을 쪽지로 만들고 뽐기통을 준비하여 접어서 넣는다.
		② 학생들이 모두 한 사람씩 뽐도록 한다.(해당 이름의 학생에게 2주간 관찰하고 보살펴 주면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편지를 기록하게 한다.)
		③ 2주후 예쁜 편지지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편지를 써서 “금란 지교함”에 넣는다.
		④ 해당 학생에게 편지를 배달하고 편지 내용 중 가장 감동적인 편지 내용을 공개하여 그 중 2명을 선정한 후 보상한다.
		⑤ 매월 1회씩 다시 뽐기를 하여 대상을 바꾼다.
		⑥ 금란지교부를 학급에 조직하여 이 일을 주관하게 한다.



금란지교 편지지



금란지교 편지쓰기



금란지교함



금란지교함 내부

▷ 언어문화개선을 위해 학교차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도 교사 모임을 통해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효과

- ▷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급에 참여한 학급의 분위기가 학기초에 비해 매우 많이 좋아졌고 학급 구성원들 간에 불평과 불만이 줄어듦.
- ▷ 학급 회의를 통해 언어개선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성과 호응도가 매우 좋음.
- ▷ 언어개선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통제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격려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음.
- ▷ 향후 설문을 통해 학급 운영의 성과를 분석할 예정임.

3) 21일간의 기적, 언어습관개선 프로젝트 “불평제로”

- 대상 및 일시

- ▷ 대상 : 본교 1학년, 2학년(12학급, 434명)
- ▷ 추진 기간 : 2013. 5. 8 ~ 2013. 5. 28

- 프로그램의 목적

- ▷ 용어설명 : 좋은 언어습관 형성을 위하여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스스로 점검하는 언어습관형성 프로그램
-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좋지 못한 습관의 심각한 결과를 각성시키고 스스로 좋은 습관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한다.
- ▷ 사소한 말로 인해 관계가 깨어짐이 왕따, 언어폭력, 학교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를 점검해 보고,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 ▷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어 보다 더 건전한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의 개요 및 실제

- ▷ 불평제로 팔찌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팔목에 찰 수 있도록 한다.
- ▷ 불평이 낳는 부정적인 결과 및 불평팔지를 통해 양습관 형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시킨다.

- ▷ 전문강사의 강의에 대한 소감을 받고, 이를 적극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한다.
- ▷ 21일 동안 불평팔찌를 착용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기록하게 하고 양습관 형성에 도달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양습관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피드백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한다.
- ▷ 세부 일정

일 시	내 용	대상학생
5월 8일	불평없는 세상 만들기 특강	1, 2학년
	왕따NO, 불평NO 선언문 낭독	1, 2학년
	불평제로팔찌 증정식	1, 2학년
5월 8일 ~ 13일	특강 소감문 작성 및 우수작 시상	대상학생
5월 8일 ~ 27일	불평없는 생활하기 실천	대상학생
5월 21일 ~ 27일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체험수기 작성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대상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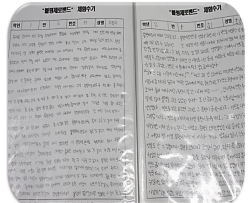
불평제로 선포식



불평제로 팔찌 수여



불평제로팔찌 착용



소감문 작성

- 프로그램의 효과

질문	만족	보통	불만족	비고
불평없는 세상 만들기 강연은 만족한가?	67.6%	27.7%	4.7%	
불평제로팔찌 착용후 불평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가?	58.9%	29.7%	11.5%	
불평제로팔찌 착용후 욕설이나 부정적 언어 사용이 줄었는가?	50.9%	32.4%	16.7%	
이와 같은 인성개선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가?	53.7%	32.7%	13.7%	
만족도 평균	57.8	30.6%	11.6%	

4) 내가 받고 싶은 나만의 칭찬언어 “사랑의 언어 명찰 만들기”

- 대상 및 일시

- ▷ 대상 : 3학년 전체(5학급, 174명)
- ▷ 추진 기간 : 1학기 중(4차시 분량)

- 프로그램의 목적

- ▷ 프로그램 설명 : 사람마다 칭찬의 방법이 다르다. 이 칭찬의 방법을 5가지로 분류하고(인정의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받기, 선물받기, 스킨쉽)으로 분류하고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맞는 칭찬의 방법인지 선택하여 명찰에 착용하면 주변 친구들이 이 명찰에 기록된 칭찬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프로그램
- ▷ 이 프로그램을 통해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실시하고 자신의 사랑 언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 ▷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이를 격려하며 다양한 칭찬의 방법으로 서로를 칭찬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의 개요 및 실제

- ▷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자신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실시한다.
- ▷ 자신에게 맞는 칭찬 내용을 명찰로 제작하여 부착한다.
- ▷ 상대방을 칭찬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갖고 칭찬하는 시간을 정해 적극적인 칭찬을 하도록 한다.
- ▷ 학급전체가 사랑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한다.
- ▷ 적극적으로 칭찬에 임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일 시	내 용	대상학생
4월 15일~5월 3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통해 사랑의 언어 강의(4차시분)	3학년
5월 8일	사랑의 언어 특강, 소감문 작성	3학년
5월 8일 ~ 27일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기 실천	3학년
5월 21일 ~ 27일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체험수기 작성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대상학생



사랑의 언어특강



사랑의 언어
학급사진



사랑의 언어
학급사진



사랑의 언어명찰

- 프로그램의 효과

질문	만족	보통	불만족	비고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통해요’ 강연은 만족한가?	72.3%	25.2%	2.5%	
사랑의 언어 명찰을 착용이 친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62.9%	31.2%	5.9%	
사랑의 언어 명찰을 착용하고 친구와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는가?	53.7%	33.2%	13.1%	
이와 같은 인성개선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가?	68.1%	30.5%	1.4%	
만족도 평균	64.25%	30.03%	5.73%	

5) 사랑의 우체통 “금란지교” 운영

- 대상 및 일시

▷ 대상 : 본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17학급, 608명)

▷ 추진 기간 : 1회 : 2013. 4. ~ 2013. 6.

2회 : 2013. 9. ~ 2013. 12.

- 프로그램의 목적

▷ 용어설명 : 쇠라도 자를 수 있고 난초의 향기 같은,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의미하고 친구간의 칭찬과 격려로 우정을 더욱 굳게하자는 뜻

▷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격려, 칭찬, 미담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장점을 말할 줄 아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의 개요 및 실제

▷ “금란지교함”의 설치 : 학생들의 이동이 빈번한 홈페이지에 2개 설치

▷ 일주일에 2번씩 “금란지교함”을 열어 해당학생들에게 전달함.(둘로스

동아리와 솔리언 동아리 학생들을 도우미로 활용)

- ▷ 학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금란지교함은 학급 간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활용하고 홈페이지에 설치한 금란지교함은 학교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활용한다.
- ▷ 장기간(학기당 1회)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생들을 시상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6) 사랑의 언어로 사과하는 날 “애플데이” 운영

- 대상 및 일시

- ▷ 대상 : 본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17학급, 608명)
- ▷ 추진 기간 : 1회 : 2013. 7월 (2주간), 2회 : 2013. 12월 (2주간)
사과편지 공모일 - 2013년 7월 9일(화) ~ 2012년 7월 15일(월) 1시까지
사과편지 전달일 - 2013년 7월 16일(화), 17일 아침

- 프로그램의 목적

- ▷ 용어설명 : 친한 친구 혹은 학교생활을 통해 서운함을 느꼈던 친구들에게 “사과”나 “격려”, “칭찬”의 편지를 사과 모양의 쪽지에 기록하여 실제 사과에 포장하여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
-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면하여 해결할 수 없는 마음 속의 이야기를 친구와 나눔으로써 서로를 인정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 교사와 학생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의 개요 및 실제

- ▷ “애플데이”의 취지 설명 : 전교생에게 안내 및 도우미 교육(둘로스, 솔리언 동아리 학생활용)
- ▷ 1학기말(7월)과 2학기말(12월) 2주의 기간으로 학생들이 제작된 사과모양의 메모지에 칭찬과 격려, 서운했던 일 등을 기록하고 각 반 도우미에게 전달
- ▷ 도우미는 메모지를 실제 사과에 예쁘게 포장하고 해당일에 학생에게 전달(사과를 구하기 어려운 1학기에는 사과쥬스와 과자로 대체함)
- ▷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을 선발하여 소정의 상품을 추가로 시상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2012년 사과데이



사과편지 전달도우미들



사과편지 전달



사과편지에 감동!

- 프로그램의 효과

- ▷ 2012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음.
(120명 신청, 88명 참여함)
- ▷ 평소에 사과와 칭찬을 잘 하기 어려웠던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와 화해의 편지를 보냄으로써 교우관계와 사제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됨.
- ▷ 2학기 행사 추진 후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피드백할 계획임.

7) 학생자치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2011학년도부터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언어습관개선, 인성함양을 배양하기 위해 6개의 인성함양동아리와 학생회 조직을 운영함.
- 동아리의 구성 및 활동내용

영역	동아리명	인원	지도 교사	활동내용
인성함양	둘로스	30명	이지훈	- 인성함양과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 - 각종 인성함양 프로그램 도우미 활동 - 각 학급 언어습관개선 모니터링 활동
상담전문	솔리언	20명	김경순	- 또래상담활동을 위한 전문 교육 - 각 학급 또래 상담활동 실시 및 학교폭력예방활동 - 바른 학교생활 함양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사회봉사	Y-teen	28명	예은영	- 목포시 죽교동 일대 독거노인 위문 및 도우미 활동 -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위문 및 일손돕기 활동
	어깨동무	26명	이영자	- 경로당, 거동불편가정방문 청소와 위문활동 - 서산동 관내 공원 환경정화활동
	희망봉사단	12명	김수정	- 학교인근 노인 돌보기 활동 - 교내 환경 미화활동 - 각종 봉사활동

영역	동아리명	인원	지도 교사	활동내용
특기영역	엘림포토	15명	김형석	- 각종 동영상 제작 - 학교 현안 및 사회적 문제를 영상자료로 제작(언어 개선 및 학교폭력관련 영상제작)
학생회조직		10명	박홍정	- 학생회 자체 언어문화개선분과 활동을 통한 다양한 언어개선 아이디어 제안 및 추진 - 학생회 언어개선자체프로그램 “신설신생”운영



경찰청주관
전국학교폭력제로
UCC공모전 대상수상

학교폭력 제로(Zero) UCC 공모전 .

연말까지 발표예정 / 입회 2018.03.20 17:02

스마트산업협, 경찰청-교육부와 함께 2회째

한국스마트산업협회(www.kosia.org)는 경찰청 주
최, 교육부가 후원하는 ‘학교폭력 제로(Zero) UCC
공모전 시상식’을 20일 서울문수 미군중 경찰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상인 경찰청장상으로 초등부문에서 경남 병
거초(교사 강성희) 조혜인, 조민주, 강한지 학생이
중등부문에서는 전남 목포해인중(교사 김형석) 서
지현, 함정미 학생이 고등부문에서는 경기 KAP-A
제고 김하은, 서재림이 수상하였고, 교사부문에서
는 경기 화성 동화중 이승선 교사가 학교전담경찰
관에서는 부산 북부서 민영호 경위, 이현주 경장이



인성함양동아리 연합
오리엔테이션



인성함양동아리
사회복지기관 위문

2. 운영과제 2의 실행 계획

교사와 通	교사들의 올바른 언어습관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실천할 내용

- 1) 교사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동호회 “NVC(비폭력대화)하자” 운영
- 2)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언어문화개선 융합교육 실시
- 3)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집 발간

1) 교사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동호회 “NVC(비폭력대화)하자” 운영

- 대상 및 일시

▷ 대상 : 해인여중 교직원 중 희망자

▷ 추진 기간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프로그램의 목적

- ▷ 프로그램 설명 : 대화의 기법 중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인식하게 하는 “비폭력대화법”과 관련된 연구 동호회를 조직하여 매주 1회 모임을 갖고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임.
- ▷ 이 동호회를 통해 교사간의 대화 방법과 학생간의 대화방법을 개선하고 언어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능력을 습득하며 발생한 학교 폭력의 상황에서 폭력학생과 피해학생간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 ▷ 학생들에게 비폭력대화 및 바른 언어습관 함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를 양성하고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통하는 교사문화를 주도한다.
- ▷ 다양한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한다.

- 프로그램 운영의 개요 및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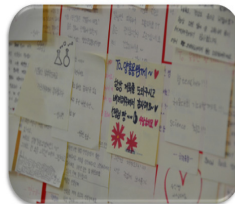
- ▷ 2013년 3월 동호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교사들과 함께 동호회를 결성.
- ▷ 매주 1회 정기적 모임을 통해 비폭력대화법을 공부하고 학기별 1회 해당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를 갖는다.
- ▷ 이와 관련 자율 연수에 동호회 교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비폭력대화법의 학교적용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연구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각종 교내 인성관련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교사로 활용하고 “창의·인성캠프”후 학생과 멘토-멘티관계로 묶어줌으로써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교사동아리모임



교사동아리와
학생회가 함께 준비한
“교사 칭찬의 날”



“교사칭찬의날-선생님
사랑해요”에 학생들이
쓴 메모들



교사동아리 주도의
“사랑의나눔 행사”

- 프로그램의 효과

- ▷ 학생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필요성과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습득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8명의 교사 참여)
- ▷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급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해결
- ▷ 학생회와 연계하여 “교사칭찬의 날”을 준비하여 실천함으로써 학생-교사의 칭찬과 격려문화 형성에 역할을 함.
- ▷ 2학기 NVC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언어 방법을 학습할 계획임.

2)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언어문화개선 융합교육 실시

- 대상 및 일시

- ▷ 대상 : 참여희망 교과 교사
- ▷ 추진 기간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프로그램의 목적

- ▷ 프로그램 설명 : 언어폭력 및 좋은 언어습관과 관련된 융합교육을 실시하기 원하는 교사들과 함께 학기별 1회 이상 수업시간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함.
- ▷ 이 활동을 통하여 교과별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융합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바른 언어습관형성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 ▷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교과자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필요한 교사들에게 보급한다.

- 각 교과별 언어습관개선 융합교육 실시 개요

- ▷ 인성전문교과(창체시간활용 매주 1시간)
 - ① 전문교사 1명 전담지도
 - ② 언어습관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 수립
 - ③ 학년별 10가지 주제를 이용한 집중 언어습관 개선 프로그램

차시	1학년	2학년	3학년
1차시	우리를 둘러싼 은어, 유행어, 통신언어	나의 언어습관 점검하기	우리의 언어 습관 왜 문제일까
2차시	욕설, 너를 탐구한다	어휘력 알아보기	소통이 왜 어려울까
3차시	우리의 힘으로 빛나는 언어생활	욕 어원 알아보기	어떤 말을 해야 하나
4차시	우리가 만드는 언어순화 홍보물	말에 울고 웃고	뜻을 알리자
5차시	차별과 편견의 말을 넘어	내 안의 어두움 내보내기	고운 말 닦싸움
6차시	분노 조절하고 표현하기	말하는 대로	영화 바꿔보기
7차시	통(通)하는 대화, 존중하는 대화	욕을 물리치는 광고노래	예쁜말 베개 만들기
8차시	깨끗한 사이버 세상 만들기	광고 포스터 만들기 및 다짐	다섯 손가락 다짐 만들기
9차시	깨끗한 미디어 만들기	우리 언어문화의 전통	아름다운 언어문화 바꾸기
10차시	불평제로 & 애플데이 캠페인 참여 후 나눔		

▷ 기타교과 (교과별 수업시간 활용 매 학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과	수업주제 및 수업방법	비고
국어	아름다운 우리말 사랑하기(수업 및 토론) 언어의 힘과 세상을 바꾼다.(토론)	
도덕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과 우리 사회(토론)	
과학	좋은 언어와 나쁜 언어사용의 영향과 관련된 자율탐구 보고서 (발표 및 토론)	
영어	영어를 활용한 예의바른 세계화 에티켓의 중요성(수업 및 토론)	
음악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CM송 부르기(수업 및 발표)	
미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표어, 포스터 만들기(수업 및 발표)	



미술/언어개선포스터



음악/언어개선CM송 발표대회



과학/언어의힘 탐구보고서



국어/언어개선 토론수업

- 프로그램의 효과

- ▷ 창의적체험 전담교사를 통한 체계적 언어개선 수업이 이뤄짐으로써 행사 위주로 진행되던 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 단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수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언어 개선의 중요성을 각인시킴으로써 바른 언어사용을 각오케 하고 실천케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
- ▷ 다양한 방법으로 바른 언어사용의 필요성을 표현케 함으로써 재미있게 양습관형성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3)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집 발간

- 대상 및 일시

- ▷ 대상 : 해인여중 교직원
- ▷ 추진 기간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프로그램의 목적

- ▷ 교사들의 언어문화개선 활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향후 교내 및 교외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프로그램 운영의 개요 및 실제

- ▷ 자료집 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교육과정반성회를 통해 중간 자료집을 발간하여 다음 학기에 교사들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 언어문화개선과 관련된 연수자료를 발간하여 교사 연수 시에 활용하고 동료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 2013년도 2학기 말에 종합자료집을 발간하여 향후 언어문화개선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수업자료는 축적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 운영과제 3의 실행 계획

학부모와 通	자녀를 살리기 위한 언어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
--------	---------------------------

실천할 내용 1) 자녀를 살리기 위한 학부모 연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세우기”운영 2)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언어개선캠페인 “플래쉬몹”공연 3) 좋은 언어사용하기 다짐 서약서“1004 서명서”
--

1) 자녀를 살리기 위한 학부모 연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세우기”운영

- 대상 및 일시

- ▷ 대상 : 해인여중 학부모 중 희망자
- ▷ 추진 기간 : 2013년 9월 26일~27일

- 프로그램의 목적

- ▷ 언어 및 학교폭력의 뒤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가정과 함께하지 않는 언어습관개선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과 부부관계의 중요성,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 등을 학부모와 공유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자녀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프로그램 운영의 개요 및 실제

- ▷ 2013년 9월에 2일에 걸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세우기” 연수를 실시
- ▷ 개략적 연수 프로그램

시 간		주 제
첫째날	1강	프로그램 소개 및 언어습관 개선의 중요성
	2강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언어 이해하기
둘째날	1강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자녀가 회복된다.
	2강	자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수료식	좋은 언어 사용하기 다짐 1004 서명식

- ▷ 좋은 언어사용하기 다짐 “1004 서명”에 참여하고 이를 액자에 넣어 가정에서 꾸준히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짐케 한다.
- ▷ 연수를 수료했을 때 수료증을 발급하고 향후 심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 ▷ 이후 학부모와 함께하는 플래쉬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 **운영성과분석 방법** : 참여한 학부모들의 활동 설문조사 및 성과물

2)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언어개선캠페인 “플래쉬몹”공연

- 대상 및 일시

- ▷ 대상 : 목포시민, 해인여중 학부모, 해인여중 학생 중 희망자
- ▷ 추진 기간 : 2013년 10월

-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의의

- ▷ 목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청소년 언어문화인 비속어, 은어, 욕설 등 청소년의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자 함.
- ▷ 언어 개선이 필요한 학생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고운 언어를 통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오감으로 깨닫게 하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발휘함으로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됨.

- 프로그램 운영의 개요 및 실제

- ▷ 장미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목포 시민과 인사를 나눈다.
- ▷ 욕 어원, 언어가 주는 영향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보드판을 전시한다.
-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참여 1004명 서명서를 받는다.
- ▷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준비한 플래시몹 실시한다.
- ▷ 플래시몹을 끝낸 후, 참가자들은 준비한 피켓(표어를 붙인 옷,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자나 가면 등도 좋을 듯)을 들거나 입고(쓰고) 고운 말로 인사하며 악수를 나눈다.
- ▷ 행사 영상 작업 후 홍보 및 교육영상으로 활용
- ▷ **운영성과분석 방법**
참가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플래쉬몹을 구경한 사람들의 반응(인터뷰 내용 등)

V.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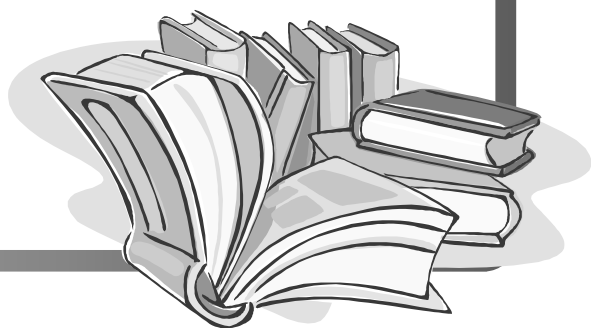
-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이 사회의 소통 문화를 익혀 사회에 무리없이 입문하게 하는 기능을 익힐 수 있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 학생 측면에서는 학생 스스로 어떤 언어적 욕구가 있으며 친구의 언어적 욕구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되며 개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관이 확립되어 더욱 명확한 미래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교사 측면에서는 추락하고 있는 교권, 열악한 교육여건,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배려와 존중의 미덕이 약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교사의 언어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긍정적 언어와 사랑이 담긴 언어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학생과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의 자세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 학부모의 측면에서는 모든 교육적 문제와 인성의 문제를 학교에 의존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인성변화의 주체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적극적인 사랑의 언어를 자녀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운영을 통해 생산되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의 진행과 타 학교에서의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성과 함께 인성이 커가는 온전한 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언어에는 힘이 있다. 공격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공격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희망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면 희망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운영을 통해 배려와 사랑의 언어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 3 (법제교육)

‘학생회, 청소년 법제관 자치법정 운영 사례’

● 주월중학교





2013 학교문화 개선 우수사례 3 (법제교육)

‘학생회, 청소년 법제관 자치법정 운영 사례’

주월중학교

2013학년도 인성교육 선도학교

학생회, 청소년 법제관 자치법정 운영 사례



● 발표일 : 2013.09.09

● 발표자 : 교사 양영승

 주월정학교

목 차

- 1 학생회 활동
- 2 칭찬쿠폰과 체크리스트 활용
- 3 청소년 법제관 운영
- 4 학생 자치법정 운영
- 5 인성교육 성과 및 제언



학생회 활동

● 학생회 역할

학교 교육활동에 자율적, 창의적 주체로서 **학생회 주도**의 건전한 문화가 학교 전통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바른 언어 예절, 자기 절제, 자율과 책임의 소중함을 체험 위주로 실천하며 체득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바른언어
예절

자기 절제

자율과
책임의
소중함



주월중학교



학생회 활동

● 학생회 체험 활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주월 팝스타 (문화행사)

 주월중학교



학생회 활동

● 학생회 체험 활동



5.18 국립묘지 참배



학생회 리더십 캠프

 주월중학교



2 칭찬 쿠폰과 체크리스트



칭찬 쿠폰과 체크리스트

● 칭찬쿠폰 지급 분야(총36항목)

- ▶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 ▶ 고발 및 신고 활동 (공공질서 및 학교안전)
- ▶ 수상 및 명예 선양
- ▶ 선행 및 모범 학생
- ▶ 수업태도 및 차감상점
- ▶ 명시 되지 않은 경우 담임과 관련교사 협의 결정



칭찬 쿠폰과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벌점 분야(총54항목)

- ▶ 준법(무단 지각 및 결석, 불건전 행위, 학교규칙 등)
- ▶ 흡연 및 폭력
- ▶ 예절 및 공중 도덕
- ▶ 두발 및 용의 복장
- ▶ 학습활동 등.



칭찬 쿠폰과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등급

A등급(학생부)

- 불건전 이성교제
- 담배소지/흡연
- 교사지도 불응
- 휴기소지
- 구타, 절취
- 수업거부
- 수업 방해 등.

B등급(학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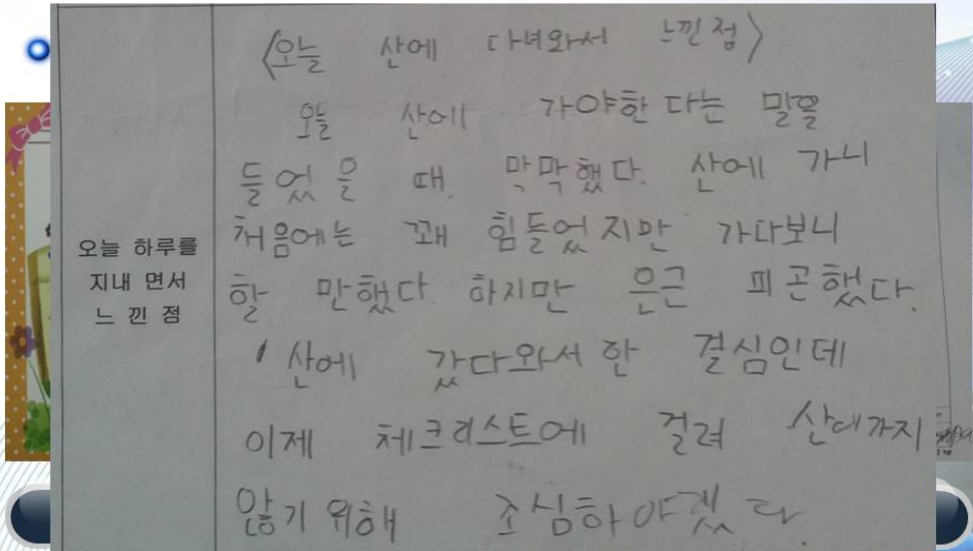
- 금지장소 출입
- 티켓제작/판매
- 담배소지
- 공공기물 파손
- 욕설 및 폭언
- 도박행위
- 수업 중 취식 등.

C등급(학급담임)

- 급식실 질서위반
- 행사 불참
- 청소의무 소홀
- 낙서/쓰레기투기
- 교복 착용 불량
- 휴대폰 미제출
- 수업태도불량 등.



칭찬 쿠폰과 체크리스트



 주월중학교



칭찬 쿠폰과 체크리스트

칭찬 쿠폰과 체크리스트 활동 내용



사제동행 재석산 등반



사제동행 무등산 등반

 주월중학교



청소년 법제관 운영

● 청소년 법제관이란?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학생대표로서 전체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 또 제정·개정하려는 학교규칙의 내용을 법률과 비슷한 형태로 조문화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입법체험을 하며 준법선도 활동을 하여 학교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말합니다.**



주월중학교



청소년 법제관 운영

● 학생회 규약

- 1 용의 및 복장에 대한 규정
- 2 핸드폰 및 SNS 사용에 관한 규정
- 3 이성교재에 관한 규정
- 4 체크리스트에 관한 규정
- 5 자치법정 내규에 관한 규정

 주월중학교



청소년 법제관 운영

● 청소년 법제관 활동내용



청소년 법제관 위촉장



법제관 기본 법제 교육

 주월중학교



청소년 법제관 운영

● 청소년 법제관 활동내용



청소년 법제관 하계 법 캠프



법제관 학생회 규약 제정

 주월중학교



청소년 법제관 운영

● 청소년 법제관 활동내용



법 기관 탐방 - 국회



법 기관 탐방-멘토와의 대화

 주월중학교



학생 자치법정 운영

● 학생 자치법정이란?

학생자치법정은 1980년대 청소년 비행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청소년법정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대폭 수정·개발된 학교 내의 징계처리과정으로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별이 아닌 학생 스스로 정해진 상벌점제에 의거 법정을 열고 과벌점자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자치법정 운영

● 학생 자치법정의 절차



학생 자치법정 운영

● 자치법정 활동 내용



법무부 모의 법정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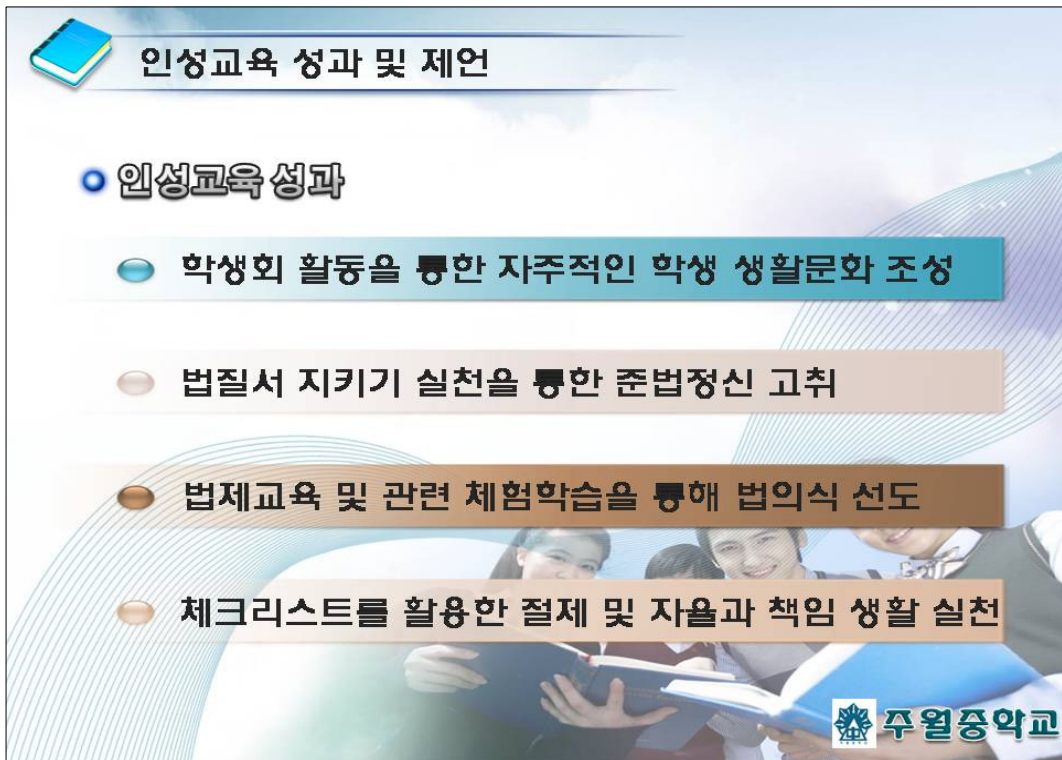
학생회 자치법정 워크숍



인성교육 성과 및 제언

● 인성교육 성과

- 학생회 활동을 통한 자주적인 학생 생활문화 조성
- 법질서 지키기 실천을 통한 준법정신 고취
- 법제교육 및 관련 체험학습을 통해 법의식 선도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절제 및 자율과 책임 생활 실천





인성교육 성과 및 제언

● 제언(바라는 점)

- 학교전용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 진행
- 학생회 중심의 다양한 체험 활동 전개-법제정
- 긍정적 지도를 위한 다양한 자치법정 프로그램 개발
-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강화-사제동행행사

감사합니다.



전자기기 사용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전자기기”는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제 3조(실천사항)

- 1.교사는 학생들의 전자기기에 대해 수합할 권리가 있다.
- 2.학생은 교사에게 전자기기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
- 3.학생은 스스로 아침자습시간 전 8시 20분 전에 선생님께 전자기기를 제출한다.
- 4.전자사전 같은 수업에 필요한 전자기기는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그 수업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5.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소지를 허락한다.

제 4조(SNS메시지)

- 1.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나 댓글을 쓰지 않는다.
- 2.상대방의 사진을 도용하지 않는다.
- 3.상대방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4.특정상대를 공격하는 글이나 댓글을 쓰지 않는다.
- 5.강제로 채팅방에 초대하지 않는다.
- 6.집단으로 특정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 목록

이성교제에 관한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개념) 본 규정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성 간의 애정 행위를 다룬다.

제 3조(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교내에서만 적용된다.
2. 학교에서 주최하는 외부특별행사에도 적용된다.

제 4조(말착도)

1. 애정표현에 관해서는 손을 잡는 것을 허용한다.
2. 팔짱을 끼는 것도 허용한다.
3. 1,2항외의 모든 신체적 애정표현(껴안기, 머리 쓰다듬기, 기타 등등)은 금지한다.
4.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의 단둘이 만남은 피한다.
5. 커튼 속에 들어가는 등의 은밀한 행위는 금지한다.
6. 쉬는 시간에는 교실에서의 만남을 피한다.
7. 점심시간에 빈 교실에서 만나지 않는다.

제 5조(수업시간)

1. 수업 시간에는 어떠한 애정표현도 하지 않는다.

← 목록

[illegible][illegible]

- ① 체크리스트의 징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신에게 부여된 A 등급의 합계가 A1 이상인 학생
 2. 자신에게 부여된 B 등급의 합계가 B2 이상인 학생
 3. 자신에게 부여된 C 등급의 합계가 C5 이상인 학생
- ② 등급의 총합은 각 등급별로 개별 합산한다.
 1. 등급 간의 변환 합산은 불허한다.
- ③ 체크리스트의 누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해당 학년부의 협의를 거쳐 자치법정으로 재판을 요청한다.

1. 1941年10月，日本帝国主义为了侵略战争，在太平洋地区发动了珍珠港事件，美国对日本宣战，中国也正式对日本宣战。

지표(통계) 자취탐정은 학교의 학생들 구상을 통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설문조사나 설문부수자
활동을 통하여 세 정서나 자취조사 자취기록부 같은 탐거나 이런 경우는 교사나 학생들
자취탐정이 서서 자취탐정이나 자취기록부 같은 탐거나 이런 경우는 교사나 학생들
자취탐정이 서서 자취탐정이나 자취기록부 같은 탐거나 이런 경우는 교사나 학생들

- ① 한달동안 20가지 이상 작성
- ② 한달동안 10가지 이상 작성
- ③ 두 달을 걸쳐서 한 달에 하나씩 작성
- ④ 의뢰자 네가 작성

1930(무성) 박달의 발명은 전구, 집구, 불꽃인, 새발집구, 황금불꽃, 등인, 장등인 등으로 이
오른 것을 집구하는 자손이 많은 세계 여러 개국에 장수 장제이들의 황제노릇과
장구 2명, 전구 2명, 불꽃인 2명, 새발집구 2명, 황금불꽃 2명, 등인 2명, 장등인 2명

[illegible][illegible][illegible]

① 자기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② 나의 마음을
 ③ 어떤 사람과 인연으로 맺어
 ④ 어떤 일을 겪어

① 잘못과 전연은 특수한이나 예외이 쓰여
② 사립학교에서 학생으로 자신의 잘못 고백
③ 주로 후 학생들의 생활기록에 쓰여
④ 잘못과 전연은 수필에도 쓰일수 있다

나의 학업적 진로는 수필가, 저술, 전업작가이다. 다만 작문은 물론이고, 글의 내용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글은 글로서는 물론이고, 글의 내용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글은 글로서는 물론이고, 글의 내용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1. 凡在本行开立存款账户的客户，均可向本行申请开立支票。
 2. 支票的有效期为自签发之日起六个月内。
 3. 支票的金额不得超过账户余额。
 4. 支票的签发人必须为本行客户。
 5. 支票的收款人必须为本行客户。
 6. 支票的用途必须合法。
 7. 支票的签发人必须承担支票的付款责任。
 8. 支票的收款人必须向本行提示付款。
 9. 支票的付款人必须为本行。
 10. 支票的付款金额不得超过支票金额。
 11. 支票的付款日期不得超过支票有效期。
 12. 支票的付款人必须按照支票金额付款。
 13. 支票的收款人必须向本行提供支票。
 14. 支票的付款人必须按照支票金额付款。
 15. 支票的付款人必须按照支票金额付款。

한글
한글

- ① 학생자치법정 배심원 참여하기
- ② 나의 다짐쓰기
- ③ 봉사활동을 통한 경감
- ④ 위반 사항과 관련된 포스터 및 글짓기
- ⑤ 등교·하교·점심시간을 통한 캠페인
- ⑥ 잘못과 관련된 독후감이나 에세이 쓰기
- ⑦ 교육 다큐멘터리 감상후 감상문 쓰기
- ⑧ 아침조회시간 방송으로 자신의 잘못 말하기
- ⑨ 교장선생님과 면담후 소감문 쓰기

③ 적정급 임금: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월급을 주는 것은 적당하고 적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월급을 자영업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금액으로 주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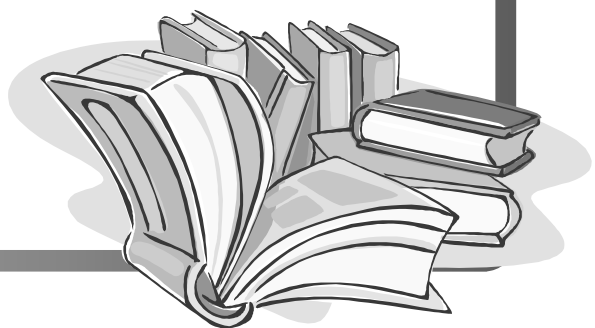
1. 凡在本行开立存款账户的客户，均可向本行申请开立支票。
 2. 支票的有效期为自签发之日起10天。
 3. 支票的金额不得超过账户余额。
 4. 支票的收款人必须是本行客户。
 5. 支票的签发人必须是账户持有人。
 6.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签名。
 7.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盖章。
 8.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日期。
 9.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金额。
 10.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账户号码。
 11.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姓名。
 12.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地址。
 13.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电话。
 14.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传真。
 15.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电子邮件。
 16.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手机号码。
 17.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身份证号码。
 18.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护照号码。
 19.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驾照号码。
 20.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职业。
 21.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工作单位。
 22.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工作单位。
 23.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工作单位。
 24.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工作单位。
 25.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工作单位。
 26.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工作单位。
 27.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工作单位。
 28.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工作单位。
 29. 支票的收款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工作单位。
 30. 支票的签发人必须在支票背面填写工作单位。



컨설팅 사례발표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을 기뻐하며
창의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길

김 봉 규 (미래행복인재연구원 대표)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을 기뻐하며

창의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길

김 봉 규 (미래행복인재연구원 대표)

몇 년 전 자살한 중학생의 유서이다: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던 친구, 진정한 벗 아이폰을 함께 물어주세요!” 장례식 때 어머니는 오열했다. “우리 애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학교생활도 아무 문제없었는데!”

사람들은 자살의 이유가 다양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실제 자살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공통의 이유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하락으로 자살하는 학생은 그가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성적이 자기 삶의 의미였던 것이다. 자신을 지탱해주고 받쳐주던 토대, 그 토대가 사라질 때 삶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의 경우는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는 것이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자살욕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동인이 더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이처럼 절망에 빠져있는데, 이런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심지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리라 믿었던 어머니조차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살의 종국적 원인은 절대적 외로움이다.

인간은 ‘사람(人) 사이(間)’, 즉 관계의 존재이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유전자를 존재는 모두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호흡을 하고 살아 있어도 은둔형 외톨이처럼 관계가 상실된 존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아니다. 현실이나 가상공간에서의 집단따돌림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즉 사회적 살인이다. 그래서 공자도 인간관계의 핵심을 인(仁)으로 보았다. ‘어질다는 것’은 그냥 온유하다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仁), 즉 사람(人) 둘(二)이 함께

하는 법을 아는 덕이다. 실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그리고 자살 등 문제의 원인가운데에는 무엇보다 가족구성원이나 교사,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있었으며, 그 배후에는 대화나 이해의 결핍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 그리고 나눔과 배려의 결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들에 핀 장미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장미가 장미이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위해 태양이 있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며,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받을 토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장미야!”라는, 누군가로부터의 부름이다. 그것이 없을 때 그는 의미로 존재하지 못하고 한갓 ‘몸짓’으로 남아야 한다. 성경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진리인 자신이 포도나무이며 우리들은 가지라고 했다. 비유의 핵심은 가지들이 반드시 나무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가지들이 상호 운명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한 가지가 이기적으로 양분을 독차지 한다면 결국 자신도 파멸을 맞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다가올 미래는 융합과 공존의 시대이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며, 국제사회는 공조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역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아가 사회 각 계층들 역시 상호 상생 및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성공을 위한 최우선의 덕목 역시 스펙에서 관계지수(NQ=Network Quotient)와 의사소통능력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타인과 잘 어울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고학력의 독불장군보다 낫다는 것이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티벳의 오지인 라다크 부족이야말로 인류의 <오래된 미래>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평화와 공존 그리고 상생의 미래지향적 꿈을 이미 오래 전 티벳의 작은 부족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는다’는 규율을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었다.

2010년 졸업문화개선으로부터 진행된 교육부의 학교문화개선프로젝트는 무엇보다 나눔과 배려, 소통과 어울림, 그리고 인성과 자율 중심의 학교문화를 지향해왔

다. 그것은 사회의 그늘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격적이고 자율적이며 공존과 상생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 구체적으로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의 주체적인 자율문화를 구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울림을 도모하며, 각종 동아리활동을 기반으로 '더불어 삶'의 지혜를 배우고, 봉사나 힐링 및 행복지향적 자치활동 등을 통해 상생을 실천함은 물론, 독서, 토론 그리고 시나 글쓰기활동 등을 통해 공존지향적 의식을 함양해나가며,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의 언어문화개선노력과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문화가 점진적으로, 하지만 효과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실제 알몸졸업식 같은 왜곡된 졸업문화는 참여한 학교들에게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학교폭력이나 자살, 그리고 집단따돌림과 같은 부정적 현상들 역시 근본적 해소는 아니더라도 효과적 완화의 결과를 얻고 있다. 나아가 교육공동체들간의 공조와 화목이 증진되고 있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느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의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 학교 프로젝트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행복학교문화의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은 모든 컨설팅위원들에게 행복이었으며 대한민국교육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컨설팅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적 구조적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육담당자들
- 일반화 가능성이 높고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들 증가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존감 향상을 지향하는 프로그램들 증가
- 열린구조의 토론 / 정보교류 및 공통의 지향점 확인
- 교육공동체의 수평적 구조로의 참여와 소통 확인
(학생, 교사, 학교, 부모, 지역사회)
- 형식주의를 벗어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접근
- 지역사회와 각 학교의 개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 증가
- 인성과 언어문화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들
- 학부모와 교사의 의식개선과 고취를 위한 다양한 연수 및 연구 동아리
- 계획/실천/평가/개선의 통일되고 효과적인 진행
- 일회적 행사성이 아닌 장기적 지속성의 특성

특히 창의적이고 신선한 프로그램이나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참여와 나눔의 학교 축제를 위한 1학급 프로그램(간부수련회)의 모범적 운영
2. 사제부동 체험활동, 스승, 제자, 부모, 동창회선배가 함께 하는 어울림걷기(야간 행군 38년) 등반
3. 학생존중과 상호협력 프로그램(For me 프로그램, 행복 나눔 125 프로그램 등)
4. 꿈, 꿔, 끼, 꼴 프로그램으로 나눔, 배려, 소통의 학교문화지향
5. 소통과 나눔이 있는 무사고학교(소나무 학교)
6. 2FM(Feel, Find, Meet)을 통한 꿈 찾기 문화실천
7. 3D참(Charm)한 학교-특히 1인1악기 급수제와 줄넘기 급수제운영의 특화
8. 학생동아리<Cell>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자치법정
9. 인성관련 다양한 동아리<인성교육교사연구동아리, 인성학생동아리, 아이사랑동아리>활동과 인성교육관련자료 발간
10. 감사 힐링 스쿨 운영
11. 모두가 행복한 SO-PA(Social Participation) - 인성교육프로그램과 학생인성지수 자체개발
12. 인성교육 프로그램 3G 운동, 특히 인성교육 귀공자 프로그램
13. Well-Being(심리치료)교실운영-‘매일감사노트쓰기’/‘감사릴레이운동’
14. 부적응학생,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15. 언어문화 순화를 위한 시 짓기나 교내합창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16. 품격 있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통통통(通,洞,統) 튀는 프로젝트

제시된 사례들은 극히 일부이며 실제 선도사업에 참여한 학교들이 제시한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나름대로의 창의성과 실질적 역량을 겸비한 것이었다. 이상 프로그램들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선도사업이 배출해 낼 수 있는 미래행복인재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다.

1. 정체성인식과 자존감확립
2. 의사소통능력과 관계능력 증진
3. 삶의 자율적 설계능력과 책임의식 확립
4. 반사회적 요소들의 효과적 차단과 인성확립
5. 미래지향적 비전확립
6. 배려와 나눔의 의식확립을 통한 공존과 상생지수 향상

선도사업의 의의는 단순한 표면적 성과 이면에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가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통, 자율 그리고 어울림과 개선의 학교문화는 왜곡된 학교문화를 바로잡는 소극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교 그리고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해주는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무엇보다 현재 10대의 기대수명이 최소 100세가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소위 10:90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은 결국 상향평준화되어버릴 스펙이 아니라, 오히려 융합적 사고능력, 관계 및 공존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소능력일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문화개선프로젝트는 현재의 학교문화개선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생산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작금의 학교문화는 어떤 ‘새로움’의 길을 가야할까? 그 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의 개발을 의미하지 않는다. ‘창의성’의 목적은 ‘새로움’ 자체가 아니라, 1) 그것을 통한 실질적 학교문화개선, 즉 불건전한 학교문화에서 건전한 학교문화로의 이행이며, 2) 미래행복인재가 겸비해야 할 미래능력의 개발과 향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학교문화가 지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는 그 종류와 양의 측면에선 모자람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생산된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그 자체로 뛰어나며 새롭고 참신하다. 행사나 프로그램에 투자된 예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수준과 열의도 충분히 높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기대하고 싶은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 행사중심보다 교과연계형 계획이 조금 더 강화되길
2.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진행이 좀 더 확대되길
3. 교사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의 문제상존
4. 학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 계획 보다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좀 더 확대되기를
5. 각 학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한 자체 학교에 부합하는 문제분석, SWOT분석의 형식을 넘어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석
6. 기대효과와 추상적, 일반적, 및 이상적 측면 좀 더 개선되길
7.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좀 더 지속적 계획 수립되었으면
8. 언어는 성대에서 나오나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바른 언어사용 교육과 인성교육의 효율적 병행이 좀 더 이루어지길
9. 언어순화교육과 학교문화개선은 결국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사안. 따라서 상호 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좀 더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해주었으면
10. 열악한 환경조건이지만 가능하면 학생들의 체계적 관리 및 가정방문과 개별상담을

학생들을 미래행복인재로 교육하기 위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들의 제거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학생들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나 욕 등을 습득한다. 반면 배려와 나눔 등 선한 가치는 가르쳐줘도 잘 각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율과 다양성을 인정하되 맹목적 자율이나 맹목적 다양성의 인정은 학생들의 이기적 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하는 교육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교육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분명히 지니도록 하기 위해 학생자치법정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들을 미디어나 게임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공조가 요구된다. 나아가 다양한 비전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원하는 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즐거워하고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문화개선이나 언어문화개선의 성공적 실현 여부는 리더, 즉 교장에게 일차적으로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장의 관심과 열의가 교사로 그리고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어지는 내리사랑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성공적으로 극복해가고 있는 전시행정이나 미봉책만을 찾는 형식주의, 성과주의 그리고 편의주의를 온전히 넘어서 수 있다면, 본질적 차원에서의 진정한 교육문화혁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이클 샌델(Sandel)은 평등과 정의가 바르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진단하며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정의를 모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질병은 ‘정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이미 인지된 정의를 향한 실천의지의 결여’이다. 실제 인식된 정의만이라도 실천된다면 세계는 충분히 정의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정의보다 자신의 이기심을 우선시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학교문화의 ‘새로움’은 프로그램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의식의 새로움’이다.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진행보다 프로그램을 향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학교문화개선의 우선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교장선생님의 헌신적 열정, 교사들의 자발적 동참, 부모의 지혜로운 사랑,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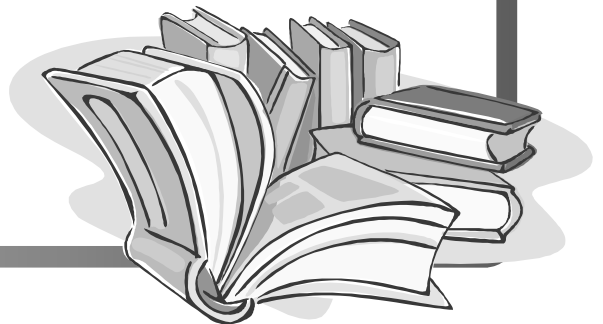
체적인 노력이야 말로 학교문화가 지향해야 할 진정 창의적인 새로움이다. 물론 그러한 열정을 위한 사회구조적 동기부여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는 현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맹목적 다양성을 넘어 합리적 다양성의 길에 들어섰고, 독단이 아닌 질서와 통일의식을 배워나가고 있다. 단순한 자유가 아닌 자발적 책임의식이 동반된 진정한 자율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율적 주체로서, 소통과 공존 그리고 상생의 의식을 지닌 미래 지향적 행복인재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함을 알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진리만 바라보고 그 진리에 순종하자. 그리고 기억하자. 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지만, 빛을 등지고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사 업 안 내

교육부 담당자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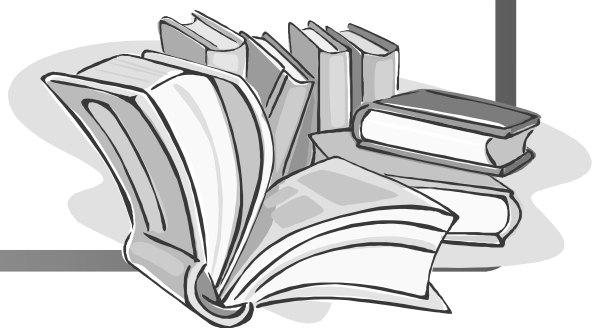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부 록

2013년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현황

2013학년도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현황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현황(시·도 자체 지정 학교 포함)

(단위 : 개교)

연번	지역	유형	교 급			소계	
			초	중	고		
1	서울	A	3(2)	2(1)	2(2)	7(5)	10(8)
		B	·	1(1)	·	1(1)	
		C	1(1)	·	1(1)	2(2)	
2	부산	A	2	·	1	3	6
		B	·	1	·	1	
		C	1	1	·	2	
3	대구	A	3(1)	3(1)	4(1)	10(3)	12(3)
		C	1	1	·	2	
4	인천	A	2	2	2	6	9
		B	·	·	1	1	
		C	1	1	·	2	
5	광주	A	3	4(2)	2(1)	9(3)	20(11)
		B	·	2(1)	1(1)	3(2)	
		C	5(4)	1(1)	2(1)	8(6)	
6	대전	A	2	3	1	6	9
		B	·	1	·	1	
		C	1	·	1	2	
7	울산	A	5(2)	9(7)	3(1)	17(10)	21(12)
		C	2(1)	1	1(1)	4(2)	
8	경기	A	3	4	3	10	12
		C	1	1	·	2	
9	강원	A	3	2	2(1)	7(1)	11(2)
		B	·	1	·	1	
		C	1	1	1(1)	3(1)	
10	충북	A	2	3	2	7	9
		C	1	·	1	2	
11	충남	A	9(7)	6(4)	7(4)	22(15)	29(20)
		C	5(4)	2(1)	·	7(5)	
12	전북	A	2	2	2	6	9
		B	·	1	·	1	
		C	1	1	·	2	
13	전남	A	6(5)	8(6)	5(1)	19(12)	25(16)
		C	3(2)	2(1)	1(1)	6(4)	
14	경북	A	6(2)	5(2)	3	14(4)	21(9)
		C	1	3(3)	3(2)	7(5)	
15	경남	A	2	4	2	8	9
		C	·	1	·	1	
16	제주	A	3	3(1)	1	7(1)	10(1)
		B	·	1	·	1	
		C	1	·	1	2	
17	세종	A	·	1(1)	·	1(1)	2(2)
		C	1(1)	·	·	1(1)	
	총계		83(32)	85(33)	56(19)	224(84)	224(84)

* () 안의 숫자는 시·도 자체 지정 학교 수

A형: 159(55) B형: 10(3) C형: 55(26)

2013학년도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현황

※ 영역 : A- 학교문화 B- 법제교육 C- 언어개선

연번	영역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1	A	연구학교	강월초	070-8677-8304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구현 방안	공립
2	A	연구학교	영동중	02-3474-7386	자율과 존중의 「아띠」 프로그램을 통한 신나고 행복한 학생자치 문화 만들기	공립
3	A	선도	금양초등학교	02-704-2938	교육공동체 참여문화 조성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4	A	선도	동자초등학교	02-444-1349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를 위한 동자 365 프로젝트	공립
5	A	선도	신관중학교	02-885-6891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생공간의 학교문화만들기	공립
6	A	선도	성수고등학교	02-6913-3510	학생을 알아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만족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7	A	선도	풍문여자고등학교	02-732-5574	소질과 끼를 살리는 인성교육	사립
8	B	선도	서일중학교	02-3482-9663	2013년도 학생자치법정 운영 계획	공립
9	C	선도	동신초등학교	02-923-3870	고운 우리말, 고운 한국인, 고운 동신 어린이 고운 얼굴로 변신하기RSSR 프로젝트 운영 계획서	공립
10	C	선도	경일고등학교	070-4099-7002	학생주도의 온-오프라인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 폭력예방 및 바람직한 학교문화 창출	공립
11	A	연구학교	관교초	032-434-049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규칙 지키기 문화 조성	공립
12	A	연구학교	인화여중	032-762-2015	학생자치활성화를 통한 소통-공감의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3	A	연구학교	계양고	032-553-4901	굿-잠(Good-SLEEP)전략을 통한 활기찬 학교 만들기 운영 계획서	공립
14	A	선도	경원초	032-438-9321	眞善美를 찾아 떠나는 경원 행복 여행!	공립
15	A	선도	부흥중	032-527-4384	해피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실천 중심의 바른 인성교육	공립
16	A	선도	연수여고	032-457-1201	나의 학교 나의 손으로	공립
17	B	선도	석정여고	032-720-7220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한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민주시민의식 함양	공립
18	C	선도	작전초	032-543-0029	까지글 고운말 동치에서 피어나는 통통이들의 함박웃음	공립
19	C	선도	간석여중	032-429-5965	언어사용 습관 개선으로 꿈과 감성을 디자인하는 행복플러스 도전하기	공립
20	A	선도	안산서초	031-487-4550	공감, 소통, 나눔이 있어 내일이 더 행복한 안산서초의 어울림	공립
21	A	선도	둔전초	031-391-4631	꿈,끼,까,꿀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눔, 배려, 소통의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22	A	선도	초성초	031-832-4007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23	A	선도	고창중	031-986-2574	소통과 나눔이 있는 무사고 학교(소나무학교)	공립
24	A	선도	병점중	031-224-0417	333(3多, 3자, 3無) 실천으로 Happy-edu School 만들기	공립
25	A	선도	광수중	031-768-3101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26	A	선도	상품중	031-883-0003	인성교육과 함께 만들어 가는 즐거운 학교	공립
27	A	선도	성포고	031-599-9150	STA Program을 통한 인성교육실천 및 선진학교문화 창달	공립
28	A	선도	퇴계원고	031-570-1518	인성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29	A	선도	세경고	031-950-9920	모두가 행복한 SO-PA(Social Participation) 하기	사립
30	C	선도	임진초	031-954-4047	견,습,성(見, 習, 誠) 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언어사용 문화 조성	공립

연번	영역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31	C	선도	화홍중	031-225-9917	화.랑.인 프로그램으로 배려와 존중이 있는 교실 만들기 (화.랑.인 : 화홍중 사랑의 언어로 바른 인성 함양하기)	공립
32	A	연구학교	웅천고등학교	041-931-7464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공립
33	A	선도	의당초등학교	041-852-0010	학생중심 창의 인성 체험활동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34	A	선도	도고초등학교	041-542-0344	소통+ 나눔up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학교 가꾸기	공립
35	A	선도	임장중학교	041-585-5021	힐링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배려와 소통의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36	A	선도	미산중학교	041-933-4022	힐링 봉사동아리를 통한 용기있는 학교문화조성 폭력없는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공립
37	A	선도	천안월봉고등학교	041-622-5194	A-ha(All happy ability) 지성, 감성, 소통이 총만한 문화 월봉인 만들기	공립
38	A	선도	태안고등학교	041-675-8183	바른품성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아름다운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39	C	선도	쌍룡초등학교	041-547-0235	3세 프로그램 적용으로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말(言) 세상	공립
40	C	선도	남면중학교	070-7731-6300	바른 말, 바른 마음 언어순화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언어사용 습관 생활화	공립
41	A	선도	구산초등학교	041-841-2169	바른 품성 5운동 전개를 통한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 생활 능력 신장 방안	공립
42	A	선도	웅산초등학교	041-332-1560	한지붕 세 교육공동체가 함께 수놓은 인성교육실천 세마당 이야기 =공감·자율·신뢰 프로그램 적용을 중심으로=	공립
43	C	선도	천안용곡초등학교	041-569-6184	나의 언어 습관 리모델링, 따뜻한 눈들누리	공립
44	C	선도	명지초등학교	041-664-2360	언어문화개선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공립
45	A	선도	금암중학교	042-840-5091	「Grace-금암」,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공립
46	A	선도	서도초등학교	041-952-0039	P.... 프로젝트로 따뜻한 학교를 향해 달려 나가기	공립
47	A	선도	금산여자고등학교	041-753-6201	上弦人의 희망(Honest...만들기	공립
48	A	선도	삼성초등학교	041-675-4203	꿈과 끼로 상상의 날개 달기	공립
49	C	선도	아산북수초등학교	041-547-0931	고(운말)·바(른말)·우(리말) 1...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공립
50	C	선도	홍주중학교	041-632-3888	바른 언어로 도란도란 속삭이는 행복 공감 학교	사립
51	A	선도	건양고등학교	041-741-2101	학생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문화 선도 활동	사립
52	A	선도	강상고등학교	041-745-2313	스스로 꿈을 찾아 개척하는 바른 품성의 미래인	공립
53	A	선도	운산초등학교	041-669-6340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Happy-School 문화 정착	공립
54	C	선도	유곡초등학교	041-353-7078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비타민 프로젝트	공립
55	A	선도	정산고등학교	041-942-0285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	공립
56	A	선도	홍동중학교	041-631-8076	지성·인성·감성이 풍부한 Glocal 인재 양성	공립
57	A	선도	갈산초등학교	041-633-7575	'1.2.3-Slow life' 실천을 통한 배려와 공감의 바른 인성 함양	공립
58	A	선도	연무중학교	041-742-0541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공감 학교 프로젝트	공립
59	A	선도	백화초등학교	041-672-8595	나·너·들 활동을 통한 나 + 너 = 우리	공립
60	A	선도	한서중학교	041-412-7000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61	A	연구학교	보은중	043-544-2614	학생 이해와 학생 주체에 기초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62	A	선도	갈원초	043-260-6614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 행복지수 UP	공립

연번	영역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63	A	선도	한천초	043-536-4290	자율적, 창의적, 체험적 Dream 프로젝트	공립
64	A	선도	북대중	043-236-3563	소통과 배려, 격려 속에 꿈이 크는 학교	공립
65	A	선도	내수중	043-214-3598	소통, 참여, 나눔을 통한 Happy School 만들기	공립
66	A	선도	청주신흥고	043-211-8802	학교, 그곳에서 '나'를 만나다	공립
67	A	선도	청산고	043-732-8176	학생자치활동 중심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즐거운학교 행복한 교실 만들기	공립
68	C	선도	동광초	043-543-2621	자·타·공·인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언어 문화 개선	공립
69	C	선도	오송고	043-238-8902	사랑과 소통이 있는 명품 오송고	공립
70	A	연구학교	대전중학교	042-250-7802	참여와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바꾸기	공립
71	A	선도	대전대화초등학교	042-621-6738	행복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五樂室 교육 - 꿈, 희망, 어울림, 공감, 배려를 통해 만들어가는 교육가족의 긍정의 협의 문화 -	공립
72	A	선도	진장초등학교	042-543-3072	3GEE Project를 통한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공립
73	A	선도	대성중학교	042-250-6020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한 창의·인성 체험활동 교육	사립
74	A	선도	호수둔여자중학교	042-221-1672	추억과 감동, 기쁨으로 함께하는 졸업	사립
75	A	선도	동아마이스터고	042-620-1118	긍정과 배려, 소통의 학교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립
76	B	선도	대전글꽃중학교	042-250-0365	글꽃스쿨로(schoolaw) 프로그램을 활용한 풀뿌리 학교문화 창출	공립
77	C	선도	대전현암초등학교	042-623-3071	사랑일이 담겨진 행복까지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학교언어생활 바꾸기	공립
78	C	선도	대전지족고등학교	042-717-1550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없는 건전하고 행복한 우리 학교	공립
79	A	선도	금호중학교	044-866-7802	'이벤트' 교과활동·창체활동으로 Happy 교육공동체 만들기	공립
80	C	선도	전의초등학교	044-863-1451	도전, 재능, 협력으로 품격을 높이는 SMART CAP 전의교육	공립
81	A	선도	근화초등학교	033-251-0904	학교폭력 이제는 멈춰! 무궁이들의 발걸음 하나 둘 셋	공립
82	A	선도	구곡초등학교	033-766-9720	4-Ful 마음 나누기를 통한 행복 가득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83	A	선도	청봉초등학교	033-638-2122	'인성리더'가 만들어가는 청봉 행복 문화 - '인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문화 선진화	공립
84	A	연구학교	신남중학교	033-461-6031	학교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올곧은 인성함양	공립
85	A	선도	팔월중학교	033-435-6324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학교문화	사립
86	A	선도	대성고등학교	033-731-1604	자치·나눔·어울림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사립
87	B	선도	북평여자중학교	033-520-5603	청소년 법제관 운영을 통한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공립
88	C	선도	다목초등학교	033-441-7085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89	C	선도	대전중학교	033-680-6630	활동중심 언어순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심성 바른 즐거운 학교생활	공립
90	A	선도	강원예술고등학교	033-650-2700	소통과 참여를 위한 학교 문화 개선 방안 연구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공립
91	C	선도	김화공업고등학교	033-458-1627	「행복한 학교 행복한 말씨 2」	공립
92	A	연구학교	군산동고등학교	063-450-1110	동고동락 PROJECT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공립
93	A	연구학교	장수중학교	063-351-2383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94	A	연구학교	전주덕일초	063-279-3105	학교문화개선 방안 연구	공립
95	A	연구학교	임실삼계초	063-642-7506	박스골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통과 참여의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96	A	선도	전주남중	063-582-6304	학생자치문화 완전정착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학교 만들기	공립

연번	영역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97	A	선도	원광고등학교	063-832-6612	원광고등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3G운동	사립
98	B	선도	남성중학교	063-841-3818	청소년 법제관 사업	사립
99	C	선도	고창초등학교	063-560-1704	소통, 화합, 참여로 실천하는 학생자치활동중심 인성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언어문화개선	공립
100	C	선도	군산진포중학교	063-462-3206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01	A	시범	다압초등학교	061-772-4087	학생중심 3C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02	A	시범	마산초등학교	061-532-5391	『너나들이』 3층 활동을 통한 상(相)상(想)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랑과 생동감이 움트는 밝은 학교문화 조성	공립
103	A	시범	조성중학교	061-857-9121	사제동행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공립
104	A	시범	남악중학교	061-287-3410	학생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창출	공립
105	A	연구학교	화순고등학교	061-370-1502	『3-Step 주인공 되기』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06	A	연구학교	담양고등학교	061-380-8952	학생 주도의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	공립
107	A	연구학교	고흥영주고등학교	061-835-0175	사제동행-울림 프로그램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감성학교 만들기	공립
108	A	선도	목포용초초등학교	061-276-2018	『우리 학교 알범되기』 프로젝트를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공립
109	A	선도	순천왕지초등학교	061-724-9506	3 GO-with 운동을 통한 맑은 품성과 푸른 꿈을 가꾸는 ‘참된 나’ 되기	공립
110	A	선도	성황초등학교	061-791-4036	튼튼한 몸과 고운 맘이 어우러져 행복한 삶이 피어나는 학교 만들기	공립
111	A	선도	과역초등학교	061-832-9379	배려와 나눔으로 행복한 나는 과역숲속 나무 한그루	공립
112	A	선도	순천여자중학교	061-804-2003	존중 · 나눔 · 배려 · 협력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정겨운 학교문화 조성 - 행복한 자매들의 아름다운 동행 -	공립
113	A	선도	광양제철중학교	061-798-1201	행복학교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사립
114	A	선도	남평중학교 (분교포함)	061-331-2145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동아리활동을 통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공립
				061-337-3008		
115	A	선도	금산중학교	061-843-8041	나눔과 배려 프로그램을 통한 다행복UP 금산중 문화만들기	공립
116	A	선도	화순제일중학교	061-379-0302	학생주도적인 학생회와 함께 하는 학교자치문화 속 인성교육실천 - 자치법정,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중심 -	공립
117	A	선도	장성중학교	061-392-1603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장성인 육성	공립
118	A	선도	목포덕인고등학교	061-240-6402	SMART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립
119	A	선도	담양공업고등학교	061-381-3194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선도학교 운영계획서	공립
120	C	선도	광양중마초등학교	061-791-4783	『말·말·말』 프로그램 적용으로 배려존중의 언어 습관 기르기	공립
121	C	선도	광양제철남초등학교	061-798-1401	감사나눔 1:5:5의 실천을 통한 바른 언어 사용 문화 개선 및 학교폭력 사전 예방	사립
122	C	선도	보성남초등학교	061-852-2608	고·바우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23	C	선도	목포헤인여자중학교	061-240-6502	품격 있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통통통(通洞統)’ 뒀는 프로젝트	사립
124	C	선도	영화중학교	061-800-8102	“거언미 래언미(去言美 來言美)” 공공 언어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립
125	A	선도	여남고등학교	061-665-9771	배려와 소통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언어문화 개선	공립
126	A	선도	상무초	062-370-2804	학교문화선도	공립
127	A	선도	농성초	062-360-6501	농성 통통이들의 달콤한 학교 만들기 레시피(Recipe)	공립

연번	영역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128	A	선도	평동중	062-943-2103	학교문화선도	공립
129	A	선도	조대여중	062-230-9444	학교문화개선	사립
130	A	선도	대성여고	062-671-0213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립
131	B	선도	주월중	062-670-5811	학생자치법정의 내실화를 통한 법제교육 실현 -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자치법정의 활성화 -	공립
132	C	선도	진만초	062-958-5677	우리가 만든 언어 문화! 세상이 변해요!	공립
133	C	선도	광주고	062-239-8853	언어문화개선	공립
134	A	연구학교	광주제석초	062-650-6701	교육 공동체의 사랑·배려·나눔 프로그램으로 Happy School 만들기	공립
135	C	선도	금당중	062-650-0800	언어문화개선	공립
136	A	선도	살레시오여고	062-220-1413	학교문화선도	사립
137	B	선도	송광중	062-949-6410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자치법정의 활성화 운영개요	공립
138	C	선도	송학초	062-373-4006	언어문화개선	공립
139	A	선도	수피아여중	062-720-8234	학교문화 선도부문	사립
140	B	선도	송의고	062-672-9911	법제교육선도부문	사립
141	C	선도	송일고	062-608-0500	언어문화개선	사립
142	C	선도	유덕초	062-380-6501	나를 비추는 거울, 고운말 바른 인성 프로그램	공립
143	C	선도	서림초	062-520-868	언어문화개선	공립
144	A	선도	일동중	062-608-1100	학교문화선도부문	공립
145	C	선도	효광초	062-606-8104	Share On! 동아리활동을 통한 여화(語花)등등~ 신나는 학교만들기	공립
146	A	연구학교	나원초등학교	054-775-2050	3D 참(Charm)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生生한 학교 문화 즐기기	공립
147	A	연구학교	김천중앙고등학교	054-435-4011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48	A	선도	봉계초등학교	054-435-5866	3-Self Dream 프로젝트로 소통 UP! 감성 Plus!	공립
149	A	선도	이산초등학교	054-637-2076	Well-Living 소나무 프로젝트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50	A	선도	진량초등학교	053-852-8712	실천적 어울림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51	A	선도	금천중학교	054-372-3592	나와 너를 주인공(主人共)으로 만드는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52	A	선도	산양중학교	054-552-3774	금천 푸른 꿈 두레박 Healing School	공립
153	A	선도	포항이동중학교	054-278-5348	폭력제로! 행복 OK! Well-being교실(심리치료) 운영	공립
154	A	선도	무학고등학교	053-854-8015	학교, 또 하나의 가족 (길잡이 프로그램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부자캠프, 명상의 시간)	사립
155	A	선도	영주고등학교	054-634-5774	선비정신을 통한 「배·나·채」 프로젝트 배움·니눔·채움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립
156	A	선도	도원초등학교	054-932-0960	REAL- 힐링(Healing) 프로그램을 통한 꿈·창의·인성 수(秀)업(UP)	공립
157	A	선도	포은초등학교	054-338-1293	frame을 열어 자신을 깨닫는 마음 경영 -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문 열기 -	공립
158	A	선도	낙운중학교	054-533-6508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학교 문화 개선	공립
159	A	선도	부구중학교	054-782-9365	푸른 소나무와 함께 자라는 행복한 교실, 평화로운 학교	공립
160	C	선도	길안초등학교	054-822-2105	천지감산의 언어동아리! ECO Healing으로 말맵시를 반올림(#)해요	공립
161	C	선도	순심고등학교	054-971-1222	학생 언어문화 개선	사립

연번	영역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162	C	선도	다산중학교	054-955-6987	이제는 다산 동산에 「배려 언어문화」 꽃 피우기	사립
163	C	선도	예천여자중학교	054-654-1650	아름다운 말로 밝은 세상 만들기	공립
164	C	선도	의성중학교	054-832-1684	바른 언어습관 지도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공립
165	C	선도	금성여자상업고등학교	054-833-6982	바른 언어 사용 습관화를 통한 학생 언어 문화 개선	공립
166	C	선도	포항장성고등학교	054-244-7048	실천 중심의 언어 순화 활동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67	A	연구학교	반송초등학교	055-973-5702	체험 중심 HAPPY-I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	공립
168	A	연구학교	거창여자중학교	055-944-3781	씨알(마음씨, 말씨, 맵씨) 배양을 통한 건전하고 올바른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69	A	연구학교	김해삼방고등학교	055-312-8322	삼방(氣의 방, 興의 방, 靑의 방)을 통하여 문화가 숨쉬는 행복한 교정 만들기	공립
170	A	선도	사파초등학교	055-281-3435	통통통 프로그램으로 Happy school 만들기	공립
171	A	선도	창덕중학교	055-291-1685	꿈과 희망으로 꽃피우는 즐거운 학교 “찾아가는 창덕 오행”	공립
172	A	선도	팔룡중학교	055-296-8142	학생회 간부의 또래상담 및 지킴이 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공립
173	A	선도	석동중학교	055-542-7956	체(體), 인(仁), 지(知)를 통합 학교문화 CHANGE	공립
174	A	선도	산청고등학교	055-973-0782	핵심습관 형성을 통한 스마일(SMILE)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75	C	선도	동진여자중학교	055-551-4425	독서교육을 통한 언어순화 프로젝트	공립
176	A	선도	신복초	052-222-6280	다양한 문·예·체 활동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따뜻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77	A	선도	삼정초	052-277-4254	너를 값지게, 너를 귀하게, 삼정을 드높게	공립
178	A	선도	이화초	052-281-7454	이화마루에서 펼쳐지는 E-Smart 한 축제 한마당	공립
179	A	연구학교	이화중	052-286-4117	「예·언·자」 활동을 통한 올바른 인성 함양	공립
180	A	선도	연양중	052-264-6537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 문화 만들기	공립
181	A	선도	울산공업고	052-257-0614	실천 중심 인성교육 활동을 통한 울곧고 씩씩한 인재 기르기	공립
182	A	선도	울산인터넷고	052-277-1812	감·사·나·비 하늘을 날다. - 감사, 사랑, 나눔, 비전을 통해 희망을 꿈꾸며 날다. -	공립
183	C	선도	양지초	052-252-9411	참 말·참 벗(참말을 익혀 참벗들과 마음 나누기)	공립
184	C	선도	효정중	052-287-0808	효(孝)와 정(情)이 가득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공립
185	A	선도	상안초	052-285-5081	이해·공감·어울림으로 폭력 없는 행복학교 만들기	공립
186	A	선도	서부초	052-235-3961	STEP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바른 생각 고운 심성 기르기	공립
187	A	선도	강남중	052-273-2570	“꿈꾸어라, 그리고 이루어라” - 오! YES 프로젝트 -	공립
188	A	선도	대송중	052-236-3742	Be Gentle, Be Happy! 바르게, 행복하게! BB 프로젝트	공립
189	A	선도	온산중	052-238-4140	창의 특(Talk)·인성(Talk)을 통하여 학생이 중심되는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90	A	선도	울산여중	052-292-3951	소통·상통·형통 하는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 만들기	공립
191	A	선도	유곡중	052-246-9142	바른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공립
192	A	선도	청량중	052-268-6540	학생-교사-학부모, 관계와 공감의 행복 누리기	공립
193	A	선도	현대중	052-230-7303	학교폭력 근절과 실천중심의 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행복학교 문화선진화 구현	사립

연번	영역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194	A	선도	울산여상	052-925-2661	새 시대 행복한 학교문화 인성교육으로 함께 가요!	공립
195	C	선도	옥동초	052-269-0914	언어 순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배려아이」 기르기	공립
196	C	선도	애니원고	052-248-4029	언어순화 운동을 통한 학생언어문화 개선 방안	공립
197	A	연구학교	다사고등학교	053-570-3320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형성을 통한 행복학교 만들기	공립
198	A	선도	대구북비산초등학교	053-720-2781	공감과 소통의 선진문화 정착으로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학교 만들기	공립
199	A	선도	대구월성초등학교	053-636-1768	감성 공감 꿈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 Leader 기르기	공립
200	A	선도	학산중학교	053-630-5351	참여와 소통 그리고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학교	공립
201	A	선도	강동중학교	053-960-1414	VIVA 강동! (Voluntary Involvement, Various Activity)	공립
202	A	선도	영남고등학교	053-631-4576	Oh! Yes!!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사립
203	A	선도	경덕여자고등학교	053-563-3476	스스로 만드는 우리의 친·친·친(친한 친구, 친절한 선생님, 친정아 되어줄 학교)	공립
204	C	선도	대구내당초등학교	053-620-9302	니눔·채움·키움의 삼향(三香)으로 고운 빛깔 ‘언어 꽃’ 피우기	공립
205	C	선도	관천중학교	053-323-6325	관련 ㅁ(네모) 힐링(Healing)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공립
206	A	선도	대구내서초등학교	053-555-9994	Story와 소통, 문화·예술을 즐기며 꿈과 끼를 살리고 재능을 찾아 가는 학교축제	공립
207	A	선도	경일중학교	053-354-2282	학교 교육 활동의 축제화로 바른 인성가꾸기	공립
208	A	선도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053-652-4611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제31회 석류제 세부 운영 계획	사립
209	A	선도	반송초등학교	051-540-5802	다움·통함·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한 사랑이 넘치는 글로벌 인재 기르기	공립
210	A	선도	백산초등학교	051-336-7752	소통으로 모두가 주인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211	A	선도	경남고등학교	051-250-5000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학교문화선도 부문」 선도학교 운영계획서	공립
212	B	선도	주강중학교	051-314-4676	『청소년 법제관』 운영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213	C	선도	대청초등학교	051-721-8185	악송·실천·니눔 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언어습관 기르기	공립
214	C	선도	부산여자중학교	051-240-0901	자치, 감성, 공감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언어 생태 가꾸기	공립
215	A	선도	동홍초등학교	064-730-7505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216	A	선도	하귀일초등학교	064-713-9501	학생 중심의 인성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217	A	선도	아라초등학교	064-710-2860	오감만족과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문화	공립
218	A	선도	탐라중학교	064-750-5070	자존감을 키우는 활동을 통한 감동의 학교문화 창출	공립
219	A	선도(자체)	신영중학교	064-799-5701	건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신명나는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공립
220	A	선도	애월고등학교	064-797-5101	고내봉 기술 Se-Pe-Te School	공립
221	A	연구학교	안덕중학교	064-794-7005	UFO 인성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222	B	선도	서귀중앙여자중학교	064-710-9777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한 자율과 존중의 학교 문화 만들기	공립
223	C	선도	외도초등학교	064-743-0820	고운말·바른말 사용을 통한 아름다운 인성, 꿈이 있는 외도 만들기	공립
224	C	선도	한림공업고등학교	064-797-3200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바른 말 한수품 만들기	공립

2013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2차 워크숍

인 쇄 : 2013년 9월 5일

발 행 : 2013년 9월 5일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 이 재 연

인쇄처 : (주)계문사(02-725-5216)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재를 금함.
